(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81 1982년3월26일(금) 2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March 26 & 27, 1982

MAR 3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침묵의 殺人者 소 금

짜고 매운 한국음식 危害度 심각하다

○… 미국의학협회(AMA)와 연방식품관리국(FDA)은 식생활의 필수조미료인소금을 『침묵의 살인자』로 단정, 소금섭취를 억제하기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FDA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1일평균 소금섭취 적정량은 2백mg인데 20배나 되는 4천mg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은 미국음식보다 10배이상되는 염분을 음식에서 섭취하고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출혈, 심장병을 갖는 확률이 훨씬 높다. 한국인이 즐겨먹는 김치 한 접시에는 4천5백~6천mg의 염분이 들어있다. (LA-지사) …○

통닭·김치등에 適量 훨씬초과
難治病 고혈압·뇌출혈등 유발
AMA"가장 危害한 食品"단정

제이즈 FDA국장은 미국성인가운데 약3천5백만명이 고혈압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약6천만명이 가벼운 고혈압증세를 갖고 있는데 고혈압환자의 대부분이 소금과용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FDA가 제시하고 있는 『소금섭취억제책』은 ▲시판되고 있는 식품의 염분농도를 분명히 밝힐것 ▲요리방법에서 소금첨가부분은 삭제할 것 ▲가공식품의 염분농도를 긴저히 낮출것 ▲염분농도가 낮은 소금대용품과 무염분가공식품 생산을 적극장려할 것등 4개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시방안은 식품생산업자들의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의 내과전문의인 오선파씨와 김영선씨는 한국음식중 젓갈류와 조림반찬 그리고 부식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고추장, 간장등으로 만드는 음식에 소금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염분음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고혈압과 심장병 발병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영양에 관해 소아과 전문의 이인숙씨는 한국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포테이트·칩, 콘칩, 햄, 핫도그, 아메리칸 치즈에도 소금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카고의 문내연박사(내과전문의)는 한국음식이 주로 소금에 절이는 「염장방식」을 통해 조리하므로 일반적으로 미국음식보다 10배이상 염분농도가 높으며 FDA가 지적한대로 미국성인들이 1일 필요염분의 20배이상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면 한국성인들은 무려 하루 필요량의 1백배 이상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상식하는 음식중 가장 염분농도가 짙은 즉석닭튀김의 경우 1인분에 2천2백43mg의 염분이 든데 비해 한국인 상용음식인 김치는 1인분 한접시에 무려 4천5백~6천mg의 염분이 들어있다.

문박사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인체수분량이 늘어나 혈액량도 늘게되며 이에 따라 자연히 혈압도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설명하고 『소금과량섭취가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출혈, 전색증, 심장병, 신장병등 치명적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요인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감형 환영
미하원 리치의원

(워싱턴 23일=연합) 인권문제에 항상 관심을 표명해온 미 아이오와주의집·리치 공화당의원은 22일 한국정부가 최근 김대중씨에 감형을 내린 것은 미국과 한국간의 공식·비공식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의원은 이같은 조치가 더욱 발전, 한국이 보다 공개적·민주적 정치체제로 나아가고 김대중씨등 정치범들을 완전 석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격포대항 레이더
미국서 한국에판매

(워싱톤 24일=연합) 미국은 한국에 박격포 탐지 AN 레이더 26개를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국방성이발라 표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 레이더 가격은 총 8,100만 달러(미화)이다.

최전선에 배치, 박격포 공격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레이더는 조작이 간편한 고도의 정밀장비이다.

이 레이더는 미국 휴즈항공기 제작소에서 제조, 미 육군 해병대및 일부 우방국에 납품되고 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社說 화해의 계절
—교민사회 잡음제거를…

한동안 안정세를 지탱하던 이곳 한인사회에 평지풍파같은 분열양상·고소사태가 잿빛 화제를 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굳이 삼가야 할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고소행위와 악의에찬 중상적 잡음 유포로 피해자들을 곤혹시키는 일이다.

캐나다 한인이민사가 20년에 접어들면서 이민1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개인적 생활형편도 안정권에 들어섰으며, 집단적 혹은 소규모 문화행사등으로 점차 남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학원에서 발군의 재능으로 남들을 앞지르고 있는가하면 한편 구석에서는 불미로운 충격파를 빚어 이맛살을 찌푸르게 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위신추락을 결과하기도 한다.

바야흐로 교민간 화해와 협조단계로 들어서야할 계제에 사소한 이해다툼이나 아집, 기분 엇갈림으로 적대양상을 낳고, 걸핏 하면 명분이 안서는 고소짓등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에 부채질하는 등의 처사는 결코 의롭거나 자랑다운 행위가 못됨을 알아야 한다.

그릇에 덜찬 잡동사니가 흔들면 소리를 더 크게 내는 법이다. 고발자는 자기로서 철저히 결백해야 당당하고, 청천의 날벼락으로 100% 억울한 누명을썼을 때에 비로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자격자이지, 미봉책이나 일시적 위장전술로, 또는 감정폭발로 앙갚음하기 위해 함부로 고발장을 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인으로서 모자라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그같은 분쟁의 당사자들은 서로가 한발씩물러서서 보다 차원 높고, 넓고 멀리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교민사회에 내가 앞장 서서 이바지한다"는 벅찬 사명감을 지녀 잡다한 감정대립이며, 눈앞의 사소한 이해문제 따위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할 것이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좁은 가슴으로는 결코 남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서」의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의 긴급한 당면과제는 하루 속히 내적 단합을 이루어 다른 에트닉집단의 선도적 민족으로 부각되는 일이며, 한발 앞서서 이나라 사회에 문화면·사회면·경제면등 각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진취적 민족으로 평가 받는 일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도 사회사업·문화사업·복지사업등 능동적이고 진취성 있게 이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고마운 집단으로서의 존재성을굳혀야할 때가 무르익었음을 피부로 느끼고, 그 방향으로 뭉쳐진 힘 쏟기에 인색지 말아야 하겠다.

방화용의자 정순철 체포
미문화원 사건, 공범 박계동 수배

(서울25일=연합)부산미국문화원 방화범을 수배중이던 한국경찰은 25일 주범용의자 정순철(27) 씨를 전남 영광군의 암자에서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80년12월에서 광주 미공보원에 방화했었고 지난 1월15일에는 일본 밀항을 기도하다가 실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또 한 용의자 박계동(30)씨를 수배중이다. 박씨는 정씨와 같이 일본밀항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차드·워커 주한미대사는 노신영 외무장관을 예방, 한국정부의 적극적 사건수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외무부관리들은 전했다.

도버해협 횡단 도전
수영계의 거물 조오련

(서울25일=연합)한국수영계의 거물 조오련씨는 오는 7월 영·불 도버해협 횡단수영을 위해 매니저 지봉규씨와 함께 25일 현지답사차 떠났다.

80년 대한해협 횡단에성공한 조씨는 이번에 도버해협 수영자클럽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의 날씨, 조류, 기온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조씨는 한국인으로 서는 최초로 74, 78년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유일한 대한해협 역영자인 조씨는 부산에서 쓰시마(대마도)까지의 59.7㎞를 휴식없이 13시간16분만에 주파했었다.영국과 프랑스간의 도버해협은 너비가 18~25마일(30~40㎞)이나 물결이 세다.

……완연한 봄기운 그러나 안심은 금물……

◇며칠간 계속되는 푸근한 날씨에 온타리오호수도 녹았다.
그러나 캐나다의 날씨는 4월에도 눈이 내리므로 너무 성급히 봄이 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을 듯.

社 告

본사는 토론토유일의 직업축구단 블리자드(BLIZZARD)와 입장권 예매계약을 맺었다.

블리자드는 북미축구리그(NORTH AMERICAN SOCCER LEAGUE)동부조에 속해 뉴욕·코스모스, 전년도 우승팀인 시카고·스팅스등 강팀과 한조를 이루고 있다. 북미프로 축구리그에는 유럽및 남미의 프로 축구 선수들이 총집결, 유럽이나 남미 직업축구 수준에 버금한다.

금년 시즌에 블리자드는 총16회의 홈게임을 CNE구장에서 갖는다.

티켓은 A석 $12, B석 $9, C석 $6씩이나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은 반액 할인된다.

입장권 판매는 4월초부터 블루어의 한인상가 2,3개소등을 지정, 판매할 예정이다.

티켓과 게임에 관한 문의는 본사 업무부나 편집부 스포츠 담당자에게 하면된다.

전화: 533-2364

토론토한국일보사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토론토중앙장로교회
바 자 초 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본 교회 여전도회 에서는 성전건축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아래와 같이 열게 되었읍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오셔서 흐뭇한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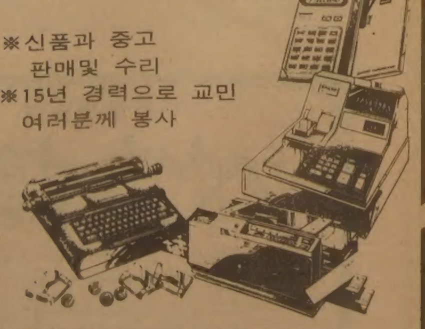
일 시 : 1982년4월3일(토요일)
장 소 : 중앙장로교회 지하친교실
(502 Bathurst St.
(배더스트 × 칼레지))
전 화 : 961-8361
취급품목 : 식품부(고추장 된장 약과 김치 떡류. 장아찌류)
의류부, 화초부, 기타여러가지
메 뉴 : 장국밥, 군만두

주최 : 토론토중앙장로
교회 여전도회 일동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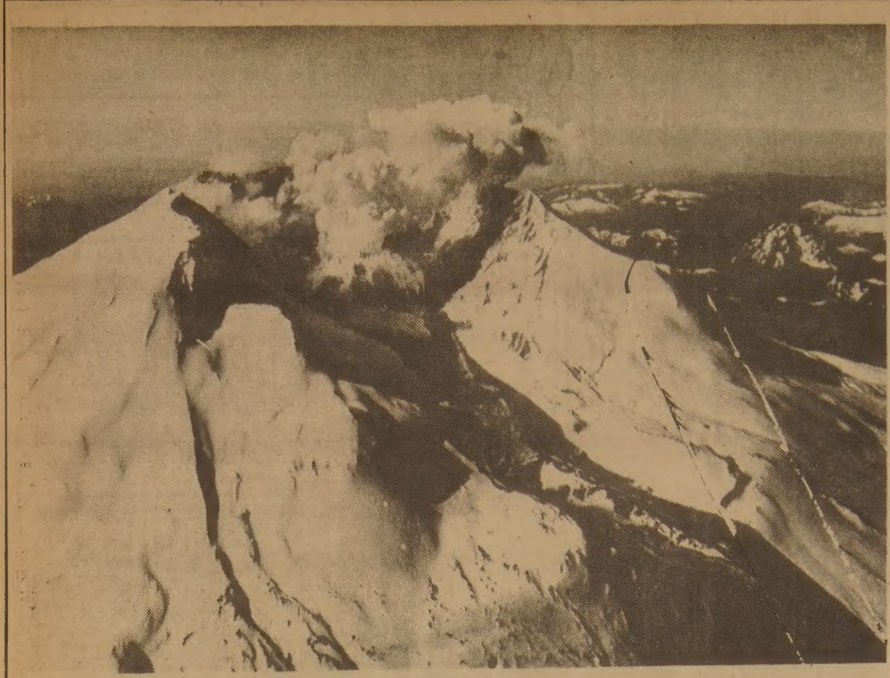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연기 뿜는 세인·헬렌스화산—최근 다시 폭발을 했던 세인·헬렌스산이 분화구속 용암봉우리로 부터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 화산은 지난주말 19, 20, 21일에 걸쳐 3번 폭발을했다. 〈세인·헬렌스산·워싱턴 〉

교포業所돌며 銃器난사

청소년 一黨 3명체포…學生등 3명 중경상

〈뉴욕지사〉 지난 19일 밤과 20일 새벽사이에 중국계 2명과 히스패닉계1명등 청소년 일당 3명이 스토니브룩에 있는 교포주유소를 비롯 뉴욕주립스토니브룩대, 자동차대여업소등 4곳을 전전하며 총기를 휘둘러 학생2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유소에서 일하던 교포 안병기씨(33)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윌렴·레이(17), 필립·왕(22), 타브리치오·바바랄(21)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19일밤 늦게 처음 스토니브룩대를 방문 한국학생회가 주최하는 봄축제에 참가했는데 당시 이 장소에는 초청하지 않은 중국계 청소년들을 포함 3백여명이 있었다는 것.

경찰은 이 파티에서 한인학생과 중국계 청소년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져 레이가 발사한 총에 맞아 그의 친구인 크리스·친(17)이 왼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레이등 중국계청소년 3명은 20일 새벽3시30분께 체인즈블러버드에 있는 교포경영의 아모코주유소에 들러 교포 안병기씨에게 접근했다.

안씨는 강도임을 눈치채고 재빨리 도망갔으나 이 청년은 22구경 총을 꺼내 안씨에게 발사하고 도주했다.

안씨가 생명을 건진것은 다행히도 금니 6대 덕분이었다.

총알이 안씨의 인중을 관통했을 때 6대의 금니중 가운데 2대를 맞고 빗겨나가 오른쪽 뺨을 관통했다.

범인들은 이후 새벽4시30분께 잭슨하이츠에 있는 버짓렌트어카에 들러 3백달러를 챙겨 도주하려던 순간 순찰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판 모세의기적 진도서 관광객끌어

(진도 23일=연합)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진도개로 유명한 이 진도 섬해안에서 4월24일~26일과 5월23일~25일 사이에 매일 일어날것으로 예견됐다.

모세의 기적은 다름아닌 진도와 이웃섬 사이 10m깊이의 바다가 갈라지면서 40m의 넓이, 2.8Km길이의 물이없는 좁고긴 바다바닥을 들어 내놓는다는 것 이다.

과학자들은 2년마다 일어나는 이현상을 조수간만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자연의 경이는 70년대 중반이래 국내와 국외에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국침술 격찬 아프리카서 효력커

(서울 23일=연합)아프리카 가봉국의 의학계 권위자가 한국침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한국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가봉국립의대 부학장인 데이빗·슈바이쩌 교수는 "침술은 편리할 뿐 아니라, 가봉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병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봉에서는 말라리아를 포함, 각종 전염병을 예방치료하는데 침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밝혔다.

슈바이쩌 교수는 침술로 말라리아 환자의 90%까지 치료했으며, 심지어는 인체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데도 성공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태생인 슈바이쩌 교수는 20~21일간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침술학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79년 경희대학교에서 침술을 배운적이 있다.

80년 이래 슈바이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고 알버트·슈바이쩌 박사가 건립한 가봉 람바렌에 있는 슈바이쩌 병원에서 일 하고 있다.

교 민 동 정

◆이축길(전 사진협회장), 김종욱(한인천주교회 전사목위원장), 김창환(의사), 한준섭(가게경영)= 4쌍의 부부들이 함께 이태리·프랑스·스위스관광, 성지순례등 14일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중순 토론토로 돌아왔다. 특히 순교유적과 프랑스 루르드 기적성지 방문때는 로마 유학중인 종교음악가 이종철 신부의 안내로 뜻있는 순례가됐다고

◆김창열(토론토한인 YMCA총무)=새로 단장한 건물(West end YMCA—931 C. llege St. Tor. Tel 536—1166)로 이전, 한인Y 창설5주년 축하잔치 준비에 초긴장, 초분망,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이라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5주년 기념행사는 27일 (토)하오3 -5시 새회관 실내체육관에서 벌인다. 예상내빈 250명, 교민다수의 참석을 바라고있다.

◆윤호섭(가와이피아노 경영)=힐·크레스트·멀(영×던힐)및 마캄·프레이스(스틸×던밀)에 2개의 음악학원겸 피아노상회를 경영중인데 금년도 음악원생을모집한다. 개강은 4월5일, 접수는 상오9시30분~하오 9시, 수시로 받는다.

윤씨는 또한 4월하순 개원자축회에 교민들을 초대, 기념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념식 장소는 8개의 교실및 리싸이틀 장소를갖고 있는 힐·크레스트멀 스튜디오.

당신은 행동파인가, 관망파인가?

성격을 측정하는 16가지 질문

당신은 참여행동적인가? 혹은 소극관망적인가? 적극적인가? 아니면 소극적인가?

당신은 여건이 허락하는데까지 삶의 모든부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뛰어들어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타입인가. 아니면 고고한 자세로 뒷전에 물러앉아 다소 냉소적인 기분으로 세상사를 관조하는 타입인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 측면이 한데섞여있다. 즉 우리는 항상 사교적(비사교적), 충동적 (사려적), 활동적(비활동적)이 될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성격이 두가지 타입중 어느것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얼마나 생동적이고 변화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측정할수 있다.

다음의 각 질문에서 A와B중 가장 당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답을 고른후 얼마나 많이 A나B를골랐나 각각 더한후 나중에 점수계산 부문을 보면된다.

1. 다음주 어느그룹 모임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받았을때.
a)기꺼이 응락한다. b)반사적으로 변명을들어 거절한다.

2. 기분좋은 여름 저녁, 편안한 자세로 한가할때 읽을양으로 모아둔 잡지를 들치고 있을때 아주 친절한 친구한테서 전화가왔다. 밖에나와 아이스크림을 들면서같이 산책하자고 재촉한다. 이럴경우.
a)기꺼이 밖으로 나가는것을 환영한다. b)완곡히 거절하고 집안에 머문다.

3. 아무도없는 집이나 아파트방에 들어서면 보통 처음 하는일은 라디오나 TV를 켜는일이다.
a)틀리다. b)맞다.

4. 수퍼마켓의 농산품부(Produce section)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때 옆에있던 여자가 전혀 생소한 채소에대해 격찬하는것을 무심결에 들었다. 이럴경우.
a)그녀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묻고 조금사서 실지로 해본다. b)평시대로 사던것을 산다.

5 때때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죄책감이 솟구치는것을감소하기위해
a)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적당하게 격렬한 육체적운동을한다. b)체력단련에 별로 흥미도없고 규칙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6. 배우자나 친구와 유럽으로의 휴가여행을 줄곧 이야기해 왔다. 그러다가 어느날 TV에서 드라큐라 영화를 보고 루마니아를 방문하기로 둘이 결정했다. 이나라 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하나도 없을경우.
a)스스로 이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여행하는것을제안한다. b)여행안내자가있는 단체관광을 추천한다.

7. 누구나 가끔 느긋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휴일에.
a)보통 나는 일찍일어나 밖에나가 온종일 보낸다. b)자주 잠옷바람으로 집안에서 하루를 보낸다.

8. 나는 2~3시간이 걸리는 곳에 버스를 타고 가고있다. 내 바로옆의 기분이 한껏 좋은승객이 얘기를 건다. 이럴경우.
a)기꺼이 그와 환담한다. b)간단히 묻는말에 대답하고 책을꺼내 본다.

9. 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때 프로테니스, 프로하키, 야구경기나 발레같은 공연이든.
a)나는 직접가기를 좋아한다.
b)나는 TV를 통하여 구경하는것을 좋아한다.

10. 다시 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때.
a)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을위해 선물 고르는것이 쉽고 즐겁다. b)나는 심지어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엇을 선물로할까 자주 고심한다.

11. 나는 상당히 늦은시간 저녁을 먹으러 조그만 레스토랑에 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기도 하고, 체중조절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생선요리를 주문하려한다. 웨이터는 지금 이시간에 남은생선은 오직 바다농어(Bass)라고 알린다. 가시를 잘 바르지 못하는 나는 농어와 같이 가시가 많은 생선은 딱 질색이다. 이럴경우.
a)나는 그래도 농어를 주문한다. 비록 웨이터나 동행한 친구에게 가시를 발라달라고 부탁하는 한이 있더라도. b)대신 육류요리를 택한다.

12. 등산을하다 나와 친구는 관목숲에서 이상한 딸기종류의 열매를 먹고있는 어느 늙수레한 부부와 마주쳤다. 나는 이같은 열매를 처음봤으나 이 부부는 이열매를수년간 먹어왔다고 우리를 안심시키며 먹으라고 권한다.
a)나는 그것이 해가 없을것이라고 판단, 먹어본다. b)정중히 거절한다.

13. 친구하나가 1년간 해외로 나가살게 됐다. 이럴경우.
a)나는 계속 친구와의 접촉을 위해 자주 길고 잡담조의 편지를 쓴다. b)나는 새해 첫날 국제전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의 회답을 기다린다.

14. 스포츠나 록·콘서트를 관람하다 흥이나면.
a)나는 자주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정적으로 환호한다. b)기껏해야 가볍게 박수치는 정도다.

15. 비용은 무시한다고 가정할때.
a)나는 파티에 가는것보다 주최하는것을 좋아한다.
b)나는 파티를 여는것보다 가는것을 좋아한다.

16. 나의 친절한 친구들과 어울릴때.
a)나는 자주 같이모여 무엇하기를 제안한다. b)다른 친구가 제안하도록 놔둔다.

점수계산

A가 13개이상 : 당신은 새로운것, 새로운사람, 새로운환경을 좋아한다. 당신은 때때로 기꺼이 당신을 새롭게계발하며 단순히 관광자로 만족하지 않는다. 당신은 일어나 무엇인가 해야한다.

A가 8~12개 : 당신의 생활이 불균형하지는 않다. 그러나 좀 더 능동적이 돼야한다. 그러면 좀더 당신의생활을 더욱 즐길수 있다.

B가 대부분 : 당신생활의 대부분은 무미건조하며 판에박힌 일일 경우가 많다. 당신은 아마 생활의 한 큰부분은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이 B라고 표시한 문제로 되돌아가"왜 A는 아닌가?"라고 자문해 보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창립 15주년기념

본 교회는 토론토 한인 이민역사와 함께 1967년9월 설립되었읍니다.

T.V 선교방송1주년기념 선교집회 (1981년4월5일 방영시작)

시 일 : 4월25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강 사 : 곽 규 석 장로(후라이보이)
현 한국연예인교회 시무장로

파란많은 연예계 생활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변화받아 연예인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한국연예인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장로로서 기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계 방방 곡곡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요.

특별헌금 : 당일헌금은 TV선교방송을 위한 선교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기재추가구입(카메라 2대시스템)을 할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테레비죤선교방송
생명의말씀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토론토한인장로교회
TORONTO KOREAN PRESBYTERIAN CHURCH
TEL: (416) 535-6864

어린이 음악콩쿨대회 안내서

대 회 일 : 1982년5월1일(토) 오후1시
심사위원장 : 박 재 훈 박사(497—0406)
신 청 마 감 : 4월25일까지
신 청 방 법 : 신청서, 참가비(수표), 자유곡 사본 3통을 본교회로 전달 또는 발송 (편리를 위해 서울식당에 신청을 해도 무방함)

대 회 장 소 :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onto.
문 의 : 535—6864(사무실)
275—7276(김인철전도사)

내용 / 구분	연 령 별	지정곡(동요)	지정곡(찬송가)	자 유 곡	시 상	비 고
독창부 참가비 $ 10	유 치 부 (5세이하)	아기별, 시냇물 중 택일	사랑의 하나님	동요나 찬송 가중 1곡	1, 2, 3등 트로피및참가	1)모든 종목은 2절까지 부르며 1절후 간주 2절을 부른다. 2)반주자는 참가자가 동반한다. 3)지정곡은 동요1곡 찬송가1곡, 자유곡은 동요나 찬송가중 1곡으로 합3곡을 부른다.
	유 년 부 (G 1-G 3)	산바람 강바람, 파란마음 하얀마음 중 택일	어려서 부터	〃	〃	
	초 등 부 (G 4-G 6)	봄이 왔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	〃	
중창부 $ 20	유 년 부 (3학년이하)	어머니 은혜	아름다운 장미	〃	〃	4)각부분 년령별 수상자 트로피는 각기 관장이 증정하며 수상자는 본교회 T. V. 에 출연합니다. 5)신청서, 안내서, 악보는 다운타운의 종교서관, 서울식당, 스카보로 지역은 한국식품 동부지점, 미시사가지역은 한밭식품에 비치되어 있읍니다. 6)각교회및 한글학교는 발송하였으므로 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7)본교회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악보를 갖고 가셔도 됩니다.
	초 등 부 (G4-G6)	옹 달 샘	아름다운 장미	〃	〃	
합창부 $ 50	합창부는 G 6이하 16명 이상 여성, 남성, 혼성중	종소리, 초가집 초록바다중 택일	오, 은혜로우신 오, 거룩한아기 중 택일	〃	1, 2, 3등 단체 트로피및 1등 지휘자, 반주자 개인 트로피	

담임목사 : 박 희 민
전 도 사 : 김 인 철
마음의양식 : 532—2121
전화 상담 : 535—6864
한인성서신학원 4월1일(목) 개강
(1977년 평신도훈련목적설립, 3년제)

발렌주엘라 무조건 降服

다저스球團압력굴복 訓練캠프 合流밝혀

◇계약금시비로 22일 플로리다 베로·비치에있는 LA다저스 스프링 캠프에 도착한 발렌주엘라. 그는 금년도 연봉으로85만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다저스는 35만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 사인을 안한채 일단 연습에는 참가키로 한 발렌주엘라는 그동안 혼자서 계속 피칭연습을 해왔으므로 게임에는 지장없다고.

年俸싸고 異見계속 契約書엔 사인않겠다고

球團側 마지막 제시조건은 보잘것없다 不平

2年째론 最高대우 主張에 "기여도 생각하라"

〈LA-AP〉 연봉 1백만달러를 요구하며 LA다저스팀에 대항했던 멕시코태생의 왼손잡이 투수 페르난도 발렌주엘라(21)가 드디어 스트라이크를 거두고 다저스팀의 춘계훈련에 합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발렌주엘라는 그러나 82년도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발렌주엘라는 이날 LA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의 다저스팀춘계훈련장에 출두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것이 가족, 팀동료, 친구, 나자신에대한 의무다』고 밝혔다.

발렌주엘라는 다저스구단주측이 인센티브조항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주겠다는 마지막제의도 거부했다.

다저스구단주 피터·오말리는 『우리는 그에게 새로운 제의를 했다. 발렌주엘라측이 왜 그 제의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제의는 상당한 인센티브조항이 들어있는것으로 우리가 당초제의했던 35만달러를 훨씬 상회하는것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발렌주엘라변호사 [illegible] 『그제의는 별로 큰것이 아니다. 조그만 백다귀하나더 얹어주는것. 두어개의 보잘것없는 실적조항이 추가된것이다』고 구단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저스 구단측은 그러나 발렌주엘라의 연봉을 추후 인상해줄수있는 가능성을 배제한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발렌주엘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아도 다저스가 주기로한 35만달러를 받게된다.

이는 지난해 연봉인 4만2천5백달러에 비해 8배나 많으며, 미야구역사상 선수생활 2년째 치고는 최고의 액수를 받는것이다.

발렌주엘라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다저스구단측에 대항하여 버티었던것에 대해 동료선수들이 별로 비판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렌주엘라는 올해시즌에 1백만달러를 요구하고 나중에는 85만달러를 요구한데 대해 로스엔젤스의 멕시코계 미국인들로부터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발렌주엘라는 이날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나의 대표와 나는 다저스측과 사실 협상을 해본일이 없다』고 말하고 『여러차례 만나기는 했으나 협상조건은 우리측에서만 내놓았었다』고 밝혔다.

다저스측은 2년차선수로서 그들이 발렌주엘라에게 제의했던것보다 많은연봉을 받은사람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映畵『레즈』 제작진에 2천만弗 배상訴訟

영화각본상을 비롯 12개부문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영화「레즈」(빨갱이)의 제작진및 출연배우들을 상대로한 2천만달러의 소송이 제기 되었다.

전기작가인 윌리엄·그린(82)은 9년전 웨렌비티가 자신과 헬렌스미스가 공동저술한 공산주의자 루이즈·브라이언트의 전기저작권을 2백50달러에 매입한후 영화화 될경우 돈을 더주겠다고 하고는 한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그린주장에 따르면 현재 호평을 받고있는 「레즈」는 과격한 언론인이었던 존·리드와 그녀의 부인 루이즈·브라이언트의 로맨스를 그린것으로, 그와 헬렌스미스가 심혈을 기울여 쓴「루이즈·브라이언트 : 한과격분자의 전기」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한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에대해 비티의변호사는 성공한영화에는 항상 지작권 소송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그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석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三國志 341

글·高羽榮·그림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㉓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태오신부, 미안해. 당신을 방금 모욕해서 말이야. 그러나 당신에게 진심으로 부탁할 것이 하나 있네. 즉 당신만은 정말이지 다른 신부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이야. 인간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받게 되는 마음의 아픔을 진정 이해 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인간의 심정을 가진 인간-신부가 되어달라고 나는 부탁하는 바일세. 인간을 벌하하느님이 아닌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신부가 제발 되어다오. 교리문답에서는 사람이 하느님을 위해 있다고 했지만 난 그런 교리를 아주 싫어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누구를 해 있다는 그러한 종속 의식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마치 헌병사령관이 아니면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재자처럼 내세우게 되거든. 나는 교회가 가르치는 그러한 하느님을 믿지는 않아도 내나름로의 하느님을 믿고 있어. 즉 나의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있는 온갖 약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인간에게 봉사하고 인간을 사랑하신분이야. 이처럼 나의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계시는 그러한 분이야. 그분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며, 다만 당신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자유로히 깨닫고 감사하며, 그럼으로써 당신의 사랑에 우리 인간의 사랑을 동화시켜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야."

"부리노, 정말 고맙네. 지금자네는 지난 9년간 공부한 내 신학적 지식을 총정리 해 주고 있네. 「인간을 위해 계시는 하느님」이란 이 엄청난 진리를 깨우쳐 주었네. 자네의 부탁대로 인간을 위해 계시는 하느님이란 이 명제가 앞으로의 내 사목생활의 지침이 될 걸세. 그리하여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교회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신부가 되겠네. 그것을 자네에게 진정 약속하네. 이제 내나이 35세면 그러한 약속을 인간양심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부리노의 갑작스러운 신앙고백을 들으면서 한편 반갑고 놀랬다. 그에게 아직 신앙이 살아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었고, 또 그가 그러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데는 아니 놀랄 수 없었다. 그리고 부리노는 언젠가는 꼭 회개 할 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갖게 되었다.

"태오 신부, 그런 약속을 하느님께는 제발 하지 말게. 왜냐하면 하느님께 맹세하면 신부라는 직업의식에서 오는 당신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나같은 인간하고는 약속하세. 나에게 한 약속 정도는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난 당신을 벌줄 자격도 권한도 없으니 안심하게."

그는 이러한 농담을 하며 픽 웃기까지 했다.

"하느님께서 봉사하시고 사랑하신 인간일뿐 아니라, 그를 위해 하느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인간인데, 그래 그처럼 고귀한 인간의 양심에서 우러 나온 약속을 어길 수 있겠나? 자네의 신념대로 말한다면, 「하느님 위에 인간이 있다.」할 정도로 존귀한 인간의 양심을 모독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후 어떻게 됐나? 루씨와의 사랑이·

나는 그의 사랑의 결과가 궁금해서 화재를 돌려 그의 사랑 이야기로 되돌아 가고 싶었다. 그때 그는 말의 계속을 정리라도 하는듯 눈을 감고 뭔가를 한참동안 상념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하자면 루씨는 수녀될 성소가 없으면서도 단지 하느님의 벌이 두려워 수녀원에 들어간 셈이야. 물론 열심한 카톨릭 처가 한번쯤은 꿈꿀수있는그러한 순결한 생활에대한동경과 봉사에대한 의욕이전혀 없었던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야. 루씨는 남을위한 봉사정신과 연민의정이 비교적 강한 여자였어. 수녀원 생활초에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니 그것도 수련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차차 없어지더라는거야. 마치 우리군인들이 전투훈련을 잘 받음으로써 그처럼 어려운 전쟁은 해낼 수, 모든것이 훈련의 결과인지도 모르지. 비교적 마음의 평화와 행복속에 수련을 계속하던 어느날, 내가 타락하여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듣었대. 그후부터 루씨는 나의타락이마치 자기의 탓인양 양심의 가책을 받기시작했고, 그럼에따라 나에대한 옛사랑이 되살아나 심한 심적고통을 받았다는거야. 나의소식을 알려고 사방으로 수소문해 봤으나 수녀라는 입지적조건에서 오는 제약된 방법 때문에 알길이 없었다네. 그녀가 제아무리 내 소식을 들으려 했어도 그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 왜냐하면 나는 군에 입대한후아무에게도, 심지어는 내 부모님에게도 소식을 전한일이 한번도 없었으니까. 멋대로 살다가 죽게되면 아무의 신세도 지지않고 전장의 먼지속에 묻혀버리자고 군에 입대했었으니까.

(계속)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프로축구를 즐깁시다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Dates	Opponents	Times
Saturday, April 17	Tulsa Roughnecks	8:00 pm
Wednesday, April 21	Edmonton Drillers	8:00 pm
Saturday, May 1	Ft. Lauderdale Strikers	8:00 pm
Wednesday, May 5	New York Cosmos	8:00 pm
Saturday, May 15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May 20	Chicago Sting	8:00 pm
Tuesday, May 25	San Diego Sockers	8:00 pm
Wednesday, June 16	Portland Timbers	8:00 pm
Saturday, June 19	San Jose Earthquakes	8:00 pm
Wednesday, June 23	Seattle Sounders	8:00 pm
Wednesday, July 7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July 22	New York Cosmos	8:00 pm
Sunday, July 25	Vancouver Whitecaps	3:00 pm
Wednesday, July 28	Chicago Sting	8:00 pm
Saturday, Aug. 14	Jacksonville Tea Men	8:00 pm
Sunday, Aug. 22	Tampa Bay Rowdies	3:00 pm

홈게임 오픈

브리자드 : 툴사·러프넥스
4월17일(토)밤8시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4월초순부터)

전진 특별성회안내

일시 : 1982년3월27일(토), 28일(일)매주오후7시30분
장소 : 성도교회당
주소 : 87 ELMHURST, DR. (ISLINGTON×ELMHURST)
전화 : 745—7370, 746—2870, 746—0160, 746—6223.
강사 : 전진원장(대한수도원 원장)

후원 : 대한수도원 토론토기도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캐나다지부

1982년 3 월

성도교회 목사 : 김 용 진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실협여론조사 높은 참가율 보여

본 협회가 협회운영의방향설정과 사업계획의 기초자료로 지난2월19일부터실시한 여론조사서는 3월 15일까지 600매의 질문서중 241명회원이 응답,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는 실협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의 진로설정에 올바른 방향제시와일선에서 분투하는 임원및이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북돋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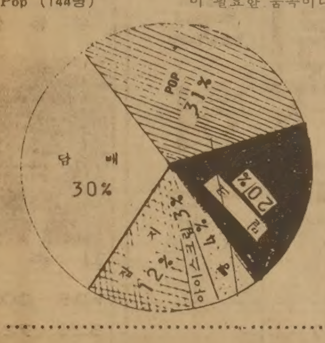
금번 여론조사 집계가협회발전에 귀중한 자료가됨과 동시에 장기및 단기적인 계획수립에 시금석이될것이다.

여론조사에 성의껏 응답하여 성원을 아끼지않은여러회원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여론조사 통계및 분석

총응답자수 : 241명
기간 : 1982년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

〈질문(1)〉협회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상품이 어떤것이어야 하겠읍니까?
밀 크(93명)
빵 (21명)
아이스크림(16명)
잡 지(58명)
담 배(139명)
Pop (1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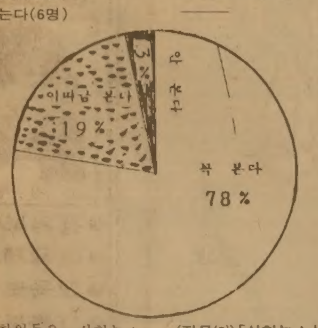


코너스토어의 주종목인 밀크(20%), 빵(4%), 아이스크림(16%)에 비하여 잡지(12%), 담배(30%), 팝(31%)등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것은 이미 협회차원에서 밀크및빵의 딜이 만족한 선으로 협상되었기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현재 일부 체인스토어및 수퍼마켓에서 담배와 팝을 거의 도매가격선에서 덤핑하므로 이는 회원상점이가격면에서 고전을 면치못하는반면 매상의 25%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의 실지이익의 마진은 적고, 대신 많은금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보다나은 이익율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팝은 많은공간을차지, 빈병 처리문제, 차별가격문제등이 있으며, 잡지의 경우와 딜리버리맨들의 횡포등 인간관계상의 개선책이 필요한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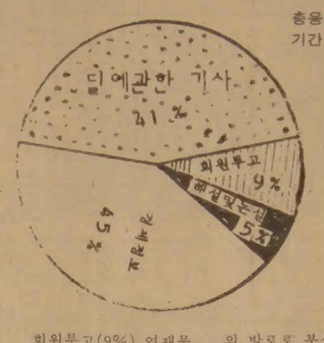
〈질문(2)〉「실협뉴스」가 실린 신문을 보십니까?
꼭 본다 (189명)
가끔 본다(46명)
보지않는다(6명)



일부회원들은 실협뉴스란을 예산의 낭비라고보는경향이 있었으나 금번조사를 통하여 응답자중 절대다수인 꼭본다(78%), 가끔본다(19%)를 합치면 97%가 읽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겠으며, 다만 앞으로 보다 충실한 내용의「실협뉴스」란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자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뒤 따른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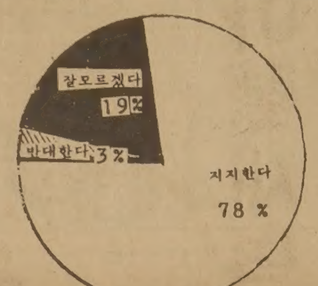
〈질문(3)〉「실협뉴스」를 어떤면에서 사용하면 좋겠읍니까?
딜에관한기사(196명)
회원투고 (42명)
해설및 논설 (22명)
경제정보 (219명)
연재물 (0)
기타 (2명)



회원투고(9%), 연재물, 기타(1%)에비하여 응답자중 딜에 관한 기사(41%), 경제정보(45%)의 높은 지지율은 현재 교포 일반신문의 편집상 특수성으로인하여 경제면에 충분한 지면을 할애치 못하는 욕구의 발로로 분석된다.

앞으로 협회는 각 방면의 경제전문잡지와 정부간행물을 구독하여 협회및회원과 연관된 경제기사를자체적으로 발췌, 게재토록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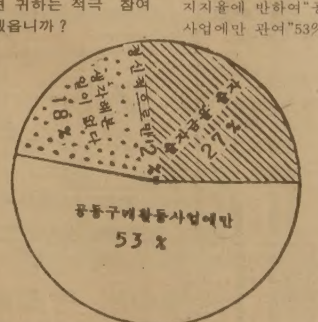
《질문(4)》협동조합을 추진하는 협회의 정책을 어떻게생각 하십니까?
지지한다 (188명)
반대한다 (8명)
잘모르겠다)(45명)



협회의 협동조합 설립정책을 다수인 78%가찬성하였지만 응답자중 19%는 "잘 모르겠다"고 한것은협회가 아직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지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가 자세한 내용의 홍보활동을 벌인다 상당수가 찬성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짙다.

특이한것은 반대로 8 명의 회원이 있는데, 협회는 이분들의 반대의견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협동조합설립에 좋은 참고자료가될줄로 안다.

〈질문(5)〉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귀하는 적극 참여하시겠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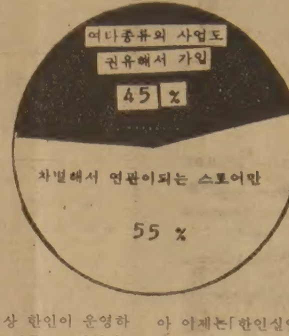


출자금을 출자해서(64명)
동동구매활동 사업에만(128명)
정신적으로만 (6 명)
생각해본 일이 없다(43명)

협동조합 설립을 78%의 지지율에 반하여"공동구매、사업에만 관여"53%, "출자금을 출자하여서"27%의반응은 질문4번에 약간 상반된다고 보겠다. 이는 조합설립이후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의 문제점및 Ware House의 관리문제등을 우려한 회원들의 반응이 아닌가싶다.

결론적으로, 실협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수반될수있는 경영관리상의 문제점, 경제성의 문제연구등많은 숙제를 집행부에 안겨준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의 설립 이전에 반드시 예상되는 관리상의 문제점분석및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질문(6)〉회원의 가입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종류의 사업에도 권유해서 가입시켜야 한다(108명)
협회와 연관되는 스토어만 가입시켜야한다(1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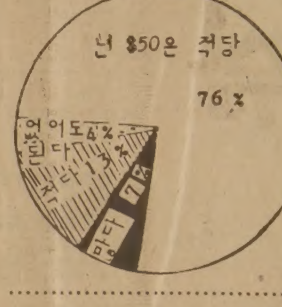


현 회칙상 한인이 운영하는 어떠한 업종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나 종래까지코너·스토어에 국한하였으므로 현재까지는 소수의 여타사업만이 협회산하에 들어와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회원인 응답자중 45%가 여타사업의 협회가입을 권유해서 가입시킬것을 찬성하는것으로 보아 이제는「한인실업인협회」가 보다넓게 문호를 개방하여야할 싯점에 온것이아닌가 사료된다.

〈질문(7)〉협회회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50은 너무많다(18명)
연 $50은 너무적다(30명)
연 $50은 적당하다(184명)
없어도 된다(9 명)

현재 협회는 협회비의하향조정을 고려하였으나 절대다수의 회원이 적당하다(76%)고 인정하므로 당분간 조정이 필요없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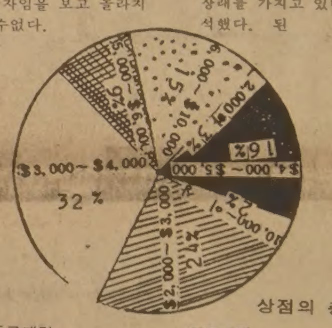


〈질문(8)〉귀하는 스토어의 물품을 어떤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도매상에 간다(60명)
도매상에 주문하여 딜리버리 받는다(25명)
위의 두가지를 병용하고있다(156명)

두가지를 병용하는 방법이(65%)대부분이나 아직도"도매상에 직접간다"(25%)가"딜리버리 받는다"(10%)보다 많은경향이있다.

〈질문(9)〉귀하는 한주에 물품구입비를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2,000~이하(4명)
$2,000~3,000(59명)
$3,000~4,000(76명)
$4,000~5,000(40명)
$5,000~6,000(21명)
$6,000~10,000(37명)
$10,000~이상(4명)

이상의 도표에서 보는바와같이 우리들의 총한인코너스토어를 1,000개소로가정한다면 그 구매력이 2억3천만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숫자임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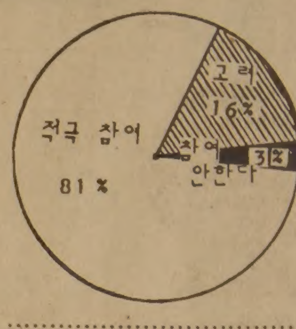
상점의 총물품에대한 구매

구분	주구매력	월구매력	연구매력	비고
응답자 241명의 총 구매력	$1,071,500.	$4,549,625.	$55,718,000.	$2,000 (4) $2,000 - $3,000 (59) $3,000 - $4,000 (76) $4,000 - $5,000 (40) $5,000 - $6,000 (21) $6,000 - $10,000 (37) $10,000 (4)
1개 스토어의 평균 구매력	$4,446.00	$18,878.11	$231,195.02	
현회원 총수 650명의 구매력	$2,902,250.00	$12,334,562.00	$150,917,000.00	
총한인스토어의 구매력 비회원포함 1,000개, 이상 명명	$4,465,000.00	$18,976,250.00	$232,180,000.00	

물론 스토어당 주구매력이 $4,446이라는 높은 액수임을볼때 응답자의 대부분이 코너스토어 평균매상이상의 회원들이라고 추측이 되나 지난 수년동안 근면, 성실한 한인교포들이이방면으로 몰입함으로써 코너·스토어들이 종래에 볼수없게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퍼마켓및체인스토어들이 우리들을의식하고 가격덤핑이 수시로 시도되는것이 아닌가 싶다.

스토어당 평균 주구매력 $4,465를 현재의 총회원수 650명으로 계산한다면 약 3백만달러에 육박하니 우리의 협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중 최소 10%의 구매력만 흡수한다면주 30만달러의 총매상을 예상할수 있으며, 기존 도매상의 평균총 이익를 4~7%를 실협협동조합은 1.5%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연총이익 $234,000(300,000×0.015×52주)로서 충분히 손익분기점 이상을 가능하는것으로 판단되며, 협회원들 에게는현존하는 어떠한 도매상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실협의 협동조합 추진은 밝은 장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된

〈질문(10)〉만약 협회 차원에서 상품불매운동을 꼭 해야한다면 귀하의 견해는?
적극참여한다(196명)
참여안한다(6 명)
고려해 보겠다(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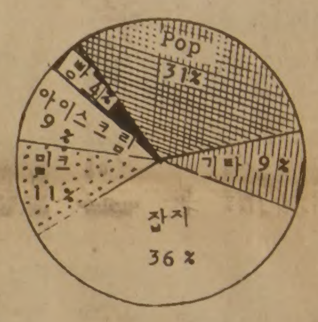
본질문에 대하여 애당초협회에서는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막상 81%이상의 회원이"불매운동에찬성한다"는것은 놀라운 반응이다.

이는 평소에 독점회사가 코너스토어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것에대한 욕구불만이 표면화 된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협회가 앞으로 불매운동의 대상및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물론상당한 연구와 최대한의 신뢰을 기해야 될줄로 안다.

또한 불매운동을 실지로 이행할경우, 81%의 높은지지율과같이 회원들이 불매운동의 대열에 적극참여할지의 여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이는 오직 전체회원의 단결로서만이 성공할수 있으며, 만일의경우 불매운동을 특정회사를 상대로 실시한다면 반드시 성공할수있는 전제로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질문(11)〉만약 불매운동을 시도한다면 어떤 상품및회사를 해야 하겠읍니다.
밀크 27명(11%)
아이스크림 22명(9%)
잡지 87명(36%)
빵 10명(4%)
팝 73명(31%)
기타 22명(9%)
무엇이던지 협회결정에 따르겠다 3명(%)

질문11번의 통계는 현재 운영되고있는 Complain 상담실에서 처리된 통계와근사한 함수관계를 갖는것이 특색이며, 구체적인 회사명은 지상을통해 발표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품명만 밝혀둡니다.



초대의 말씀

토론토한인 YMCA창립 제5주년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 1982년3월27일(토)하오3시
곳 : West-End YMCA
931 College St.
(칼레지 × 도바코트)
※화환이나 축하선물에 뜻이 있으신분은 찬조금으로 대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82년 3 월

토론토YMCA
이사장 : 전택균
총 무 : 김창열

점심 특별 스페샬 ＊＊＊

한국관

기 간 : 1982년4월15일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5.00 : 유부덮밥, 생선초밥, 회덮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 OPEN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이옥녀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실협교육세미나

회원 여러분의 사업경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져 교육쎄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 시: 1982년 4월 16일(금) 오후5시
◉장 소: INN ON THE PARK HOTEL, OAK ROOM LESLIE & EGLINTON E, TORONTO
◉회 비: 1인당 $15 (DINNER 포함)
◉순 서:
5:00-6:00 CASH BAR (친교)
6:00-7:00 DINNER
7:00-7:30 HOW TO BUILD UP THE LINE OF CREDIT, 최승낙외환은행장
7:30-8:00 RETURN AND CREDIT SYSTEM, ALEX C. PETRAITIS (METRO NEWS 부사장)
8:00-8:30 STORE LEASING 시 유의할 사항 강찬영 고문 변호사
8:30-9:00 STORE OWNER 의 INCOME TAX DEDUCTION 한계, 김인규 공인회계사
9:00- 질의응답.
1982년 3월 26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새용의자 李鎬喆검거令

釜山서 目擊者신고 작년 校内示威기도…傳單 전국配布

【釜山=盧基昌기자】부산美문화원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2일 지난해 B大교내시위를 배후에서 조종, 수배했던 李鎬喆(24·가명 이경민·81년 B大法大졸·부산東萊區溫泉2洞991의3세광아파트 107호)을 또다른 유력한 용의자로보아 인상착의를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전국에 검거령을내렸다。

경찰은 李가 학생운동과반정부투쟁을 함께 벌였던사람들을 규합, 이번사건을 저지른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丁淳喆은 부산에연고는 없지만 李와합류했을가능성에대해 수사중이다。

李는 키 1백69㎝에 보통체격으로 얼굴은둥글고 미남형인데 81년4월17일과 6월11일 두차례에걸쳐 B大교내시위기도를 배후조전했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에의해 작성한 범인中여자의 몽타지가 李군의모습에다 가발을 씌운것과 똑같다는것。

한편 경찰은 22일하오 방화사건 직전에 휘발유통 2개를 가진 25세가량의 청년 2명을태워줬다는한시택시운전사 박모씨(38)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활기를띠고있다。

신고에따르면 방화사건 2시간전인 지난18일상오 11시께 부산 中區中武洞3가 부산중구청옆 육교밑에서 25세쯤의 잘생긴 얼굴모양의 청년2명이 택시를세우뒤 20ℓ들이 푸른색기름통2개를 차에싣으려고해 「휘발유같으면 안된다」고 말했더니 「기름이지만 얼마 가지않으니 실어달라」고 경상도말씨로 사정하는 바람에 태워 줬다는 것。

운전사 朴씨는 이들을 태우고 시내쪽 보수동 로터리와 국제시장 로터리를 거쳐 미문화원을 돌아 문화원에서 30여m쯤 떨어진 중앙성담 맞은편 인쇄소앞에 내려줬는데 이들을 태워가는동안 차안에서 심한휘발유 냄새가 풍겼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택시를 탄 중구청옆 1백m거리내에는 주유소가 2곳이나 있는데 경찰은 이중 S주유소 종업원 이모씨(40)로부터 사건 며칠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10ℓ씩 플래스틱통에 휘발유를 팔았다는사실을 밝혀내고 범인들이 이일대의 모의장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사전구입해 둔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를내린 중앙성당앞은 미문화원과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일대에 있는 또다른 은신처에집결, 2시간동안 범행 최종점검을 점검한뒤 범행시간에맞춰 여자범인2명이 휘발유통을 들고나간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방화범들을 목격한 목격자진술과 朴씨가 진술한 인상착의가 일치해 이들이 범인일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방화사건하루전인 17일 하오4시께 부산中區瀛州洞 코모도호텔앞에서 20ℓ들이 플래스틱 기름통을 든 30대남자를 미공보원에서 2백m떨어진 국제시장 입구까지 태워다주었다는 한택시운전사 黃모씨(35)의 신고도받아 탐문수사를펴고있다。

◇유력容疑者 李鎬喆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유력한용의자로 수배중인 李鎬喆。

전국警察署에 專擔班

犯人통과지역 署長 엄중문책

치안본부는 22일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해결을위해 본부에 종합수사지도부(본부장 宋東燮 제3부장)를 설치, 전국적인 수사공조 체제를갖추는한편 시도경에는 수사본부를, 경찰서에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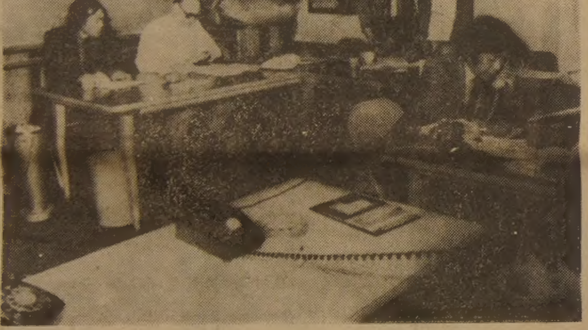
치안본부는 이번 사건수사를 태만이하거나 범인이 검거된후 은신했던장소와 각종교통수단을 이용, 통과한 승하차지점이 밝혀지면 해당경찰서장을 엄중문책키로했다。

이에앞서 安應模 치안본부장은 21일 경찰헬기편으로 釜山에 내려와 현지수사본부를격려하고 전국시도경에 치안본부 경무관이상의 수사독려반을 파견했다。이에따라 서울시경은 수사본부(본부장 趙鍾鎬제2부장)를 강력계에 설치하고 각서에도 수사 대공 정보요원으로 편성된 25명씩의 전담반을구성, 수사토록했다。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12만장을 만들어배부, 시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하는한편 호텔, 여관, 성당, 교회, 기도원등에 방화용의자 몽타지를 붙였다。

한편 방화범검거를위한 경찰의 비상작전이 펼쳐진 21일 전국각지에서는 삼엄한검문검색이 강화됐고 강·절도와 각종사건까지겹쳐 8명이 숨지는등 어수선한 주말분위기였다。

春分이 겹친 이날 전국에는 50여만명의 상춘객이 봄나들이를 했다。



◇正常집무에 들어간 美文化院 방화사건으로 업무가 중단됐던부산미문화원이 22일 상오부터 정상집무에 들어갔다。【釜山=聯合】

AFKN放送中斷 어제 1시간45분간

"기술적문제" 字幕만 내보내

美8軍 공보실

주한미군방송인 AFKN TV가 22일 하오2시부터3시45분까지 1시간45분동안 방송을 중단하는사고를냈다。

AFKN은 「기술적인 문제」때문이라는자막만을내보내고 있다가 하오4시 세서미스트리트 프로그램부터 정상방영을 시작했다。AFKN 측과 미8군 공보실관계관은 기술적인 문제점때문이었다고만 밝힐뿐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있다。

過大景品 강력規制

公正去來委의결 TV放送상품등도 대상

年4회·30萬원이내로 허용

"不況때의 販促은 값引下로"

텔레비전방송의 공개추첨등을 통해 요즘 흔히 제공되는 상품메이커의 현상경품가운데 30만원짜리가넘는 큰냉장고나 컬러TV 피아노같은 高價品은 앞으로 없어지게 됐다。

또 백화점이나 슈퍼마킷에서 고객을 끌기위해 물건을 팔때마다 끼워주는 비닐·백이나 입장권등 경품도 파는 상품값의 대체로 10%이내에서제한을받게되며 특히 아이스크림 3개를사면 손거울을준다든지 그림이나 글자짜맞추기방식의 경품으로 동심이나 사행심을 유인하는악덕상혼은 철저히 규제받게 됐다。

22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품관매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고시, 내달 1일부터 적용 시행토록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메이커나 백화점 슈퍼마킷이 고객을 끌기위해 끼워주는 경품은 거래상품가격이 1천원짜리 미만일때는 1백원(價額까지, 1천원이상 50만원까지는 2만5천원까지를 한도로 거래價額의 10%이내, 50만원이상購入때는 5만원까지를 한도로하되 메이커나 백화점별로연4회, 1회10일이내(메이커는 30일까지) 기간동안만경품판매가 허용된다。

구매자에게 현상 추첨권을 주는 경우는 개별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상품이 최고5만원짜리까지가 한도이며 1천원짜리물건을 산사람에게는 1만원, 10만원미만어치의 물건을 살때는 3만원이 한도이다。

신문광고를 통한 퀴즈추첨이나 TV공개방송을통한 현상추첨경품도 30만원짜리가 당첨자 한사람에게 제공될수있는 최고한도로규제되어 예컨대 이가격을 초과하는 피아노나 16인치이상 컬러TV같은 고가제품은 현상경품으로 내놓을수 없게되었다。

메이커가 도매업자등과 신규거래를 하기위해서나 아니면 대리점에 제품을 얼마만큼 팔아주면 승용차한대를제공하겠다는등의 사업자간 관례 조건부경품제공은 일체금지되 연간 30만원까지의금액한도를 예외로허용, 예컨대 지난1년간 우리회사 제품을 많이 팔아줬으니 술대접이라도 하겠다는등의 경품형태는 허용토록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정부가 경품판매를 규제하게된 이유로 최근 불황에따른 업계의 과당활동이 품질개선이나 가격인하로 나타나는대신 경품경쟁으로 과열, 결과적으로 경품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될우려가 있는데다 미성년자에대한 사행심까지 조장하고 자원을 낭비할 우려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지금까지 거래에 관행화되어있는 정상경품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품규제를 위반할 경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따라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고시된 경품유형별 경품제공 허용한도나 기간, 회수는 별표와같다。

◇景品附판매 規制한도

소비자 경품	현상 경품	公開 현상	사업자 경품
소비자가 상품을살때 값싼다른기념품등을끼워주는것	상품을 살때 현상이걸린 추첨권등을 끼워주는것	신문이나 TV광고를통해 購買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현상을 내거는것	메이커가代理店등에 물건을 많이 팔아달라고제공하는 경품류
한사람에게제공할수있는 경품 최고한도가 ▲1천원짜리 이하는 1백원 ▲1천원~50만원짜리거래상품은 2만5천원을한도로 거래(價額의 10%이하 ▲50만원이상 거래상품은 최고 5만원까지 총액제한은없음	현상당첨자에게 줄수있는 최고액경품한도가 전년도 해당기간 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1천원짜리거래상품은 1만원 ▲1천원~10만원미만은 3만원 ▲10만원이상짜리는 5만원까지 허용	1회에 걸수있는 현상금액은 3백만원이 한도이고 한사람에게 제공될수있는 최고현상당첨價額은30만원이내	신규개업으로거래를 트기위해서나 自社제품을 얼마까지 팔아주면 메이커가 예컨대 승용차 한대를 대리점에 제공하겠다는식의 조건부경품은 원칙적으로금지
메이커나 백화점, 슈퍼마킷만이 규제대상이되며업체별로 횟수는 연간4번, 기간은 메이커 1회30일, 백화점등은 1회 10일이내에서 허용	연간 현상경품횟수는 3회이내, 1회30일이내 기간동안만 허용	즉 앞으로는 TV공개현상등을통한 광고를위해 대형냉장고나 컬러TV 피아노등 30만원짜리이상, 고가경품제공은 안된다。관광여행현상등도 제주도 여행까지는 모르나 해외여행 관광현상까지는 불가능해진다	아이스크림 판매업소에 냉장박스를 제공하는등판매, 보관을위한 시설이나 재본, 개업기념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콜럼비아號 새벽발사(1時)

3차飛行 7일간百15回 旋回, 각종實驗

【케이프카내베랄·휴스턴21日 UPI=聯合】인류사상 최초의 우주왕복선인 콜럼비아호가 예정보다 1시간늦은 22일상오11시(한국시간 23일 상오1시)잭·루즈머, 고든·플러튼 두우주인을 태우고 케네디우주센터의 39A발사대를떠나 역사적인제3차우주왕복여행의장도에오른다。

발사순간을 앞두고 콜럼비아호의 3차여행을 위한 카운트 다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케네디우주센터 당국은 콜럼비아호의 연료전지에 사용할 산소와 수소를 예정보다 앞당겨 20일 8개탱크에 적재, 발사의 순간을 기다렸다。

1·2차우주왕복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콜럼비아호는 23일 발사된다음 지구둘레궤도를 7일동안 1백15회 선회하면서 예정된 각종 실험을 마친뒤 29일하오3시(한국시간 30일새벽5시) 지구로 귀환한다。

콜럼비아호는 이번 3차여행에서도 1·2차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州 에드워즈공군기지에 착륙토록 당초 예정됐었으나 기상관계로 마지막 착륙지점을 변경하게된 뉴멕시코의 화이트샌즈미사일발사장으로 착륙지점이 변경됐으며 이번착륙때는 기지사정상 일반에 공개되지않는다。

케네디우주센터의 놈·칼슨 실험책임자는 콜럼비아호의 발사일인 23일의 날씨가 약간의 구름이낀 상태로서 발사에 최적이라고 밝히고 귀환예정일인 29일의 날씨역시 양호할것이라고 말했다。

콜럼비아호는 지난번 1·2차와 이번 3차여행을 합쳐 모두 4차례의 시험운행을마친뒤 경기적으로 운항될예정이다。

社会漫評

봄이 와도…

"駐韓 美軍·7함대 東北亞안전보장"

와인버거 日紙회견

【東京21日=聯合】韓美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말 서울과 東京을 방문하는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21일 『駐韓미군과 駐日미군및 7함대가 동북아시아안전을보장하는 미국측 결의를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美日양국간의 극동유사시 연구는 한반도유사시 日本이 미국의 지원요청에 어느정도 응할수 있을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日本의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회견에서 日本의 1천해리 해상교통로 방위결의를 지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안보에 유익한가』란 질문에도 『건전한 경제는 모든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말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국내화합이 강화되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수있다』고 지적했다。

때로 그는 이회견에서 특정국가를 지칭하지는않았으나 韓日간의 경제협력교섭과 관련된 韓日안보논쟁에서 한국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地平線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청년이 『하늘 나라에 갈수있겠는가』고 예수에게 물어봤다고 한다。『네가 가진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고 예수는 청년에게 대답했다 한다。『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있다』고 말했던 예수의 칼날같은 가르침이다。비슷한 말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빠기보다 어렵다』는 유명한 가르침도 있다。

▼그러나 성서는 돈자체가 나쁘다고 가르치고있는것은 아니다。돈은 바로 하나님이 내린 삶이라고 생각한데서 오늘날의 놀라운 경제발전이 됐던 것이라고 말한것은 사회학자 막스·베버다。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란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윤리와 직접관련돼있다는게 유명한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내용이다。

▼어쨌든 지금 한국의 일부 교회는 돈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것 같다。예를 들어 지난 2월 한 종교 전문지가 서울시내 10대 교회의 주머니사정을 풀어본 적이 있었다。교회주보를 토대로 계산했다는 이 기사에 따르면 제일 많은 돈이 들어오는 교회의 경우 1주헌금이 1억원정도。이 교회의 한해 예산은 70억이나 된다고한다。

▼10대교회중 2위는 1주헌금이 약 4천만원이라고한다。가장적은데가 4백여만원이라했다。현재 서울시내 교회는 모두 4천4백90여개。이중 웬만한 교회들은 자가용 버스를 사는게 붐이어서 3월초 현재 약 1천5백대의 버스가 굴러고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그러나 놀랄만한 일은 새로 짓는 교회들의 엄청난 규모라고 할수있다。대부분 서울의 강남에 짓고있는 예들이다。

▼지금 한창 그곳에서는 공사비 1백억원짜리교회가 건설되고있다한다。작년 한해동안 완공됐거나 착공된 10층규모의 교단건물등 대형교회가 10여개。공사비 10억원미만이면 중간규모인데 10여군데서 공사중이라고한다。79년말에 완공된 어느 교회도 20억원이상이 들었을 것이라는 짐작이라는것이다。한교회는 2만여평의 임야를샀다는 소문도있는모양이다。

▼교회건물이 매머드처럼 커지는걸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다。그러나 요즘 교회를 판다는 광고가 종교전문지에 많다고 한다。「건평 ×평, 차임벨 네온사인 첨탑등 시설완비」—이런 식의 광고를말한다。심지어 신도수까지 내는 일도 있다한다。교회가 주식회사처럼 된 셈일까? 교회와 가정사이에서 고민한다는25·7%의 가난한 목회자(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조사)앞에서 이들 교회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시리아 이의 팔人彈壓에 安保理召集 요구

【다마스커스·카이로21日AP=聯合】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은 21일 최근 요르단강서안 이스라엘 점령지구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탄압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안보리긴급회의소집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E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佛-西獨서 지방議會선거 右派 압승

"執權사회당 重大시련" 佛
百71議席중 87석확보 西獨

【파리21日AP=聯合】 프랑스의 전국 지방대의원선거에서 우익야당세력은 지난 14일과 21일 이틀간에걸쳐 실시된 지방의회를 대부분석권, 9개월전 집권한 사회당정부에 패배를 안겨주었다. 프랑스의 라디오방송망은 이날 『지난해 프랑스를 휩쓸었던 장미및 파도는 쇠퇴했다』면서 사회당의 패배를 전했다.

프랑스내무성이 이날 발표한 중간개표결과에 따르면 우익및 중도우익정당들은 이번선거에서 총 2천29의석중 1천1백54석을 획득한반면 사회당과 공산당을 주축으로한 좌익세력은 7백81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내무성발표에 따르면 우익보수세력은 전국 95개지방의회중 55개를 석권, 35개지방의회를 석권한 좌익세력을 압도적으로 앞섰으며 5개지역에서는 백중세를 보이고있다. 이같은선거결과는 사회당이 9개월전의 대통령및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을거둬 집권한이래 일반국민들의 사회당에대한 선호여론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반영하는것이다.

【하노버21日AP=聯合】 서독의 제1야당인 基民黨은 21일 서독 제2의주인 리더작센주에서 실시된 금년최초의 주의회선거에서 총의석 1백71석중 87석을 차지함으로써 슈미트수상이 이끄는 집권社民黨을 누르고 완승을 거두었다. 현재 리더작센주의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기민당은 총유권자의 77·9%가 참가한 이날 선거에서 총유효투표수의 50·7%를 획득, 과반수가 넘는 87석을 확보했으며 사민당은 36·5%의 득표율로 선거이전보다 9석이 줄어든 63석만을 차지했다.

◇용감한 젊은이 한 용감한 젊은이가 20일 베른시에서 주위에다 마구 권총을 발사하고있는 한남자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고있다. 이남자는 나중에 경찰에넘겨졌다. 【베른 (스위스) 21日AP電송=聯合】

사우디、日50만배럴減産
OPEC폐막 회원國別로 쿼터量 배정

【빈21日聯合=聯合】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0일 세계원유공급과잉으로 인한 유가하락을 막기위해▲OPEC의 석유생산상한선을 하루 1천8백만배럴로 제한하는 한편 각국의 생산쿼터를 배정하고▲배럴당 34달러의 현유가체제를 고수하되 경질유와 특급경질유가격을 1달러~1.50달러인하하기로 합의한후 2일간의 긴급석유상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세계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역사적인 OPEC의 합의를 강화하기위해 그들의 석유생산량을 추가로 50만배럴감축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우디의 1일 생산량은 7백만배럴、OPEC전체의 석유생산량은 1천7백50만배럴로 줄어들게되었다.

야마니 사우디 석유상은 20일 OPEC석유상회의가 폐막된후 한 기자회견에서 사우디가 오는4월1일을 기해 석유생산을 하루 50만배럴 추가감축할 것이며 또한 배럴당34달러인 현 OPEC기준가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할경우 또다시 생산량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각국의 쿼터량은 공식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사우디가 7백65만배럴▲이라크 1백20만배럴▲이란 1백20만배럴▲쿠웨이트 80만배럴▲아랍·에미리트연방 1백만배럴▲카타르 30만배럴▲알제리 65만배럴▲리비아 75만배럴▲나이지리아 1백30만배럴▲베네수엘라 1백50만배럴▲인도네시아 1백30만배럴▲가봉 15만배럴▲에콰도르 20만배럴인것으로 알려졌다.

日우라까와에 強震
震度7·3 百10여명重輕傷·가옥百여채파손

【東京22日=宋本彬특파원】 삿뽀로시에서 동남쪽 1백㎞떨어진 소도시 우라까와(浦河)일원에 21일 상오11시32분 리히터지진계 진도7·3의 강진이 일어나 1백10명이 중경상을입고 1백10채의 가옥이 파손됐다. 일본에서 진도7·3의 강...

蘇將星등 3명 간첩혐의 체포

【베를린21日聯合=聯合】 장성1명을 포함한 3명의 소련군고위장교가 서베를린주둔 프랑스헌병에 의해 간첩행위 혐의로 체포됐다고 서방소식통들이 21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지난16일 서베를린의 프랑스관할구역에서 장교들은 프랑스군인과 접촉하던중 체포됐다고 말했다.

메아리

설악산 흘림골 동쪽골 깎아지른 벼랑 끝에서 7백여년의 오랜 풍상을 견디며 자라온 무학송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주사의 정2품송과 더불어 국내의 명송으로 쌍벽을 이루는 무학송은 마치 한마리 학이 깃을 펴고 춤을 추듯 고고한 자태가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관광객들의 발길에 시달려서 고사직전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설악산 지구의 수난은 무학송으로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그산 들머리 한계령은 주차장을 짓는다고 산허리를 깎아 상처투성이가 되고 오색약수터는 가게와 민박촌으로 황폐했으며 설악동과 외설악에서도 아름드리 나무들의 남벌과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자연의 훼손으로 천하의 명산 설악산이 멍들고 병들어 가고있다(3월21일자 한국일보 10면보도).

예로부터 산림은 나라의 백년대계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혜택은 연간 3조7천9백억원으로서 이는 국민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림으로 부터 얻는 저수·홍수예방같은 무형의 가치는 유형 가치보다 20배가 넘을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보면 그 혜택은 이루 헤아릴수조차 없겠다.

植樹月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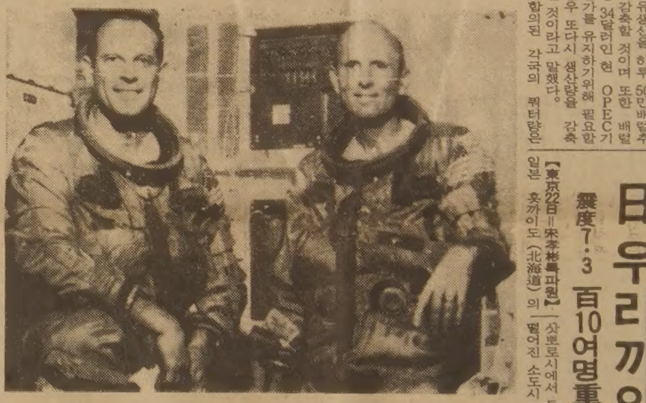
대체로 지금까지는 한해의 조림면적이 19만ha에 이르고 있다한다. 그런데 도벌까지 겹쳐 피해면적은 대충 57만ha에 이르고 있다한다. 심는 정성에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얼마나 아쉬운가를 일깨워준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난해 산림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에는 단위면적의 입목이 60년대에 비겨 배로 늘었다 한다. 그래서 산사태는 절반으로 줄었고 홍수방지에도 한몫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부엽토가 쌓여서 국토의 자생능력이 되살아났다니 반가운 일이다.

최근 10년간 범국민적으로 실시된 나무심기운동으로 우리 산과 들이 푸르름을 되찾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기정화, 한·수해예방 및 목재이용을 위해 심는일과함께 경영, 벌채등에 있어서 다목적효과를 거두도록 21일부터의 이번 식수월간에는 보다 더 실속을 차려가야 할 것같다.

콜럼비아號 五大임무

①폴리스틸렌유액 제조 ②환경오염측정 ③磁場변화 ④중력연구 ⑤나방飛翔실험



◇宇宙비행사 루즈머와 플러톤 美日의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의제3차 우주비행에나설 두우주인 잭·루즈머 (왼쪽) 와 찰즈·플러톤。【케이프 캐나베랄 22日UPI電송=聯合】

横暴도 옛말「빚장이 OPEC」

—특별閣僚회의… 2백만배럴 減産의 속사정

武器化후 앞다퉈「脫油정책」
뒷거래·덤핑등 빚만24억弗

國際焦点

지난 19일 빈에서 열린 OPEC 임시특별각료회의가 ▲배럴당 34달러의 기존유가를 고수하고 ▲하루 2백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키로 결정함으로써 OPEC는 와해일보전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가격카르텔로 불리던 OPEC가 5월로 예정됐던 각료회의를 서둘러 앞당겨 열고 消費國의 공세를 논의치 않을수 없었던 것은 역사의 逆說이 아닐수 없다.

1973년 중동전쟁이 터졌을때 OPEC가 취한 원유금수조치는 2천8백만명의 서방선진국 근로자를 일터에서 내몰았고 低價의 석유에 의존해왔던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었다. 그리고 1979년、이란 혁명의 혼란과 對이라크전쟁의 발발로 원유생산이 줄어 20달러내외의 유가는 4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그나마 돈을 싸들고 사정해도 구하기 힘든 것이 원유였다.

석유가 세계경제에 미친 파국적영향에 스스로 놀라면서 또 그것을 즐겼던 OPEC는 다름아닌 이런횡포로해서 오늘처럼 수세에몰리는 원인을 만들었다. 소비국들은 脫石油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갖게된 대체에너지개발을 서둘렀다. 지난 3년간 석탄생산은 하루 3백만배럴、원자력발전은 하루 1백만배럴의 석유를 대체해 낼수있는 量으로 개발사용이 늘었다. 천연가스와 수력발전의 사용을 또한 크게 늘렸다.

高油價는 세계 모든나라로 하여금 유전개발에 나서게 해 非OPEC國인 멕시코가 세계 4大산유국으로 부상하고 ...

◇OPEC의 生産감축성명 2일간에 걸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회의가 끝난후 사무총장인 마르크·난·엔구에마 (右)가 생산감축을 주요골자로한 성명서를 읽고있다。가운데는 OPEC의장인 마네·사이드·알·오타이바, 오른쪽이 대변인 아메드·자헤리이다。【빈21日AP電송=聯合】

美文化院 방화사건
北傀、범인一黨庇護

美核사고 일으킬뻔 ★2次大戰때의 日軍풍선

精神病학자가 狂態 ★機內승객에 식칼을 내둘러

새姙娠判別藥 개발 ★印서 값싸고安全·正確

6만년전 두개골 ★埃서도 완벽하게발굴

外信안테나

◆西方각국、아프간의날 行事

◆사다트暗殺犯5명死刑확정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 Mar.22 - Apr.3 *

(Chocolate)		
Black-magic	1 lb.	$ 3.75
Black-magic	½ lb.	2.05
Dairy box	1 lb.	3.45
Dairy box	½ lb.	1.89
After eight	390g	2.45
After eight	200g	1.50
Wilson pop		5.49
Life-saver lollipop	12x10¢	7.59
F.B.I. pure apple juice	10oz.	7.99
Cleenex	72x100	33.49
Pocket cleenex	12x12	14.55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Crac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DUFFERIN CALEDONIA LAWRENCE KEELE

성 명 서

①불온문서를 해밀톤 지역에 보내지 말라.(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합리화 하려는 책자)

②해밀톤 지역은 캐나다 교포사회중에서 가장 친목과 융화단결이 잘되어 있다고 다른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교민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읍니다. 불온문서를 해밀톤 지역에 대대적으로 보내므로서 친목과 융화단결을 저해하려는 외부세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③우리해밀톤 교민은 좀더 잘살기위해 성실과 근면을 잃지않고열심히 삶의터전을 닦으면서도 우리고국의 숙원인 통일을 염원하고 인내로써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독재치하의 통일을 결사코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④근간 지상에 보도된 악랄한 음모에 우리해밀톤 교민은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읍니다. 그 주모자나 배후인물을 규탄합니다. 그러나 최홍희 일파의 꾀임에 빠져 일시나마 김일성을 추종하고 동조한것을 크게 뉘우치고 분명한 사과를 한다면 우리 해밀톤 지역 교민은 전과다름없이 따뜻하게 맞아줄것을 아울러 약속합니다.

해밀톤한인회 • 해밀톤실업인협회

海外여행자 外貨所持한도
지역·期間別 差等검토

自由化이후 浪費풍조 늘어
입국 外國人보다 2倍사용

民正黨은 22일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여행자들의 外貨낭비추세가 急增함에따라 이같은 外貨流出에 따른관광 逆調를 시정키위한 多角的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民正, 선물안사오기 汎국민운동도

羅碩昊정책위 의장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후 『지난해7월 해외여행 자유화시책이 취해진이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한 外貨보다 內國人이 해외에나가 사용한 외화가 훨씬많아 심한경우 월5백만달러이상의 逆調현상이 빚어지고있다』고 지적, 『民正黨은 이러한 外貨낭비풍조를 막기위한 종합대책을세우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1人當평균 4백9달러50센트를 사용하는데비해 내국인은 외국에서 그 2배가 훨씬넘는 평균1천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말했다.

民正黨은 이 종합대책과관련,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이 대한항공기(KAL)를 적극 이용토록하는 한편 대한항공이 해외 호텔시설을늘려 해외여행자들의 외화지출을 절약토록하고 여행자들이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선물을사오지않도록 범국민적인 홍보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民正黨은 外貨낭비를 막기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우선 불필요한 여행을 억제하고▲일률적으로 1인당 3천달러씩 갖고나갈수있는 外貨限度額을 여행目的地와 滯留기간등을 고려, 差等化하며▲국내여행사들이 이익이 많이 남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알선에만 집중하지 않도록하기위해 외국관광객 誘致실적에따라 내국인의 외국여행을 알선토록 규제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했다.

羅의장은『그러나 民正黨의 이같은 외화낭비억제의 종합대책은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시책을 근본적으로 규제하려는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자들에게 警覺心을 촉구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코자하는것』이라고 밝혔다.

在外국민 印鑑증명 관할稅務署長 확인
讓渡稅포탈방지

국세청은 해외로 이민을간 사람들이 국내에 남기고 간 부동산을 처분한뒤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이들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할 경우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민을 간 在外국민들은 이민을 갈때 10만달러이상을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이 국내에 부동산을 그대로 놓아둔채 출국했다가 추후에 대리인을 시켜 이를 매각하고 있으나 이같은 매각사실을 뒤늦게 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1월 읍·면·동의 인감증명발급담당자에게 세무서의 업무연락 전화번호를 배부, 在外국민들이 국내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발급을 신청할 경

우 지체없이 전화통보를 해주도록했는데 법적인 구속력의 미비로 실효성이없으므로 발급하기이전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키로 한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시행하기위해 내무부등 관계당국과 이미 협의를 끝마쳤으며 조만간 대통령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韓·아세안基金 내년설립
全經聯 회원사 大企業출연으로

한국경제계의 對아세안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될 韓·아세안협력기금(가칭)이 올해안에 준비작업을끝내고 늦어도 내년초에 설립될 예정이다.

韓·아세안협력기금은 全大統領의 아세안순방이후 추진되고있는 對아세안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위해 全經聯회원중 대기업이 출연, 조사단파견등을 지원하게된다.

全經聯을 주축으로한 순수한 민간출연에의한 이 기금은 앞으로 重鐵회원등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업체들의 기술연수, 정보제공, 조사단파견등의 사업을 주로 담당할것으로 보인다.

이기금은 일본이 이미 아세안등 對外진출지원을 목표로 특수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있는 해외협력사업단(JICA)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될것으로 알려졌다.

全經聯은 기금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기금설치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全經聯은 이와병행해서 韓·아세안기술경영연수센터(가칭)도 설립, 우선 우리나라기업의 진출이 유망시되는 자원협력,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및 플랜트수출분야업계의 실무진 간부급을초청, 시험연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호텔 客室料인상
최고 10%까지
輸入양주는 35~60%내려

전국관광호텔의 객실및 음식(食飮) 요금이 최고 10%까지 인상된다.

교통부는 22일 전국 32개 관광호텔의 객실및 음식 요금을 현행요금의 1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특급호텔기준 객실의경우 싱글은 3만4천3백20원에서 3만7천7백50원까지, 트윈과 더블은 3만9천6백원에서 4만3천5백60원까지 올려받을수 있게됐다.

또 식·음료는 미국식 아침식사가 현행3천원에서 3천3백원으로, 오린지주스가 9백90원에서 1천1백원까지 오른다.

이와함께 교통부는 전국관광호텔에서 판매하고있는 수입양주값을 오는 4월1일부터 35~60%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조치로 관광호텔에서 팔고 있는 양주값(특급호텔기준)은 조니워커 블랙1잔에 현행 3천7백80원에서 2천4백50원으로, 커티샤은 2천2백원에서 1천4백20원으로, 꼬냑은 4천5백원에서 2천8백9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旅券사진은 컬러가 좋다

알뜰 해외여행 ⑤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身元조회 접수는 여권신청과 같이하고
번호만기재한후 제출하면 5~7일걸려
옐로 북 北美·日·유럽제외 소지해야入國

「여권」을 마련하는것이 해외여행의 첫걸음이다. 항공편이든 선박이든간에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을 반드시 가져야하는데 여권은 말하자면 신분증 노릇을 한다. 여권이란 한마디로 외무 장관이 『○○○씨가 당신나라로 여행을가니 신변을 잘보호해주고 여러가지편의도 봐달라』는 소개장과같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떠날때는 주민증등 국내신분증은 모두 놓아두고 여권만 들고나가면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은 정부수립직후인 48년당시 李承晩대통령이 외국으로 부임하는 어느 공관장에게 친필로 써준 여권이었다. 당시에는 일정한 서식이 없어 李대통령은 한지 한장에 그럴듯한 달필로 일필휘지(一筆揮之) 사신같은 여권을 내주었다.

이 외교관은 이처럼 희한한 여권을 갖고 현지공관에 부임했는데 그후 이소식을 들은 수집가가 비싼 값을 치룰테니 팔라고 졸랐다는 일화를 남겼다.

우리나라여권은 61년 여권법이 마련되기전까지지만해도 관리도 허술했고 민간업자가 만드는등 모양도 형편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복수처리로 제작, 위조가 불가능하다.

여권은 외교관·관용및 일반여권으로 분류된다. 또 일반여권은 목적에 따라 상용·거주·유학·취업·문화·연수·방문등으로 세분되는데 일반여행자의 경우 문화·연수·방문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는게 보통.

여권은 복수사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단수와 복수로 구분되며 외교관·관용엔 이런 개념이 없고 일반여권도 가연수·방문만 단수이고 거의 복수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기간은 1~5년.

종전에는 여행국을 여권에 표시했으나 지금은 中共·동구권등 18개국을 제외하고는 어느나라도 여행할수 있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방했다.

현재 여권수속은 많이 간소화 됐지만 처음 수속하는 사람에겐 까다롭고 복잡하기가 여전하다. 여권창구도 옛날에 비하면 친절해졌지만 서비스창구로선 아직 아쉬운감이 있다.

여권신청인가운데 30%가량이 여행사등을통해대리수속을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여행경신에도 어긋나지만 해외에나가서도 게으른 여행자밖에 안된다. 요령을알고 보면 경험도 쌓이니 스스로 수속을 하는것이 좋다. 여권창구에 가기전에 여행경험자의 충고를 받으면 더더욱좋다.

외무부 여권과에 가면 여행목적에따라 안내팜플리트를 얻을수있고, 여기에 여권발급과정과 구비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여권수속은 여행목적에따라 구비서류가 다른데 공통된 과정만 보면 다음과같다.(별표①참조) 즉 신원조회·소양교육·병무청의 출국허가서(18~35세 남자)가 필수적이다.

신원조회는 5일내외 걸리고 소양교육은 신청후 4~5일후에 받을수있다.

安世訓 외무부여권관리관은 이과정에서 여권신청자들이 잘 못알고 시간낭비를 하는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신원조회 회보가 나와야 정식 여권서류 접수가 가능한줄로 알아 여권발급이 10일이상 걸린다는것.

이럴때는 신원조회 접수번호만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재받고 바로 여권과에 접수시키면 여권심사를 다 끝내고있다가 신원조회가 떨어지는대로 여권이 발급되기때문에 5~7일밖에 안걸린다.

신원조회·소양교육신청·여권서류접수는 구비서류만 준비된다면 동시에 할수있다.

여권사진은 컬러가 좋다. 최근 외무부는 국제추세에 발맞추기위해 컬러여권사진을 권장하고 있는데 외국공항의 출입국사열을 받을때도 오히려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발급받은 여권은 본인이사인날에 서명만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여행사에 수속을 맡길 경우 1인당 2만3천7백60원(관광협회협정요금)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럴 필요도없으며 소양교육만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된다.

여권만 갖고 출국할수는 없다. 비자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니냐』고 여권과 비자를 혼동하지만 여권(PASS PORT)은 여행자가 소속한 국가가 발급하는 여행허가증이고, 비자(VISA)는 여행하고자하는 국가에서 입국해도 좋다는 입국허가증으로 생각하면 적절하다.

약간의 제약조건이 따르지만 英·佛·獨·伊등 동구를 제외한 유럽국가는 1개월이상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도 태국·필리핀·홍콩은 7일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우리정부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일본·중동·대만·印尼·캐나다·南美는 비자가 꼭 필요한 국가들. 다만 일본의경우 비행기예약이 되어있는것을 조건으로 72시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나 입국했던 공항을 통해서만 나가야한다.

미국·중동은 비자받기가 까다로운 국가이고 남미는 퇴짜놓는사례가 잦다. 중동은 국가정책이 그렇고 미국과 남미는 한국의 여행자가 국제신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보복이다. 남미는 농업이민의 실패, 미국은 비자만기가 되어도 불법체류를하는 선배여행자(?)들이 많았기때문.

비자는 여권과함께 상대국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춰 상대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대개 24시간내에 비자가나오는데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한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다. 비자는 국내에서 꼭받아두는게 여행의 요령이다. 외국에서 제3국비자를 받는것은 어렵고 또 시간낭비가 엄청나다.

비자를 신청할때, 특히 미국비자를 받을때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잘못되면 본인도 영영 미국구경을 못하는 신세가 되지만 다른여행자들에게도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여권비자와함께 구비할게 옐로북(예방접종증명서). 북미·일본·유럽을 제외한 여행자는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콜레라와 황열병예방주사인데, 외무부 여권과에 설치된 접종소에서 맞을수있다. 필요한 예방접종은 별표②와같다.

비행기표(Ticket)는 떠나기 보름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예약해두는게 좋다. 예약할때 주의할 일은 담당직원 이름과 예약번호를 확인하는것. 좌석을 사려고 할때 오리발을 내미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약한 비행기표는 준비되는대로 구입하고, 출발 2,3일전 재확인해 보는것이 좋다.

남은 일은 돈바꾸는 일(환전). 1개국만 여행할때는 그나라돈으로 바꾸는게 좋지만 여러나라를 여행하려면 달러가 무난하다. 환전가능액은 3천달러로 여권만 소지하면 시중은행 외환창구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돈관리의 안전을 위해 초행자라면 경비의 절반정도는 여행자수표(T/C)로 바꾸는것도 좋다. 할수있으면 동전도 몇달러는 국내서 준비하면 편리하다.

이런 정도면 준비는 다 끝난다. 이제남은 일은 金浦공항으로 나가는 것이다.

【李鎭기자】

◇외무부 여권과에 몰려든 여권신청자들。하루1천6백여명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중80%가 대행시키고있다。

◇일반여권 신청서 주요구비서류

동거및방문	상용	문화	취업및훈련
초청장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시 출국 동거는 배우자여권사본	대표자 인감증명 재직및출장증명서 업자등록사본 소속 업체 국세완납증명 대외거래 증빙서류	초청장 재직증명서 ※발급대상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관계부처추천서 초청장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공통	여권발급 신청서 (사진 2매) 소양교육필증원본제시 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		
신원조회	▲해외여행자카드 1매 ▲신원확인조회 1매 ▲신원진술서 3매 ▲호적등본 1통 ※방문인 경우 초청장 사본 2부		

비자는 一種의 입국증명서…東歐제외한 유럽全域은 없어도 無妨

◇예방접종필요지역

지역	접종종류	지역	접종종류
동남아	콜레라	아프리카	콜레라, 황열
서남아	콜레라	호주, 뉴질랜드	콜레라
남미	콜레라, 황열	홍콩	콜레라(권장)
중동	콜레라		

墨湖港 죽어간다
廢水등 방지시설없어 汚染심각

【東海】강원東海市墨湖항에 폐수방지시설이 미비해 물양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및 고기냉장등이 함내로 흘러들어 바닷물을 더럽히고있다.

東海市관계자에 의하면 墨湖항에서는 연간 오징어가 5천톤~1만톤이 위판되고 연중 노가리가 1만톤~1만5천톤이 어획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어획물이 동쪽과 남쪽물양장 5백여m에서 할복·세척돼 건조장등으로 운반되고있다는것.

이에따라 물양장에는 시설·폐수등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하나 이들 폐수가 항내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東海市는 이같은 해상오염을 막기위해 물양장관리기관인 수협측에서 폐수방지시설을 갖출때까지 위판장내에서 어획물세척을 비롯, 할복등을 금지하도록 경고조치를 내렸다.

설악산「舞鶴松」枯死직전
7백년風霜의 名物…觀光客에 짓밟혀

【束草】雪嶽山의 명물 무학송(舞鶴松)이 죽어가고 있다.

이 舞鶴松은 한마리의 학이 절벽을 향해 춤을 추며 사뿐히 내려앉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자태로 아름다운 雪嶽의 폭풍과 설과 혹한을 견디며 7백년을 의연히 버텨왔으나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로 병들어 시들고 있는것.

權金城동쪽골(해발7백40m) 小土旺城계곡 2백m까지 아찔한 절벽위 암반에 뿌리를 내리고 雪嶽의 자연과 역사를 지켜왔던 이 노송은 난마처럼 뒤얽힌뿌리가 관광객의 발길에 껍질이 벗겨지고 중간의 가지 3개도 없어져 고고하던 기품이 종환을 치르는 고목으로 변해가고있는 것이다.

朝鮮朝의 99간韓屋
관리소홀 붕괴직전

【江陵】朝鮮朝후기(純祖15) 지방토호가 살았던 99간의 전형적인 한국문화재가 파손되고있으나 방치돼 시급한대책이 요구되고있다.

강원 江陵市雲亭洞431 李起在씨(작고) 소유인 船橋莊과 悅話堂(외부손님을 모시던 영빈실) 活來亭(연꽃피는 연못위에 세운 정자)등이 지난67년4월18일 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돼있으나 관리를 소홀히해 붕괴직전에 있으며 悅話堂담장 10m중 3.5m가 무너져내렸으나 보수하지않은채 궁여지책으로 천막으로 막아 놓았다. 【鄭】

한국일보 詩壇

생각이 나마

金圭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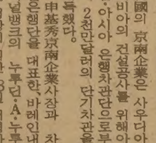
세월은 갔으나
생각이나마 하라고
봄이 오는 것일까
가신 이의 얼굴 떠올리느라고
새싹은 피는 것일까
너무 먼데 있어
올 수 없는 이들
강물 흐르는 소리
들으라고
지나는 바람
이리도 서운한걸까
얼었던 마음
녹여 보라고
햇빛만 저 혼자
눈부신걸까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스산한 바람
가슴에 메어
맴돌거리는 봄이 오고 있다.

京南 2천만弗借款
아랍·아시안銀行서

【대내마(바레인)20日=聯】韓國의 京南企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공사를 위해 아랍·아시아 은행단으로부터 2천만달러의 단기차관을 획득했다.

申基秀京南企業사장과 관은행단을 대표한 바레인내셔널뱅크의 누루딘·A·누루딘 행장이 지난18일 서명한 이차관협정은 차관기간을 1년으로하고 금리는 바레인은행간금리(BIBDR)에 1.5%를 더한것으로 하되 합의에의해 차관기간을 2년연장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다.

▲天一社 에로이카9000시리즈판=天一社는 최근 30미터정도의 거리에서도 오디오전기능을원격조정할수 있는 리모트컨트롤 에로이카 9000시리즈(사진)와 미니 콤포넌트 에로이카 8800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流星의 賦 <339>

李炳注作 李友範畵

風前의 燈火 ⑭

왜병은 부산에 상륙한지 불과 반달만에 한성에 입성한것이다. 그경로를 대강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적은 동래성을 점령한후 삼로(三路)로 나눠 북진했다.

일로는 소서행장이 이끄는 군단으로서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 선산을거쳐 상주에이르러 이일군을 무찔렀다.

또 일로는 가등청정이 이끄는 군단으로서 장기, 기장, 울산, 경주, 영천, 신령, 의흥, 군위, 비안을함락하여 중로(中路)의 군과합류, 조령을넘어 충주로 들어왔다.

충주에서 다시 이군(二軍)으로나눠, 소서행장이 이끄는 군대는 여주로 급행하여 양근을거쳐 용진을 건너 한성의 동쪽으로 나갔다. 한편 가등청정이 이끄는 군대는 죽산·용인으로빠져 한강의 남쪽에 이르렀다.

마지막의 일로 흑전장정이 이끄는 군단은 김해를 거쳐 성주, 지례, 금산, 영동으로 해서 청주를 함락하곤 경기도로 향했다.

『징비록』은 『기치 검극은 천리에 이어지고 포성은 천지에 울렸다. 왜군은 통과하는 지점 마다에 또는 10리, 또는 50, 60리를 사이에 두고 험험(天險)을 이용하여 각기 거점을 만들어 병을 주둔시켜 지키게했다. 밤엔 불을놓아 서로 호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삼로의 왜병들은 무혈점령하다시피 한성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기록에서 본바와 같이 적병은 이웃의 죽산현(竹山縣)을 스쳐 지났을뿐 안성엔 발을 디며놓지 않았다. 줄곧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해오던 계남은 우선 마음이 놓여 반갑게 아버지의 사랑에 들렸다.

촌로들과 함께 무슨 의논인가 하고 있던 자수(自修)는 침통한 얼굴을 들고 계남을 노려보고 있더니

『서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고 물었다.

『임금님께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을 지킬 만전책은 강구되어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네 이놈』

하고 자수는 호통을 쳤다.

『명색이 군적에 있는 놈으로써 그꼴이 뭐냐. 너는 마땅히 상감을 따라 호위의 책임을 다하든지 서울에 남아 수성에 목숨을 바쳐야 할 처지에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 꼴이 뭐냐』

계남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은 무사한 것 같으나 안성에도 불원 적병이 몰려올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이 안성을 지킬 작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엎드렸다.

『그런 각오로 여기까지 돌아왔을 내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안성은 우리들이 지킬 것이다. 군적에 있는 너는 빨리 나가 일선에서 싸워라. 일선에서 싸워 적의 예세를 꺾어놔야만 이곳도 안전하다. 너는 빨리 일선으로 떠나라』

자수의 말은 엄격했다.

이때 모여있는 촌로들이 전세라도 알아보자구나 하고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계남은 선자리에서 집을 쫓겨났을 형편이었다.

BREAD-MAN (Woodchester) Ltd.

2458 Dundas st. W. Miss. Ont.

◎년간매상 : $190,000
◎면 적 : 918 sq. ft.
◎렌 트 : 965불
◎리 스 : 83년 3월31일까지
◎옵 션 : 5년
◎아 스 킹 : $120,000
◎다운페이 : $50,000

※한 가족(4명경우)이 할 경우 년 수입 5만불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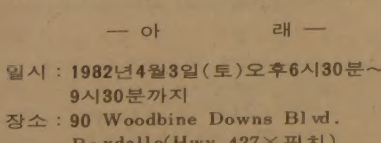
문의처☎ : 675-8930
Mr. 오

선수선발공고

본 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64회(83년도)모국동계체육대회를 대비 아래와 같이 아이스 하키 선수를 선발함

— 아 래 —

일시 : 1982년4월3일(토)오후6시30분~9시30분까지
장소 : 90 Woodbine Downs Blvd. Rexdalle(Hwy 427×핀치)
전화 : 675-7604
선발요령 : 완전하키장비를 지참할것·연령-1967년(포함)이후에 출생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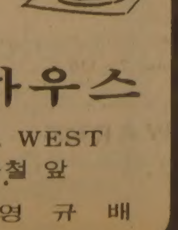
주최 : 재캐나다체육회 아이스하키 협회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취임예배안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요.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될것입니다. (벧전 5 : 3-4)

본 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조남유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하하오니 오셔서 함께 축하와 격려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 4월 4일 오후 2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est) St. Andrew's church
설교 : 홍 순 관 목사님(동부장로교회 시무)
안내전화 : 742-2193(정집사)

1982. 3. 15

— 개별 초청 생략

토론토 대한교회 제직일동
KOREAN CHURCH OF TORONTO
3819 Bloor St. W. Islington M8B 1K7
BLOOR ST. W / ST. ANDREW'S CHURCH / KIPLING / DUNDAS / SIX POINTS PLAZA

豫防주사 맞기가 두렵다

장티푸스接種…집단副作用

富川女工員79명 응급治療

해마다말썽…保管잘못인듯

장티푸스예방접종집단부작용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 보건당국과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20일하오1시께 서울江西區新月2洞629의1 영안모자상사 (사장 白成鶴·43·본사 경기富川市吾丁洞202의1) 제3공장에서 장티푸스예방접종을 받은 종업원 3백50명가운데李承姬양(19·포장1과)등 79명이 부작용을일으켜 서울江西區禾谷洞 강서성모병원 (원장 楊昌中·46)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작용을 일으킨 종업원들은 병원으로 옮겨 해열제를 맞는등 응급치료를 받고귀가했으며 이중 李양등2명은입원치료를 받고 21일 하오4시께야 퇴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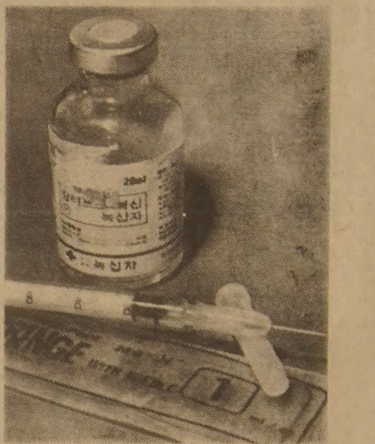
예방접종은 영안모자 측의 요청으로 江西성모병원의 내과과장 宋錫慶씨(36)와 간호원 梁湖順양(27)등 3명이 나와 富川본사의 1공장(1백20명) 新月洞 제3공장(3백50명) 禾谷洞314의67 제4공장(5백명) 순으로 실시했는데 제4공장에서 1백80명째 접종하다 제3공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접종을중단하고 남은 백신과 환자들의 가검물을 수거, 국립보건원에 분석해줄것을 의뢰했다。

이 백신은 지난80년8월20일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조한것으로 오는 4월14일까지가 유효시한이다。

한편 보건소측은 이백신으로 지난18일 江西區공항중학교 학생과 금옥여고생 登村洞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종업원들에게도 접종을 실시했으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江西경찰서는 이번사고가▲보관잘못으로 백신이 변질돼 일어났을 가능성▲의사와간호원의 접종실수▲피접종자의 특이체질로인해 일어났을 경우등 3가지가능성에 대해 조사키로했다。

◇되살아난 惡夢 장티푸스예방접종 쇼크로 산소호흡등 응급처치를받은 徐양이 발갛게 간신히 기운을차려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고있다。徐양의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있다。



◇집단부작용을 일으킨 장티푸스예방접종약과 1회용주사기。

해설

不注意가 禍불러

백신 冷藏庫보관땐 停電 신경써야 학교·工場등 集團접종 對策바람직

지난해6월 경기安養市와 강원三陟郡 長省邑에서 발생한 장티푸스 예방접종 집단부작용(1명사망·4백여명발병) 사고의 쓰디쓴 기억이 되살아나는 접종사고다。장티푸스는 제1종 법정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발생수는해마다 격감, 60년대 후반까지 1년에 3천~5천명 가량발생했으나 79년 2백15명, 80년 2백1명으로 줄어들었다。또 집단발병하는 경우도 줄어들었고 치사율은 거의0에 가깝다。그러나 발병자수가 이처럼 해마다 줄어가는 현재에 장티푸스 접종을중단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계속된방역노력을 무위로 돌리는결과가 될수도 있을 것이어서 예방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계속은 적어도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부작용이 없는 예방주사란 있을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이 가벼운 두통이나 오한등 상식적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고열、수족마비등 입원을 해야할 집단증세로 나타나곤 한다는 점에서 백신관리、접종과정 사후관리의 문제가 제기된다。장티푸스 백신은 국립보건원 냉장창고(섭시2~8도)에서 보관되었다가 각 시·도에 배정된다。

시·도 보건소는 냉장창고가없는 경우 일반전기냉장고에 이백신을 보관하게 되는데 냉장고의 고장이나 또는 정전등 의외의 한참은 사고가 백신의 변질을 초래할 위험이 한상따른다。그러나 부작용사고는 대체로 백신자체의 변질때문이 아니라 접종과정 또는 사후관리의 부주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접종과정에서는 우선 접종부적격자를 정확히 가려내야한다。예방접종수칙에는 접종을 해서는 안될 경우가 명기되어있으나 본인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식별해 내기란 곤란한일이다。따라서 접종을 실시하기이전에 의사와 상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한다。

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바늘과 백신의 정량미준수가 부작용의 원인이 될수있다。보사부는 금년에 1회용 주사바늘 8백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나 아직 일선 시·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장티푸스예방주사는 성년1명에 0·4밀리ℓ를 주입하게 되어있다。접종요원은 주사약을 빨아낼때마다 주사기의 눈금을 들여다보면서 일일히 정량을 확인해야하는데、이때과다량이주입되었다면부작용을 일으킬 원인이될수있다는것。주사기에 자동적으로 정량의 백신만이 빨히도록 자동스톱장치를 만드는것도 부작용 예방의방법이될 것이다。

또 집단접종을실시한 학교나 산업체에서는 무리한운동이나 작업을피하고、학생、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의 휴식을 제공해야할것이라고 의료인들은 지적하고있다。【金燕기자】

"豫防접종은 계속"

서울市 未使用백신收去감정의뢰

서울市는 22일 말썽이난 장티푸스 백신중 사용하지않은 20cc들이 14병을 수거、국립보건연구원에 감정의뢰 하는한편 이백신과 제조번호(58083)가 동일한 백신의 사용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예정대로 계속하고있다。

서울시는 올해 장티푸스 99만5천명등 모두 7종에 2백15만1천명의 예방접종을 할 계획인데 이날현재 20% 19만9천명을 접종했다。

美軍헬機 추락 3명 숨져

팀스피리트訓鍊

「팀스피리트82」훈련에 참가중인 美해병3명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美軍대변인이 22일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오끼나와(沖繩)기지에서온 이들 美해병은 지난20일 CH46시·나이트 헬리콥터를 타고 浦項에서 醴泉으로 가던중 산악지대에서 추락했으며 21일정오께 수색대에의해 헬기잔해와 희생자들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最古의 갑옷"

慶州야산서 발굴

土器 50여점도함께

【慶州】경북慶州市九政洞 불국사부근 야산에있는 신라最古(3세기후반)고분에서 斷甲(갑옷) 2벌을 비롯한 原三國시대및 고신라 토기12점 철제무기류(창、검、활촉) 50여점등이 발굴됐다。

22일 국립慶州박물관(관장 韓炳三)에 따르면 이고신라고분에서 처음발견된 갑옷은 길이42㎝ 너비40㎝의 형태가 완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것 중에서는 가장오래된것이며 학계에서는 가야지방에서만 출토되는것으로 알려져왔다。

이고분은 같은봉분안에 길이8m 폭2m와 길이 6m 너비1·5m의 고분 2기가 동서로 나란히 자리잡고있는데 큰고분에서는 갑옷과 토기철제무기류가、작은 고분에서는 철제무기류가 각각 발굴됐다。【聯】

가짜 휘발유 5억臺 密賣

【大邱】大邱시경은 22일 싯가 5억원상당의 가짜휘발유를 대량으로 제조、팔아온 휘발유 밀조단을 적발、大邱市西區 內唐洞135 三友실업주식회사회장겸 밀조총책 尹正吉씨(42) 제조책사장 李鍾俊씨(37) 상무 林銘澤씨(35) 공장장 朴原奭씨(45) 운반책 金상호씨(34) 등 5명을 사기、소방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尹씨등 6명은 지난해10월1일 대지2백50평에 1천2백ℓ들이 비밀지하 저장탱크3개를 불법으로 매설、밀조공장을 차린뒤 시중에서 화공약품인 톨루엔·솔벤트등을 구입、휘발유 반드럼에 화공약품을섞어 1드럼을만드는 수법으로 가짜휘발유를 대량으로 제조、전국22개 대리점을통해 1드럼당 9만5천원씩받고 지금까지 6개월동안 모두5천2백드럼(싯가4억9천6백만원상당)을 판매해왔다는 것이다。【聯】

販路막힌 汚染통조림 3백만箱子

美업자、對韓수출商談

W·P紙보도…致命的해독…菌이 깡통뚫어

【워싱턴21日=曺淳煥특파원】인체에 치명적인 해독을 가할 가능성이있어 판매가 보류된 美알래스카산 연어통조림 3백만상자가 한국에 수출될것 같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보도했다。

알래스카州출신 상원의원 마이크·콜레타(共)씨는18일 『벨기에등 유럽에서 식중독을일으켜 문제가된 연어통조림수출과관련, 한국실업인들과 상담을 가졌다』고 밝혔으며 알래스카 해산물마키팅연구소 에리크·에콜름 이사장은 『한국에대한 연어통조림판매는 좋은 아이디어다』고 말했다고이신문은밝혔다。

美식품의약국「FDA」는 지난2월초 벨기에인 1명이 7·75온스짜리 알래스카산 연어통조림을먹고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문제가된 연어통조림 1억5천만달러 상당을회수하도록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사건으로 연어통조림의 유럽판로가 막히자 한국판매를 추진했다고 전하고 콜레타의원이 『한국소비자들은 신선한 연어나 냉동한 연어에 익숙하지만 통조림연어에는 생소하기때문에 이것이 새시장개척에 좋은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콜레타의원은 『유럽사람들은 이 연어통조림의 오염가능성에 신경질적인 반응을보이고있으나 제3세계의 국가들은 별로 놀라지않고있다』고 말한것으로 이신문은 보도했다。

콜레타상원의원은 또 한국정부에대해 연어통조림을 사가도록 설득할것을 제이·해먼드 알래스카지사에게 요청했다고 이신문은 밝혔다。

알래스카의 연어어업 규모는 연간 약3억달러에 달하며 이통조림은 지난해 알래스카산 어획고의 65%에 해당한다。

알래스카 연어통조림업계는 벨기에인이 연어통조림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소비자들에게 7·75온스짜리 연어통조림에 유의, 구멍이 뚫린것은 즉각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이통조림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보툴리나이어스균은 깡통을뚫고 음식물에 침투,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한다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商談만있었을뿐 駐美대사관밝혀

【워싱턴22日=曺淳煥특파원】주미대사관의 宋相哲 수산관은 21일 알래스카산 연어통조림의 對韓수출은 상담만 있었을뿐 현품이 한국에 아직 수입된일은 없다고 밝혔다。

宋수산관은 또 高麗遠洋사장 李學洙씨가 현재 알래스카에 머물고있음을 확인하면서 李씨가 그관계로 현지업계와 접촉하고있는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초여름 날씨

大邱섭씨21·6度

【大邱】대구지방은 22일 최고기온이 예년보다 7·8도가 높은 섭씨21·6도로봄속의초여름날씨를보였다。

봄이 성큼 다가선 이날 大邱시내에는 외투 입은사람을 찾아볼수없는 반면 성급한 반소매차림의여인들도눈에띄었다。한편농촌지방은보온못자리를 설치하고보리논에 김을매는 농민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졌으며 星州·高靈등 고등소채집산지에는 참외모종등을 비닐하우스에서 본답으로 옮겨심느라 농민들이 비지땀을 흘렸다。

대구지방 측후소는 앞으로 이같은 따뜻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것이라고 예보했다。【聯】

雪嶽山 景觀훼손團束

山林廳 寒溪嶺휴게소工事 감독철저

산림청은 22일 국립공원雪嶽山자연경관훼손사건(본보21일자11면)과 관련, 진상을 조사해서 寒溪嶺휴게소건축공사에서 허가사항이외에 주변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등산객들의 오물투척행위등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이 휴게소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는 6월30일까지 준공토록 돼있다고 밝히고 공사중 주변의 산림이나 경관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20代容疑男女 서울서보았다"

부산放火사건 提報

21일하오 9시께 서울麻浦경찰서에 부산 미국문화원방화범으로 보이는 20대남녀가 시내버스를 타고가는것을 보았다는 시민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대가량의 시민이 전화로 제보한 내용은 서울麻浦區孔德洞로터리에서 3번시내버스를타고 시내쪽으로 갔는데 함께탄 20대 남녀가 『경찰경비가 삼엄해 큰일났다』『빨리 서울을 빠져나가야 할텐데』라고 귓속말을 나누는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牧師가 信徒끌고 露天예배

서울忠正교회 서로正統주장…正門엔 철조망

21일낮 서울西大門區 忠正路3街3의44 충정교회앞 골목에서 이교회 黃聖秀목사(66)가 9백여명의 신도를 이끌고 노천예배를 가져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날 노천예배는 지난77년 2월 당시 이교회 주임목사였던 金永春씨(45)가 金知洋장로(46)등 일부 장로들에 의해 교회재산부당처분, 공금횡령등의 혐의로 예수교장로회 한국노회와 총회에 제소되어 해임징계처분이 내려진데서 비롯된것。

그후 한동화는 이교회에 元燁목사(46)를 파견하면서 한교회에 2명의 주임목사가 생겼는데 韓목사측이 법원에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을 지난 3월18일받아내 黃목사가 쫓겨나게되자 이날 노천예배를 보게되었다는것이다。

이날 忠正교회정문에는 철조망이 쳐졌고 『이교회 韓元燁목사를 교회의 당회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원결정문과 『韓목사파의신도들만 이 교회에출입할수있다』는韓목사의공고문이붙어있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老母의 그림자

老人교실서 孝女賞 愼換順여사

현대판沈淸…未婚55歲의 한길

최근 대한적십자사부설 노인교실 제8회수료식은 예정에 없던 「효녀상」을 특별히 신설, 시상했다。수상자는 올해 55세의 愼換順여사(사진·서울江南區盤浦洞 주공아파트21동104호)。

愼여사의 수상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이날 수료식을 갖는 노인교실의 학생도 아니었고 졸업생도 아니었다。그저 늙으신대로 노인교실에 가는 노모를 모시고 다니는한 사람의 평범한 딸이었을 뿐이다。

본인은 이뜻밖의 수상에 『노모를 모시고 다니는일은 누구나할수있는 일인데 과분하다』고 겸손해했지만 상을 준비한 대한적십자사의 시각은 달랐다。요즘세상에 자기의 일을 희생시키며 공부하는 노모를 헌신적으로 모시는 자식이 어디쉽냐는 것이었고 「뒷조사」끝에 진짜박이 효녀임을 알아내 시상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던것。

愼여사는 지난27년 경기坡州郡交河面에서 居昌愼씨의 19대종가 무남독녀로 출생,서울에서 同德女高를거쳐 50년 淑明女大가사과를 졸업한 신여성。그해 6·25가 터져아버지는 지주란 죄목으로 온갖고초를 겪다 폐인이되고 이때부터 愼씨의 정성어린 부모뒷바라지가 시작된다。54년 아버지가 돌아가자홀로된 어머니곁을 떠날수없어 눈앞의 혼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다。愼여사의 반생은 그대로 어머니의 반생이었다。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함께 병원에서 살았고 울적해하면 동네 노인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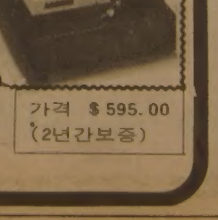
그는 이미 자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분신이었다。지난3월 어머니가 적십자사 노인교실에 입교한후 처음으로 모녀는 다른생활을 가질수 있었다。그래도 딸은 마음을 놓지 못해 강의가 끝날때면 문밖에서서 기다렸다。그모습은 노인학교의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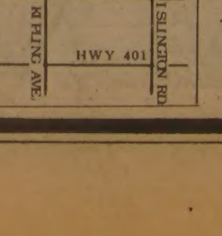
이날 어머니의 수료식은 엉뚱하게 「효녀상」시상순서에서 피크였다。그녀는 뜻밖의 상패를 받아들고 크게 울리는 박수를 감당못해얼굴을붉혔고 노모 南宮壽鉉할머니(83)는 주름진 얼굴위의 눈물을 닦을생각을 잊었다。

『편모슬하에 어렵게 성장、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출가도 마다하면서 고독한 노모의 건강과 장수를위해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인가。【方政俊기자】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희소식♥
美의센타 탄생
* 최신식 장비구입
* 여드름 치료
* 잔주름 제거
* 노화방지
*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 매니큐—패티큐
*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 바른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2년간 보증.

☎ :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시계및귀금속 수리
M &J WATCH JEWELLERY REPAIR
안녕하십니까?
각종 팔목시계와 귀금속(금줄, 팔지, 반지) 일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 정확히 수리해 드립니다.
마 능 욱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과 ALBION)


TEL :
742—1205(B)
745—1632(R)

「驕慢의 돌집」이「역사의教場」으로

大博物館구상의 뜻과 그方向

○○○○○○○

해방이래 중앙청으로 쓰이고 있는 교만스러운 돌집-침략일본의 우리겨레에 대한 악독스러운지배와 착취의 야욕의 상징이었던「조선총독부」의 그 건물을 우리 민족문화의 전당으로 면목을 바꾸도록 우리정부가 결단을 내린것은 독립국가의 원대한 장래를약속하는 역사적 기치를 드높이는 일이 되고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는 현재의 경복궁 뒤뜰의 치레거리같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세종대로를 정면으로 내다보는 큼직한 석조건물로 옮겨서 우리 수도 서울의 주인다운 자리를 차지하게한다는 그 외관상의 무게나 풍채같은것에 그뜻이 그치는것이 아니고 우리겨레 5천년의 역사와 그억세고 끈질긴 생활속에서 쌓아올린 극히 개성적인 문화의 업적을 골고루 실물로써 증명 할수있는 종합대박물관이 된다는데 그뜻이 각별한 것이다. 말이나 글로써뿐이아닌 실험적인 자료에의한 역사와 문화·예술에 관한 산교육은 곧 그국민, 그겨레의 신념이요 의지의 표현을 기약케될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지난날 5천년역사의 기원과 문화의 참조를말하는 우리는 장래할 5천년의 포부와 경륜을 가슴속깊이 새겨볼수있는것이다.

○○○○○○○

특별기고

<언론인·박물관회장>

홍종인

「創造 5천년」과시기회

인접지역과 交流·貸與展등 바람직

국민에 文化的 自信感을

미술·학예분야도 大學기능 갖도록

◇ ◇

오늘 이때야 말로 우리는「우리」라는 겨레공동운명체의 태고이래의 연원과 그발전경로를 다시금 정성스럽게 더듬어 나감으로써 우리겨레의 자별한 개성과 슬기의 줄기찬 노력과 그업적을 밝혀야 할 때이다.

우리들 사이에는 소위 식자층에서도 흔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대륙의 영향을 많이 그대로 받아 들였다거니 또는 다른큰 힘(침략자)의 지배하에 살아온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었던 듯이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중국대륙 문화의 영향을 받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단순한 모방이거나 추종에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새것, 좋은 것을 받아들이되 언제나 제것으로 소화하여 창조적으로 내것을 지어 내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왔던 것이다.

대륙으로부터 또 외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쓰라린 침략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을 물리치고 나자신을 지켜 나가며 침략받은 쓰라린 경험을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교훈으로 삼으며 한결같이 내 역사, 내문화를 겨레의 정신적유산으로 이어 나가는데 힘써온 자취를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하기는 침략자 일본의 지배밑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창조적 큰 줄거리는 너무도 짓밟혀 있었고, 너무도 왜곡되어 있었기때문에 우리자신들이 자칫하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너무도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크게 자신(自信)을 회복함으로써 독립국가의 자주적 국민으로서 면목을 새롭게 하여야 할것이다. 가까운데서부터 예를찾아 올라간다면 중국에서 받아들인 유학(儒學)은 이조시대에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논쟁이 심하였다고 하지만 퇴계(退溪)니 율곡(栗谷) 같은 분에의하여 한국유학을 세워 나갔고 그뒤에 이론에서 보다도 실제적인 생활경제를 위한 실학파(實學派)가크게 소리치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한국의「르네상스」운동 같은 느낌조차 가지게했다.「그럴때에 우리학자중에는 독자적으로 지동설(地動說)을 제창키도 했다。한국적 르네상스의 기원을 찾자면 세종대왕때의 한글의 창정은 그으뜸한 성업(聖業)의 바탕이 오늘의 어느나라 글 보다도가장 과학적임을 유럽의 학자들이 입을모아 찬사를 보내고있는점을 들어 말해야 할것이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정에 힘을 쓰셨을뿐 아니고 많은 서적의 언해(諺解)를 저술케하여 한글의 보편화와 아울러 우리한글문화의 고전으로서 기초를 잡아 놓으셨던것이다. 그뿐 아니고 천문, 기상에도 깊은 관심을 베풀어 과학문명의 계발에 힘쓰셨던것이다.

불교도 거의천육백년전 고구려때에 중국에서 들어왔다지만 신라시대에는 원효(元曉) 의상(義湘) 등의 훌륭한 분들에 의하여 신라불교의 면목을 따로 세웠고 그밖에도 원측(円測) 등의 고승은 중국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것이다.

고려라고 하면 고려「청자」이조라고 하면 이조「백자」라고 하는 도자기 그릇 제작의 탁월한 기술의 개발을 말하게 되는데 그 역시 중국에서 받아들인 기술임에 틀림없다하겠으나 중국 기술에만 만족치않고 상감법(象嵌法)이나 유약의 비색(秘色)은 송·원(宋·元)의 중국 제품이 모방할 여지없는 독자적인 것이고 그 형태에 나타나는 섬세한 맛 역시 우리겨레의 높은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또고려시대에는 원(元)나라의 그흉악스러운 침략을 받으면서도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판각해내는 세계불교계에 들도없는업적을 남겼던 것이며, 또 구텐베르크에 앞서기 2백년, 지금으로부터 7백50여년전에 금속활자(金屬活字)를 발명하여 세계인쇄기술사의 첫페이지를 장식할수있었던 것이다. 이런것들은 우리겨레가 인류문명사에 공헌한 탁월한 업적중의 몇가지가 될것이다.

◇ ◇

작년 여름까지 2년반을두고미국의 8개도시를 순회전시한「한국미술 5천년전」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전시회는 미국에만 그치는것이 아니고 유럽의 많은 학자, 지식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20여년전에도 미국과 유럽에 한국미술의 순회전시를 한바 있었지만 이번 전시에서 주목을 끌고 의문을 일으켰던 일중의 하나는「5천년」은 무엇이냐 하는 점이었다. 이것은 서울 광나루 건너편 암사동(岩寺洞)의 선사시대 거주지에서 발굴된 밑이 뾰족한 토기(土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기는 부산의 동삼동(東三洞)에서도 발굴되었고 북한의 황해도, 평안남북도, 특히 압록강안, 함경북도에서도 발굴되는 것인데 굴된 거주지의 유물을 방사성탄소(放射性炭素)연대 측정법에 의하여 확실히 5천년전의 연대가 나타난 물건인 것이다.

여기에는「무늬」가 들어있어서 빗살문(櫛目紋)토기, 또는독일어로「캄 케라믹」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무늬가 없는것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기는 시베리아로부터 북유럽까지 연결되는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인류의 문화기원을 말하는데 극히 중요한 고고학(考古學)상의 자료이다. 또 그모양의 변천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한 초창기의 예술품으로도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적어도 5천년이전부터 이땅에서, 또는 그이전 삼국시대에 가장 높은 문화를 가졌던 고구려와 그이전 고구려가 갈려나온 북만주 송화강(松花江)상류의 부여(扶餘) 또는 고리국(槀離國)과도 연결되는같은 종족의 같은 문화계통의 흐름속의 유물임을 말하는것이 될것이다.

이러한 유물에서 뿐 아니고 한종족이 공동운명체를 이룩해 나가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말(言語)을 두고 보아도 우리의 말은 중국말과는 판이한 개성적인 조직을 가졌고 우리와 유사한 점을 찾자면 저 서쪽 우랄산 넘어로「알타이」계통에 비교를 찾게된다。이점은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나 그무늬가 저쪽 북유럽과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는 점과도 어떤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고 그옛날의 토속종교라는것을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찾아보면 고구려나 부여에서는 하늘을 뜻하는 북극성(北極星) 중심의 성좌를 대표하는 칠성(七星), 땅을 뜻하는 산신(山神)、자기조상을 뜻하는 사직의 독성(獨聖) 등 세신(三神)을 모셨다고 했다。불교가 들어온후 우리의 종래의 삼신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에서 한자리 높은 곳에 모셨다。

이는 종래의 국신과 불교의 원만한 타협점을 말하는 증거이리라。또 고래로 우리의 노래와 춤은 많은 변천이 있었을것이나 그 어느것이나 북방계의 활달하고도 섬세한 정서의 표현은 독자적인 개성을 오래 누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런 경위에서 우리 한국미술 5천년전을 보면서 미국의 시민들이 놀라는것은 삼국시대의 금동부처며 신라의 금관 귀고리、또 석상조각의 활달한 모습이 희랍이나 이집트、로마조각에 뒤질것없이 섬세하고 우아하다는 점과 아울러 그시대의 그사람들의 후손이 다름아닌 오늘의 한국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대개 역사의 변천에는 왕조(王朝)가 바뀌었을뿐 아니라, 한종족의 멸망과 동시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들을 생각할 때 우리겨레의 역사에서 비록 왕조는 바뀌었다 해도 역사와 문화의 원줄거리만은 같은겨레에의하여 끊임없이 맥락을 이어내려왔던것이다。이것이 곧 5천년역사와 문화유물의 전시가 첫머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같은 맥락、같은 분위기속에 펼쳐질수 있었던 것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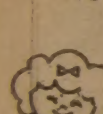
이제 대박물관을 구상하기까지에는 우리겨레의 문화업적과 그 흐름이 이웃의 중국대륙의 그것과 파도 성격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위치에서 동북아시아의 특이한존재가 될 것이라는 점에 각별히유의케 될 것이다。

대박물관을 이룩하는데는 우리와의 인접지역의 고대문화 유물도 많이 비교할수 있을 많은 유물의 장기 교류대여(貸與)의 방법도생각할수 있을것이다。또 박물관경영에는 국민학교로 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또 많은 성인들을포함한 국민 교육장의 큰구실을 하여야 할것이다. 박물관 자체가 여러분야의 학예연구실외에 역사, 고고, 미술, 그밖의 학예, 기술 등의 교실을 가질정도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할때 대박물관은 국민교장일뿐 아니라 그자체가 전문적 연구를 위주하는 어떤 대학교의 독자적 규모와 내용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대박물관의국가적, 역사적면목을 다할수있을것이다。

◇우리민족은 수천년전부터 빗살문(櫛文)도기(사진)와 같은 훌륭한「문화」를 지니고 있었다。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청이전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욱 빛을 보게됐다。

白仁鐵、17연속 KO勝 기록

프로복싱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P) 주니어미들급 챔피언 白仁鐵은 21일 釜山 구덕체육관에서 벌어진 논타이틀전에서 日本의 미야다·젠지에게 9회 1분46초만에 KO승、프로전향후 17연속 KO승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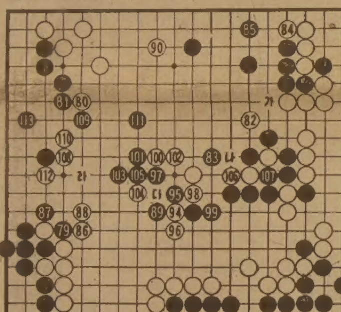

533－2361

구독신청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6譜 79～113 (각5시간 / 덤5집반)

白(4段) 姜 勳 <3勝0敗>
黑(7段) 河 燦 錫 <2勝1敗>



실리면에서 白이다소 앞지른듯한국면을 통해 河7단은 黑79로 白한점을 잡기로했다. 白이먼저 87자리를 벌어나오는것에 비하면 그차는 굉장한것. 그런데 실상 79는 어디보다도「가」자리를 틀어막아야 중앙에 세력이 형성되어 기대를 크게 걸만했다. 과연 姜4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白80을 선수한후 82, 河7단은 그제야 黑83을 마지못하여 적어놓는다. 이수를 안두면 白「나」가 준엄하다. 여기서 주도권을잡은 白은 86, 88로 기분좋게 뻗는다. 이리하여 국면은 소강상태. 그러나 이뒤 바로 천만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黑89와 白90, 黑91은 다음 급을 요하는 큰곳이라서 그렇다 하고 이때 갑자기 白94로 끼운수가 대담무쌍.

非常부른 黑113

역시 혈기방장한 姜4단이 승부수를 먼저 던진것이다。黑97이 알궂었다。이수로 98쪽을 겨셔 아래쪽 白집이 방대해진다。이어 두면 무사하지만 白「다」로 끊어 버리면 河7단이 白의 도전을 업셔 받아들인 것도 무리는아니다。자、불꽃튀기는 혈전은 벌어지고 말았다。그리고 우선 白100이하 106을 선수하고 108 이른바 聲東擊西의 수법이다。黑도 109～111로써 유리한 고지를 보낸다음 힘을 다하여 맹공 또 맹공。그런데 白112때 黑113이 문제였다。다음 黑「라」의 차단수를 보며 좌상쪽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서 관군은 점입가경。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지만 실상 이한판의 바둑을 좌우하는 악수이었다。그 이유는 다음 黑에서。【一凡】

나의 이력서 김소동 ⑮

(題字 金蘇東)

새로운 지식을 마구 흡수하고 마구 소화해서 내것을 만들려하던 청열의 시대라고나할까. 그 다양했던 포부와 열정은 날이 갈수록 풍부해지고 또 폭이 넓어졌다. 문학서적들을 남독하고 서투른 글을 써서 학교문예지에도 실었고, 서울에 있는 李箱에게도 보냈다.「詩와 詩論」을 탐독하고 신흥 찬란서문학에도 매혹을 울렸다.

李箱의 앞뒤 문맥이 닿지않는 슈르리얼리즘詩가 가끔 동경으로날아왔다. 우리정부가 부산피난당시에 전기국장을 지낸바 있는 李康日동창은 당시 와세다大學商科에서 공부하던 동경유학생중에서도 가장 다정한 친구다.

넥, 넴 와세다거리 오오꾸마강당의 종이 울려퍼지는 저녁거리를 우리들은 밤이 늦도록 방황했다. 지나간 옛날 청춘을 설계하던 푸른꿈들이 자욱하게 담긴 거리들이다.

몇해전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 들렀다. 옛친구들의 얼굴과

女流文人 하야시夫婦

옛거리가 그리워서 정든 여기저기를 찾아가 보았으나 아름다왔던 추억은 간곳없고 경제성장을 뽐내는듯한 차가운빛만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거리도 번화했고 집들도 달라졌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그리운 옛얼굴과 목소리가 나를 반겨주는듯한 환상만을 안고 돌아섰다.

1930년대 초반은 일본의 경제상황도 좋았고 상당한 호경기가 몇해동안 계속되었다. 아침식사 10전, 점심이 15전, 저녁이 15전, 도합 40전만있으면 하루를 지낼수가 있었다. 담배값도 박트한갑이 7전, 체리가 10전, 호프가 15전이지만 학생은 박트한갑이면 충분했다. 잘곳만 있으면 하루 50전으로 충분하게 살아나갈수 있던 시대다.

上落合에서 이다바시(飯田橋)까지의 승선전철를타는패스가 한달에 2원정도로 살수 있었고, 京條館하숙비가 아침저녁 두끼를 먹고 17원정도니까, 가난한 유학생은 월30원으로 충분했다. 호화롭게쓰는 학생은 매월1백원이상도모자란다고들하나 뱁새가황새를따라갈수는없었다.

하숙창문을 열면 西武線전철에 뛰어가는 시내가있고 그 언덕위에 허름한 집한채가 있었다. 라일락 한그루서서 보라빛꽃이 향기롭고 5월이면 장미꽃도핀다. 내이층방에서 내려다보이는 이집에는 당시「放浪記」를 쓴 女流文人 하야시·후미꼬(林芙美子)부부가 살고있었다. 내하숙아래층에는 하야시여사의 동창친구인 文人 아사노·하나꼬(淺野花子)양이 살고있었다. 나는 이들과의 친교를 오랫동안 지속했다. 예술을 좋아하는 그들이고보면 나와는 어딘가 통하는 근사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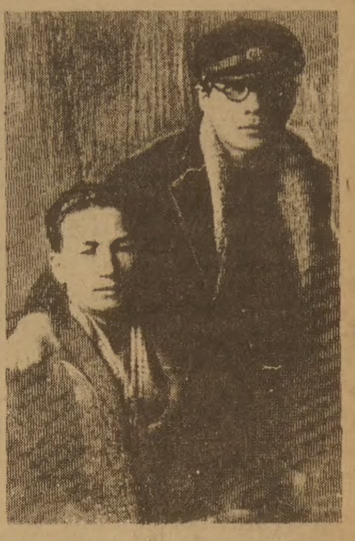
하야시여사는 히로시마(廣島縣)의 오노미찌(尾道) 태생이다. 동경에 와서 女流文人으로 이름이 나기까지는 가난하고 괴로운 방랑생활을 해온 불행한 女性이다. 이무렵 그가 쓴 단편「삼마」(秋刀)는 그의 삶을 여실히 말해준다. 기름진 꽁치가 먹고싶어서 여름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꽁치몇마리를 사가지고 왔다. 화가인 남편과 같이 저녁상을 차리고 자부엌에서 연기를 피우면서 그것을 맛있게 구웠다. 식탁위에 갖다놓고나서 부엌을 대강 챙기고 손을씻고 들어갔더니 접시위에는 꽁치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라는 것이다.

하야시여사는 생활의 괴로운 단면과 인생이 겪는 고뇌를 현실적인 감각과 리얼한 필치로 묘사하는 문인이다. 때로 과일을 사들고 아사노양과같이 그집을 찾아가 문학과 회화와 영화를 논하곤했다.

이들과 上落合에서 살면서 예술에 관한 의욕은 점점 높아졌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인생의 아름다움과 슬픔과 고달픔을 문장으로 엮어가고 그림으로 표현해가는 그런 소박한 그들의 모습을 몹시 부러워했다. 그러한 시절에 받은 예술적인 정서가 후일 내가 映像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창조해보려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上落合역에서 후미꼬씨와같이 승선전철을 내려서 하숙집까지 약10분거리를 대화를 나누면서 걸었었다. 그는 나를보고 글을써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정적인 예술보다는 동적인 예술인 영화쪽에 훨씬 더 매력을 가졌기때문이다.「오노미찌 아가씨가 붉은 천을 빨면 세도(瀨戸内海)로 흘러가서 도미(鯛)물드네」그는 자기고향 오노미찌의 민요를 되씹어가면서 어린시절에 떠나온 옛고향을 그리워했다.

오찌아이 下宿생활중 親交맺어


◇동경유학시절 가장 다정한 친구였던 와세다대학의 李康日(右)과 法政대학동창인 辛英玉.

文學·회화·映畵 論하며 예술의욕 키워
그들의 소박한生活서 映像속 진실창조

強攻좋으나 守備허술

한국代表、蹴球정기전서 日에大勝 3－0

한국대표 축구팀은 21일하오 서울운동장서 열린 제10회 韓日 정기전에서 姜信寓 崔淳鎬 李康助의 득점으로 日本 대표팀에 3－0으로 승리, 통산 전적 7승1무2패를 기록 했다.

지난해 11월 팀 개편 이후 처음으로 국내 팬들에 모습을 나타낸 한국팀은 신예 姜信寓(1m82)와 득점주역 崔淳鎬(1m85)등 2장신 선수를 최전방에 내세운「루·롤」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상밖의 3골차로 대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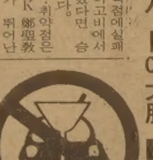
장기원정후의 피로와 팀개편에 따른 팀웍불안을 우려했으나 한국팀은 3만관중의 응원속에서 열심히 뛰어 앞으로 밝은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스코어는 3－0 이었지만 이날 경기내용은 막상막하였다는게 많은전문가들의 의견. 특히 선수개개인의 기본기, 스피드와 패스웍에서는 오히려 日本이앞서있다고 말하는 축구인들이 많았다.

日本이 대패한것은 전반초 FW하시라따니가 2개의결정적 득점기회를 놓치고 마쓰다, 기무라등이 득점에실패한 때문인데 만약이고비에서 한국이 골을 허용했다면 승부는 팽팽했을것이다.

한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수비불안. 신진 GK 鄭聖教와 노련한 朴成華가 뛰어난 수비력을 보인 반면 日本의 양날개들에 의해 좌우 수비라인이 자주 뚫려 실점위기를 맞았다. 수비력 보완이 절실하다.

중반의 趙廣來 李康助 李泰昊, FW진의 姜信寓 崔淳鎬 丁海遠의 콤비네이션도 아직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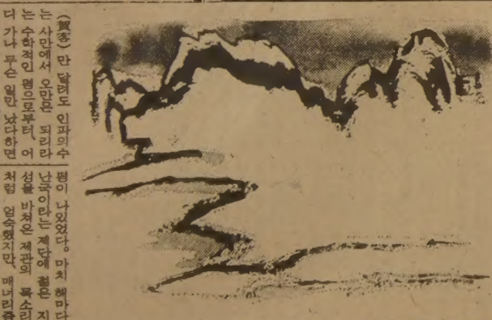


한국、2차전도大敗 世界氷球 C풀대회

【하카(스페인) 21日AP聯】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C풀 대회 2차전서 불가리아에 14－1로 대패, 2연패 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7>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明暗 ①

졸업식날은 화창했다。먼 산은 아직 눈을 이고있고 어제만해도 영동지방엔 폭설이 내려 한때 교통이 마비됐었다고 하는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은 졸업이 소곤소곤 끓는 것 처럼 따뜻했다。하늘은 푸른빛을 따뜻한 수증기로 살짝 흐려놓은것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햇볕이 쬐는 곳은 눈 녹은 흙바닥이건 연탄재 분분한 양회바닥이건 아무데서나 아물아물 아지랑이를 피어올리고있었다。졸업식이 있는 B대학 근방의 교통은 아침부터 마비돼 자가용만 겨우 통과시키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사람마다 자기도 그인산인해에 보탬이 되고있음을 잠시 잊고、엄청난인파에 경악하기도하고 평(評)을 하기도 했다。

오늘 학사가 되는 이천명에 줄잡아 이십명씩의 하객(賀客)만 달려도 인파의수는 사만에서 오만은 되리라는 수학적인 셈으로부터、어디 가나 무슨 일만 났다하면 사람이 이렇게 들끓으니 제한된 국토에서 무슨 수로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느냐는 경제적인 염려、옛날 졸업식은 이렇지 않았다、전문학교 졸업하는것도 극소수의 선택된사람뿐이었는데도 오히려 안식구들은 대범해서 부모가 참석해주면 황공하고 안해도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유치원 졸업식에만 가도 하객이 들끓으니 졸업생 흔하고 하객 흔하게 피장파장이라는 회고적인 평까지 가지가지였다。

졸업식장인 대강당은 이미 정원이 차서 문이 굳게 닫힌 지 오래였다。실상 하객들은 졸업식엔 관심도 없었다。화창한 날씨와는 동떨어진 냉엄한 표정으로 우뚝 솟은 대강당은 볼일 아니라도 들어가고싶지않게 침침하고 우울해 보였다。

식구나 친지를 급해 만나지못한 사람들은 고개를 길게 빼고 아는 얼굴을 찾느라 지쳐있거나 미리 약속한 장소가 어딘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인파는 축제의 인파답게 화려하고 활기차고 시끌시끌했다。

하객들이 정작 졸업식엔관심이 있건말건 총장의 졸업식사는 몇십만평의 캠퍼스구석구석까지 잣궂게 울려퍼지고 있었다。

재학생들이나 졸업생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인 노천극장을 굽어보는 언덕 위 아름드리 느티나무 가지에도、부속병원으로 넘어가는 후미진 고갯길에도、학생들이 습작한 조각이 유쾌한 촉루(髑髏)처럼 춤추고있는 미대(美大) 뒤뜰에도 마이크가 장치되어 있었다。

총장의 목소리는 난국에처한 우리 사회에서 젊은 지성이 걸머져야할 중책에대해핏불 처럼 뜨겁고 드높게 외치고 있었다。해마다 B대학총장의 졸업사는 명연설로 정평이 나있었다。마치 해마다 난국이라는 제단에 젊은 지성을 바쳐온 제관의 목소리처럼 엄숙했지만、매너리즘의 조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보다는 산만하게 했다。

수지네 식구는 B대학을설립한 사람의 묘소가 있는 남향의 동산앞에 모여있었다。수지는 금년에 대학원을 졸업했다。

「난국 좋아하네。우리 졸업할때 설교도 난국、난국이더니만」

그 곳에서도 총장의 목소리는 들려서 수철이가 약간 비꼬는 것처럼 말했다。

「난국이 계속되는 한 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게다」

수지 졸업식을 보고싶어하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서 상경한 외삼촌이 수철의 경박한 논평을 이렇게 나무랐다。외삼촌은 강직하면서도 순박해뵈는 시골 유지풍의 중노인이었다。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밀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T.PUBLISHING

WHY NOT PRINT YOUR PAPER HERE?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신문인쇄 전문

(윤전기 4대 가동중)

WHY NOT GIVE US A CALL

☎ : 533－2361

Ask for Susan or Lawrence
9:00 a.m.-6:00 p.m. Monday - Friday

NO JOB IS TOO SMALL!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放火犯숨기면 不純分子간주

徐내무 談話발표 釜山文化院사건

전국搜査 기관에 非常令

◇여자犯人A 몽타지 경찰이 丁津酷에이어 두번째 수배한 여자범인A의 몽타지。23세가량, 158㎝, 얼굴둥글고 체격보통。

徐廷和내무부장관은 20일釜山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관련,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정부는 이사건을 중시하고있으며 전국모든 수사기관에 범인검거를위한 비상근무령을 내리는한편 범인을신고하거나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2천만원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현상금 2천만원

徐장관은 또 사건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방화범색출에 적극협조해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범인을 숨기고있는 단체나 개인이있으면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되며 만일 이들 불순분자를 은닉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들도 방화범과같은 불순분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徐장관은 이어 이번사건은 한미관계가 어느때보다 공고해지고 특히 팀스피리트훈련과 3월말 있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등으로 어떠한 침략세력도 넘볼수없는 굳건한안보체제가 이룩되고있는 시기에 저질러진 악랄하고 불순한 소행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온국민은 모든분야에서 안정이 정착돼 국가안보를굳건히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하려는 중요한 싯점에서여하한 불순분자의 테러행위나 방화등 내부전복이나 교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일체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건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일체의 테러행위를 예방 근절하기위해 대책을 세워놓고있다.

해설 釜山사건 韓美관계 이간 속셈

일부 不純分子 파괴적행위

初期 制壓할 防禦체제 필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은 그것이 소수극렬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예외적인 범행이긴하지만 사건발생의 싯점과 성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수없다. 「방화」는 질서파괴행위중 가장 극렬한수단일뿐 아니라 그대상이 다른건물도아닌 美문화원 이라는점에서 더욱 경악을일으키게하고있다.

방화범들은 그들일당이 살포한 전단에서 反美,親北傀의 성격을 밝히고있고 그들의 목표가 韓·美 두나라의 우호를 깨고 양국관계를 불신관계로 떨어뜨리려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물론 이같은 범죄의 성격과 목표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사회의 상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언급할 가치조차없는것이지만 어떻든 혼란의 시기가 끝나고 안정이 정착된 지금까지도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발상과 행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수 없다.

이들이 살포한 전단의내용을 좀더 살펴보자. 이들은 「한국이 북침준비」운운했고 88년서울올림픽개최를 정면에서 반대하고있다. 이런의미에서 불순 테러범들의 행동은 북괴가 해외에 수출한 게릴라들과 맥락을같이한다고 볼수있다. 그뿐아니라 이들은 북괴와 같은 주장위에서 우리의 개방경제체제를 매도했고 한미관계를 착취·피착취의 관계로 규정한 반미구호를 외쳤다.

또 이런 주장아래 미국문화원을 불태워 반미투쟁을벌이자고 선동했고, 체제비판이나 반미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폭력행위로 우리사회를 교란시키자고했다. 한마디로 이들의구호는 극도로 허황하고 사회파괴적인 것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다시말해 이들구호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않는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사건은 우리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기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주었다.

몇몇 극렬분자의 행위라고 양보하다가는 더큰禍를 자초하는 결과가되지 모르기때문이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제압해야하며 그방법은 일부수사기관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사회전체의 일치된방어체제가 돼야하는이유도 바로 여기에있다.

이때문에 徐廷和 내무부장관은 이례적으로 2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국민의 수사협조를 당부했으며 범인들을 알고있거나 숨겨준사람의 신고를 호소했고 만약 이를어 겼을경우 범인들과같은 불순분자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수사방침을 밝히게된것이다.

犯人색출 조속히 民韓서 遺憾표명

民韓黨의 金珍培 대변인은 20일 釜山美문화원 放火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당국은 하루빨리 범인을 색출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촉구하고『韓美간의 유대는 不純분자 몇명의 책동으로 결코 흔들려지는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관계 당국은 이번사건을 단순한 범죄사건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이번 피해건물이 외국의 공공기관임을 각별히 留意하여 이들에대한 경비 태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스피리트 射擊훈련

◇「팀 스피리트 82」韓美연합훈련에 대비, 日本 오끼나와(沖繩) 기지에서훈련중인 美해병대원들이 19일 오끼나와 북부지역에서 사격연습을 하고있다.

우리나라 最初의 地譜 「地名辭典」이 나온다

1차로 面·洞 1만2천 대상

정확한 表記·行政구역 수록

6월에出刊

政府발행地圖 機關마다 表記달라 혼선

우리나라地名에관한 사전이랄수 있는「韓國地名요람」이 사상 처음으로 국립지리원에 의해 발간된다. 地名이란 본래 人命처럼 특성이 있고 수명이있는것. 또 어느나라든지 표준어가 있는 것처럼 地名도 표준지명이필요하나 우리나라의 地名은 부르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심지어 정부가 만든 지도상의 地名도 그지도를 제작한 기관에따라 다르게 부지기수였다. 그런가하면 본래의 이름을잃고 잘못불리거나 잘못표기되는 엉터리地名들도 허다하다.

地名이란 현재의 그지역주민이 부르고있는게 가장 정확한 표준지명이다. 그러나 地名은 사회적계약이며 시대의 변천에따라 소멸하고 새로 태어나기도해서 어느곳이든지 여러개의 地名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이로인해 많은혼란과 부작용이 생기고있으므로 선진국일수록 매년 자기나라의 地名정리를 철저히 해오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地名정리에 관심을갖는 기관이없어 유엔地名위원회서 4년마다 발간하는 세계地名사전에 수도서울이 과거의 이름 京城의 일본어 발음인「게이조」로 표기되어있어 主權국가로서 얼굴을들수없는실정이다. 영국의 옥스퍼드백과사전에도 수년전까지 우리나라 地名이 한자의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되어있다가 시정된적도있다.

국립지리원이 우리나라의 地名을 정비, 편찬하게된것은 전국각지의 표준지명을 정리하고 地名유래보도 분명히해 대내적으로는 정확한 地名을 밝히는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국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되찾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지리원은 3년전인 79년에 유엔 地名위원회에 가입, 업저버자격을 얻은뒤 곧이어 국내의 地名정비작업에 착수해 왔으며 오는6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地名사전을 펴내게 된것이다.

그동안의 작업결과 전국 40～50여만개로 추산되는 里·洞·자연부락, 山·江등 자연地名까지를 포함한중에서 1차로 面·洞단위 1만2천여개의 地名을 수록하고있다.

내용은 地名의 유래와 변천과정, 지리적위치, 행정구역상의 변동, 그지역내 문화유적까지 실었다.

地名은 한번 정해지면 그 원래의 뜻만큼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다. 그지역의 개발이나 정치적, 시대적이유로 명칭은 조금씩 바뀌어도 원뜻은 항상 남겨져 전해온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것이라고 원뜻과 달리 잘못된표기를해놓거나 주민들과는 전혀 생소한 어거지 행정지명으로 표기한 것등이 많다.

예컨대 충북中原郡 嚴政面의「바마루」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地名으로 지도상에도 그렇게 표기돼있으나 面사무소등에서 쓰는 행정地名은 栗里로 돼있어 그어느것도 정확한 지도상 표기로는 부적당하다는것.

같은 嚴政面의 槐東里 밤마을의경우 주민들도 여전히 밤말골로 통칭하고 있으나 지도상에는 엉뚱하게「杏亭」으로표기돼있고 面사무소등에서행정서류등에는행정地名으로栗里을계속쓰고있다.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도에도 같은 지명이 조사시점·조사자에 따라 달리 표기돼있기도해 예컨대 같은 고개가 江峴고개와 강달고개로 엉뚱하게 달리표기돼 있기도하다.

전남麗川郡의 松竹島는 이번 지명유래조사에서 정확한 원래지명이 鴨竹島임이 기록을 통해 밝혀지는등 日帝때 쓰기쉬운 한자등으로 日人들이 마구잡이로 지명을날조해놓은 것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앞으로 지명정비를 통해 반드시 시정해야 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명정비의 필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정, 정부는 앞으로 모든 지명을 정부가 조정,통일해 고시하는 것만을 쓰기로 관계법(측량법)을 개정(80년1월4일)하고 지난해 9월 중앙지명(地名)위원회와 道·市·郡단위 지방지명위원회(地名委)를 설치했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명정비사업과 이에따른 지명요람편찬이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 지명의 체계를 잡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 기록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사업이 될것이라고 기대하고있다.

◇한국체육을 획기적으로 振興하고 86아시안게임및 88서울올림픽 祭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한국體育部」가 국민의 기대속에 정식 발족됐다.

體育部長官에 盧泰愚씨

어제出帆、올림픽業務 총괄

次官 李永鎬씨

政務2長官임명은 留保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새로 발족한 體育部장관에 盧泰愚정무제2장관을, 차관에는 李永鎬씨(梨大교수)를 임명,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었다.

盧장관의 체육부장관 임명에 따라 空席이된 정무제2장관은 당분간 임명되지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體育部는 이날상오10시30분 서울乙支路2街 外換은행本店 21층청사에서 발족행사를 갖고 정식출범했다.

체육진흥과 86아시안게임및 88올림픽업무를 總括하게될 體育部 발족행사에는 [illegible]국무총리와 盧泰愚체육부장관을 비롯, 李簡元법무, 李光杓문공, 金容然총무처장관, 鄭泰秀문교차관등 정부 고위인사와 [illegible]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李[illegible]사무총장, [illegible]대한체육회장등 체육계 인사등이 참석했다.

체육부의 발족으로 중앙행정부처는 2院4處15部가 됐다.

◇盧장관略歷 ▲慶北大邱출신·50세 ▲陸士卒(11期) ▲陸大卒 ▲空輸여단장 ▲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정무제2장관 ▲88서울올림픽支援委부위원장

◇李차관略歷 ▲慶北義城출신·47세 ▲延大정치과卒 ▲美앰허스트大정치과 ▲美예일大政博 ▲한국정책개발원장 ▲[illegible]조사연구실장·정책기획실장 ▲梨大교수 ★얼굴2面

體育部 企劃管理室長 崔一鴻씨

文教部 敎育政策室長 金永植씨

정부는 20일 신설된체육부 기획관리실장에 崔一鴻정무제2장관실보좌관을, 문교부 교육정책실장에 金永植서울大사대 교수를 각각 임명발령했다.

총리실 支援委업무도 흡수

정부는 20일 체육부가 신설됨에따라 지금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수행해온서울올림픽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체육부에 移管키로 했다.

이로써 총리 행정조정실은 올림픽지원업무를 조정하지않게됐다.

정부는 또 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을 정무2장관에서 체육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지원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정실장에서 체육부차관으로 바꾸는 한편 실무분과위원회를 12개분과위로 늘리기로했다.

국회 建設委위원 產業基地등 視察

국회 建設委는 오는 22일부터 3일동안 產業基地및 고속도로 건설현황을 시찰할 예정이다.

朴柱奉·李恩求조 우승

印尼팀 複式서 꺾어

덴마크 배드민턴

【코펜하겐19日聯=綜】 한국의 朴柱奉·李恩求조는 19일 코펜하겐에서 폐막된 덴마크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크리스티안·하디나타의 리우스·포오組를 치열한 접전끝에 15-9, 11-15, 18-16으로 눌러 우승을 차지했다.

黃善愛를 비롯한 여자선수들이 中共에 참패, 의기소침했던 한국선수단은 朴·李 남자복식조의 우승으로 全英 오픈을앞두고 생기를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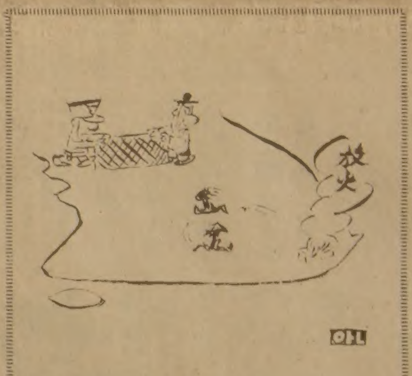
中共선수끼리 대결한 여자단식에서는 우·지앙키가 수·통을 눌러 우승했다.

남자단식 결승에서는 지난해대회 우승자인 덴마크의 모르텐·프로스트가 인도의 파라카시·파두코네를 물리치고 2連覇했다.

◇결승전적 ▲남자복식 朴柱奉·李恩求 2 (18-16, 11-15, 15-9) 1 하디·타폴

구독신청·배달시간 533-

社會漫評



民警合同으로…

地平線

『덧없는 모든 것은/오직 영상에 지나지 않고/이세상에서 힘이 미치지못한 것이/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니/뭐라고 말할수 없는 것이/여기서 완수되었네/영원한 여성이/우리를 이끌어 올리라』—요한·볼프강·괴테의 〈파우스트〉는 이렇게 장엄한 합창으로 끝난다. 신비스런 연극은 우주의 본질을 캐려던 파우스트는 숭한 인생편력끝에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것이다.

▼괴테에게 「여성」은 인간을 천국으로 이끄는 꿈의 길잡이와도 같은 것이다. 남의 약혼녀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자살로써 끝내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러니까 모든인간이 겪어야할 고뇌의 시작이다. 이루지못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끝없는 탐구끝에 천국에 이르는〈파우스트〉까지 괴테는 바로 유럽 근대인의 상징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에어푸르트에서 괴테를 만난 정복자 나폴레옹은 그를 가리켜 외쳤다고 한다. 1970년3월19일 같은 에어푸르트에서 서독수상 브란트가 말한것도 괴테의 한 귀절이었다. 『독일땅안에서 한 나라의 패스포트가 다른나라에서 통하지못하는 일이있어선안될것이다』—이때브란트는 서독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분단의 상처를 달래기위해 동독땅을밟았던것이다.

▼괴테는 「완전한 인간」을 꿈꾼 마지막 르네상스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시인·소설가가 아니라 비평가요 저널리스트요 화가요 극장지배인이자 정치가·교육자·과학자였다. 과학에 관해서만도 14권이나 될 글을 썼다. 그는 범인이 선뜻 알아차리기어려울만큼 다양하고 광막한 탐구의 세계에서 살다간 사람이었다.

▼칼라일에 의하면 괴테는 『태양처럼 밝아보이는 자신속에 단테처럼 예언자적인 슬픔을 감추고있었다』한다. 그에게 진리란 반대되는것들과의 타협이아니라, 그것을포용하는데 있었다고말한 사람도있다. 그래서 T·S·엘리어트는 그를 가리켜『시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哲人이라고 결론짓게 했었다. 유럽의 근대인을 대표하는 철인이었다.

▼내일(22일)은 괴테가죽은지 1백50년 되는날이다. 12년전 브란트가 동독에서괴테의 이름을빌어 동독쪽사람들과 악수했듯이, 이번에도동서독 모두 「위대한 기념행사를 벌이」려 한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괴테는 끝없는 발전과 「통합」을 상징하는 독일인이요, 유럽인이기 때문일것이다. 같은 분단의 비극속에있는 우리는 과연 한사람의 괴테로 누구를 꼽을수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기지 않을수 없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금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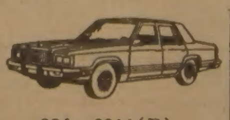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P
922-3111 (B)
791-8196 (R)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영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 13만8천불
○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 11만불 가격 : 5만5천불.
○도넛샵
주매상 :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 6만5천불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386-1548(R) M3B 1Z3

배럴當 34달러固守

産油量은 하루 2백만배럴 減産

OPEC 石油相會議 결정

【빈19日外·합=聯合】13개국 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상들은 19일 세계적인 석유공급과잉사태에 직면 ▲OPEC의 하루 산유량상한선을 현재의 2천만배럴에서 1천8백만배럴로 2백만배럴 감축하고 ▲기준유가는 현행 배럴당 34달러를 고수키로 결정했다고 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이 발표했다.

석유업계소식통들은 OPEC하루산유량이 2천만배럴로 돼있으나 이달초부터 1천8백20만배럴선을 밑돌았기때문에 하루 수개월간 유가가 떨어진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OPEC의 이번 감산결정으로인해 휘발유가격에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도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사우디가 기준유가를 배럴당 현행34달러 이하로 내리는데 반대했다고 말하고 사우디의 입장은 가능한한 금년여름까지 석유공급과잉사태를 극복, 석유공급과잉상태가줄어드는(줄게)됨석유소비국들이 석유비축량을 늘리지않을수없을때 지금까지의 손실을 메우는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공급과잉과 이로인한 유가인하압력에 대처, 빈에서 특별각료회의를 소집한 OPEC석유상들은 이날 이같은 산유량감축결정외에 OPEC 가입국들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국간의 생산쿼터배정에 돌어갔다.

◇英國방문한 슈미트西獨首相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이 19일 정상회담을 갖기위해 벤슨공군기지에 도착한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을 영접하면서 환하게 웃고있다. 【벤슨공군기지(英國) 19日AP電送=聯合】

加, 원자로 1基폐쇄

漏水현상심해…한국月城型과 同一

【토론토19日=聯合】한국의月城원자로와 동일하게 설계된 캐나다의 퀸두렌 원자로1기가 심각한 수준의 漏水현상으로인해 폐쇄됨으로서 이원자로의 운영회사인 온테리오·하이드로社에 약 1천만달러의 피해를 입히는한편 가동이 중지됐다고 이 회사의 도널드·화이트 대변인이 19일 말했다.

"原油價하락 막기힘들듯"

美석유업계分析

【뉴욕19日=聯合】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루 산유량을 1천8백만배럴로 제한키로 결정했다해도 이결정이 원유가의 하락추세를막지 못할것같다고 美석유업계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이 19일 말했다.

이들은 서방경제불황으로 원유수요가 저조한 상태여서 그 정도의 생산감축으로는 현재의 원유가 하락추세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必死의 취재戰線 記者들 잇단受難

——공포의 戰場 엘살바도르

「處刑豫告」뒤 和記者들 또 당해

작년이후 12명죽고 3명失踪

엘살바도르는 기자들에게 그어느곳보다도 위험한 취재전선이 되고있다.

지난17일 4명의 네덜란드기자가 피살돼 충격을던져주데 이어 19일에는 다시 브라질기자3명이 총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밴트럭에 바고 …

이런부터 엘살바도르 보두 12명의 기자가 … 3명이 실종되었으며 13명이 추방되는등 그야말로 기자수난시대를 겪어왔다.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약 3백명의 외국특파원들이 몰려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극우파「죽음의 특공대」오르덴은 지난16일 뉴욕타임즈기자등 35명의 처형대상언론인 명단을공개, 특히 외국기자들을 공포에 떨게했다.

더구나 17일 피살된 4명의 네덜란드기자는 35명의 처형대상기자명단에 들어있지않아 현지 기자들로하여금 더욱 신변에 위협을 느끼도록 한것이다.

오르덴은 민병대중 極右파 조직으로는 지난79년10월 군사정부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그동안 양민대량학살등 많은 잔학행위를 저질러 공포의대상이 되어왔다.

오르덴은 외국특파원들이 정부군의 방해를피해 좌익게릴라들과 접촉, 정부군과「죽음의 특공대」의 만행을 보도하는등 정부측에 불리한기사를 보도하는데 불만을품고 기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있는것.

정부측은 지난17일 피살된 4명의 네덜란드기자들이 정부군을 습격하려는 좌익게릴라들과 함께있다가 정부군과 게릴라와의 교전중 피살되었다고밝히면서 기자들은 군통제지역에 출입하지말도록 경고까지했다.

그러나 4명의 기자들은좌익게릴라가 장악하고있는 차라테난고북쪽지방의 산타리타마을에 게릴라지도자와 인터뷰를 하러갔다가 뒤를미행한 오르덴단원들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35명의 기자처형을 공표한 뒤 24시간만에피살된 이들의 얼굴은 참혹하게 찢어져있었고 그나마 2명은 취재때 입었던옷이 돌연 다른옷으로 바뀌어져 있기도했다.

19일 총격을 받은 브라질 …

◇암스테르담 美領事館앞의 十字架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민들이 19일 엘살바도르사태 취재도중 살해된 4명의 기자들을 추모하기위해 美영사관 정문앞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헌화하고있다. 【암스테르담20日UPI電送=聯合】

印尼폭동 擴散

자카르타 이어 수개都市로

최소한 73명死傷

【자카르타19日AP=聯合】인도네시아의 일부청소년들이 18·19양일간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의 수개도시에서 오는 5월4일 실시될 총선과 관련한 유혈폭동을 일으켰으며 이폭동으로 최소한 11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한것으로 알려졌다.

유혈폭동은 일부 청소년들이 18일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집권 골카르(직능그룹)黨의 한선거유세장에 화염병을 투척하는등 난동을 벌인데서 발단되었으며 19일에는 세넨, 칼풍·멜라유, 그로곡, 반둥, 보고르 등지로 확산됐다.

일부미확인보도들은 18일 자카르타의 반텔광장에서 있었던 한선거유세장이 10대소년들의 난동으로 유혈난투장으로 돌변했으며 이로인해여 …

和기자피살 眞相조사나서

【산살바도르·헤이그19日=外合】엘살바도르 내전을 취재하던 4명의 네덜란드TV종군기자 피살사건은 국제적물의를 일으키는 큰사건으로 확대되고있다.

한편 네덜란드정부는 이들 TV기자들이 엘살바도르 정부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들이있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위해 멕시코주재 네덜란드대사 요하네스·반·다멜르렌씨를 엘살바도르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아리

春分·賞春

겨울을 활활 벗어 버린다. 첫꽃은 꽃시샘 추위도 아랑곳없이 어쩔수 없는듯 사르르 녹아 들었다. 계절의 변화가 새삼 신비스럽기만 하다.

낮과 밤이 한 묶음인 「하루」가 생활 시간의 단위라면 「한해」는 농경시간의 기본단위다. 중국엔 기원전 4세기께 벌써 어느 정도 완비된 曆法이 있었다. 높은 문화권에 섰던 이 중국인들이 서기 3백년께 曆을 모르고 살던 일본생활을 기록해 두었다. 「그 時俗은 正歲·四時를 모르고 春耕·秋收를 年紀로 삼고 있을 따름이다」(魏志倭人傳). 비록 曆法은 없어도 「한해」는 알았던 모양이다.

영어의 계절을 뜻하는 시즌(SEASON)이란 단어는 그 어원이 「씨를 뿌린다」는 라틴어에 있다. 동서양 공통인 옛 농경사회의 사고와 생활상을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동양의 봄은 서양보다도 45일가량 빨리 시작된다. 중국문화권의 曆은 봄과겨울의 경계를 立春으로 잡는다. 한겨울에 봄은 이미 피어 나는 것이다. 그리고 春分을 봄의 가운데로 여긴다. 따라서 夏至는 여름의 중간이 된다.

오늘이 春分。 그러니 우리네 봄철은 어느덧 절반이 지나간 셈이다. 봄을 고향이에 비유한 어느 시인의 詩情이 문득 떠오른다.

서양의 曆은 四季의 始點을 춘분·하지·추분·동지인 二分二至로 삼았다. 봄의 시작은 春分이다. 서양의 봄은 夏至까지 간다. 봄의 출발이 45일 가량의 차이를 동서양이 보인것은 여기서 나온 계산이다.

음력 정월에 立春이 드는 우리의 봄은 언제나 아쉽게 지나 버린다. 화창한계절엔 일손도 바빠진다. 농가마다 농사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남녘에선 花信이 바삐 내닫고 있다. 물기를머금은 나무와 화초는 오래잖아 봄의 꽃바다를 이루리라…

휴일의 명산 대찰과 관광지 덮인다. 이땅의 陽春佳節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몰아 닥쳐 봄빈다는 소식이 흐뭇하다.

한겨울 잔뜩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펴보자. 와 함께 우리 마음가짐도 단단히 여며 두어야겠다. 이 봄엔 賞春의 탈선을 볼수 없기를 바라고 싶다. 계절의 고마움에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오른다.

外信안테나

◆도지어將軍, 美本土로 歸國=이탈리아의 좌익 도시게릴라단체인 붉은 여단에 42일간 납치됐다가 지난1월28일 극적으로 구출됐던 제임즈·도지어美육군준장이 美본토 켄터키시 포트녹스의 기갑사단 부사단장으로 임명됐다고 나폴리의 남부 나토사령부가 19일 발표했다. 【나폴리=UPI】

海外토픽

탱크로 日製車깔아

★美 女性자동차판매원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서 자동차판매업을하고있는한 …

"한국좋다" 관광객 36·7%

言語불편 34·7%

觀光公社 조사분석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중 전체의 36·7%가 방한소감이 좋았다고 말한데 비해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기대만 못했었다고 밝힌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제관광공사가 지난해 하반기동안 서울金浦공항을 비롯, 金海·濟州공항등의 외국인출입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를 다녀가는 외국인관광객 4천7백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방한소감을 묻는 질문에 36·7%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응답했고 보통이었다가 46·2%, 기대이하 6·6%, 모르겠다 6·8%, 기타 3·9%로 각각 나타났는것.

특히 이들 방한객들은 체류기간동안 전체의 88·8%가 호텔에 투숙했는데 이들중 67%가 호텔분위기가 좋았다고 응답했고 나쁘다고대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다.

또 가장불편했던점은 언어불통 34·7% 택시운전사의 불친절 17·4% 통관절차의 불편 18·3%등의순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고 체한중 쓴돈은 최저 2백달러 최고 1천2백달러로 각각밝혀졌다.

방문지역은 서울근교 72·3%, 용인민속촌 26·2%, 釜山29·9%, 慶州19·5%, 濟州8·8%등의 순이었는데다시 우리나라에 올경우 찾고싶은곳은 濟州가 26·9%로 가장 높고 서울23·6%, 釜山21·7%, 慶州17·3%, 유송 … 전선 14·3%등이었다.

이밖에 이들이 사갖고간토산품은 인삼류가 40·5%로 가장많고 다음은 보석류로 23·9%였으며 체한중 가장 인상깊었던 경로는 고유문화및 역사가 61·6% 국민들의 친절상태가 57·4% 치안상태 40%등으로 나타났다.

農村人口 매년준다

지난한해 64만4천명 離農

農水産部집계 68년후 最高

전체인구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흉작등에 따른 영농의욕저하등으로 지난한햇동안 농촌인구는 64만4천명의 농민이 줄어도 분하고 대도시나 공업단지지역으로 유입된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수산부가 잠정집계한 지난年末현재 농가인구는 9백99만8천7백명으로 80년말의 1천64만2천7백명에 비해 6·1%가 감소, 지난 68년이래 가장 높은 離農率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전국민에대한 농촌인구비중은 지난70년 49·9%에서 78년 31·1%, 79년 28·9%, 80년 27·9%로 떨어진데 이어 81년에는 25·8%로 크게 낮아졌다.

또 호당농가인구가 80년의 5·02인에서 지난해 4·93인으로 낮아졌음에도 농가호수는 2백12만1천5백戶로 전년의 2백12만9천6백戶보다 4·3%가 감소, 가족전원의 離農이 크게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령별 이농현황을보면 13세미만의 미성년자가80년말의 3백25만3천8백명에서 2백93만7천3백명으로 9·7%, 15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이 1백64만1천9백명에서 1백53만3천9백명으로 6·6%, 20세이상 49세미만의 장년층은 3백46만4천4백명에서 3백29만8천6백명으로 4·8%가 각각 줄어든반면 50세이상의 노년층은 2백28만2천6백명에서 2백22만3천8백명으로 2·6%의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流星의 賦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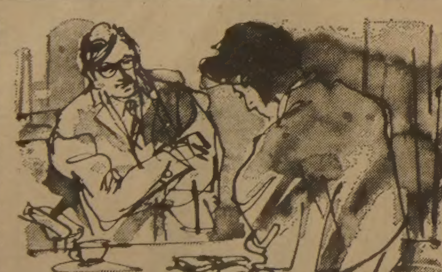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6>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㊿



한국일보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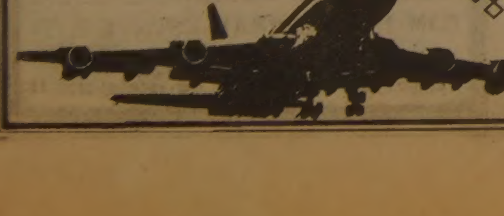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구라파 관광★

출발일	1982년 7월 22일
귀환일	1982년 8월 10일
기 간	19박 20일
요 금	$1,550.00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2인 1실), 식사(아침17식 저녁12식) 구라파내 지상 및 해상교통 및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 안내자
방문지	영국(런던), 화란(암스텔담), 오지리(인스부루크) 이태리(베니스, 로마, 나포리 소리엔토, 카푸리, 플로렌스, 피사), 불란서(니스, 빠리), 스위스(제네바), 몬테칼로, 벨지움(오스텡) 독일(라인강 유람, 하이델 베르크)
예약마감	1982년4월30일까지 예약금 1인당 S200납부. 단) 취소시는 반환치 않음.
정 원	30명 선착순
기 타	잔액은 5월30일까지 완납,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캐너더임시 방문자도 가입할수있음.

★구라파 캠핑관광★

	1982년 8월 2일 ~ 8월 26일
기 간	25 일
가 격	$ 1,457.00
방 문 국	10개국(영국, 화란, 서독, 스위스, 리첸슈타인, 오지리, 이태리, 바티칸 시, 모나코, 불란서)
가격에 포함된것	왕복항공료, 숙박비(2인1조) 관광 및 안내(관광명소 입장료 포함)
추가비용	식사비(1일 3식) US 130.00현지에서 지불, 런던 호텔비(2박) CD 40.00
특 징	대상→남녀 대학생및 청년 야외캠핑 여행 식사는 동행요리사가 조리함. 한국인사회 저명인사 동행(감독자)
신청마감	1982년 4월 30일까지 신청금 S200지불 (취소시 S50은 반환하지 않음), 정원 40명(선착순)캐나다 여권준비
연 락 처	신세계 여행사 712 BLOOR ST. W. Toronto ☎536 - 2155 또는 KUSA(한국대학생회)



❖구라파 여행은 여러분의 신세계로··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김형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건강페이지

건강합시다

설탕안먹고 점심걸러… 스트레스 매일 술로풀어

金丁龍〈서울大醫大교수〉

◇한국인의 간염연구에 몰두하고있는 간박사 金丁龍교수。金교수는 주어진일에 열중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푸는것이 건강의비결이라고 설명한다。

金丁龍(47)서울대의대 내과교수。세상에「肝박사」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매 금요일 정오가 지나면서 서울대학병원 1층 소화기내과 외래진찰실엔 전국으로부터 간환자들이 모여든다。하오 1시부터 시작되는 간박사 金丁龍교수의 특진을 받기위해서다。진찰이 시작될무렵엔 1백50여명의 간환자들이 진찰실주위를 맴돈다。이들은 모두 간이 나쁘다고 확신、예약된 간환자들。이들가운데 金박사의 특별진찰을 받기위해 3개월전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다。

진료시간은 하오5시까지 4시간。이 시간에 1백50여명의 환자를 보아야한다。환자 한사람 앞에 할당된 시간은 평균 1분30초꼴。이때문에 진료시간은 자연 지연되게 마련이지만 환자를보는 金교수의 입장에선 여간한 정력과 주의를 쏟지않으면 안된다。

신장 1m63cm、몸무게 67kg。신장은 한국인의 평균치에 못미치나 체구는 그의 출생지인 억센 함경도 특유의억양 못지않게 야무지고 당당하다。

하루에 담배 한갑、斗酒不辭。주 5회 정도 거르지 않고 맥주 5병정도를 마시게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해야할 간전문의가 어떻게 그토록 술을 마실수 있느냐는물음에「알콜과 간질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잘라말한다。문제가된다면 간에 이상이 있을때란것。따라서 金교수는 그를 찾아온 환자라도 간에 특별히 문제가없을땐 맥주 1병、정종1홉、소주 3분의 1홉、스카치라면 50cc(2샷)정도는 마셔도 무방하다고 알려준다는것。

金교수의 일과는 상오8시30분 서울대학병원9층 소화기내과 연구실에서 시작된다。1시간반정도 연구실 일을 보다 상오에 외래가있는날(火·木)엔 상오10시부터 1층진료실로 내려가 환자를본다。진료시간은 정오까지로 돼있지만 보통 2시는돼야 일이 끝난다。

상오중 진료환자는 대략 1백30명선。진료가 끝나면 잠시 그의 교수방에 들러 특별한 연락사항이 없는지 알아 보고 다시 연구실로 향한다。하오4시부터 1시간반정도 입원환자를 돌보기위해 회진을한다。회진은 8층에서 12층까지의 내과병동6개층을 오르내리며 하루에보통 80、90명을 보게된다。

金교수는 의과대학시절부터 점심을 거르고있다。처음은 점심먹을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이젠 습관화되어점심을먹는일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었다는것。점심시간을 일에 할애할수있게돼 무척 효율적이라했다。

일에 휩싸이다보니 운동할짬도없다。그래서 8층교수실에서 외래진료를위해 1층으로 내려갈때와 병실회진을할땐 가능한한 걸어다닌다。유일한 운동의 기회가 되기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껏 병때문에 앓아누운적이 없다。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느냐는 물음엔 고개를 가로젓는다。

다만 설탕을먹지않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또 밥의양을 줄이면서 육식과 채소를 고루 섭취하고 있다는 설명뿐이다。

金교수는 굳이 자신의 건강비결을 들라면 잡념을버리고 주어진일에 열중하되 그날의 일은 그날마치고 가까운 동료나 후배들과함께 술을마시며 떠들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것일거라고했다。그러나 간은 무엇보다도 타고나야한다고 의사답지않은 숙명론적 결론을 내렸다。【李光榮기자】

과잉보호 소외감심하면 천식·心身症일으킬수도

청소년기의 질병은 不安·不滿 원인많다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이때문에 어린이나 어른과 다른 여러가지 특유의 건강장해를 일으킬수 있다。청소년기에 흔히나타날 수 있는 건강 장해의종류와 원인、치료、예방법을 연세의대 소아과 李琦寧교수、서울대의대 소아정신과 洪剛義 교수에게 알아본다。

◇洪剛義교수

◇李琦寧교수

류마티즘性열 放置하면 心臟질환

過活動症… 지능높지만 注意力산만

〈몸의 건강〉사람이 가장 잔병을 많이않는시기는 1살 미만의 영아기。5살이 되기까지도 잔병을 많이않는 편이다。그러다가 5살이 넘어서면 어른이되기까지 대부분 잔병없이 잘자란다。병이 다시 고개를 드는것은 어른이 되면서 부터다。이렇게 따지면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청소년기는 병이 비교적 없는시기에 해당한다。

▲심신증…심신증이란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증세를 나타내는 건강장해를 뜻한다。

청소년 가운데 배가 아프다。머리가아프다。식욕이없다。숨이차다。기침이난다해서 병원을찾아 오는 일이 꽤있다。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여러가지 정밀검사를해보아도 아무런 이상을발견할수 없는일이 많다。

이때 이들 청소년의 감정과 정서상태를 알아보면 몹시불안해 하고 불만에 가득차있는경우를 자주본다。

심신증은 어렸을때 자라난 환경이 크게영향을 미친다。예를들어 첫아기가크기전 아우를보게되어 어머니로부터 떨어지게되면 소외감을 맞게된다。이런아기들은 손가락을 빤다든가 보드라운 캐시밀론 이불등을켜잡아야 잠을자게된다。

장난감과 이불을 어머니의 젖과 살갗으로 알고 지낸다。행동과학적으로 이를 代理母라 하는데 이때 장난감과 이불이 더러워져 새것으로 바꿔주면 보채고 잠을 잘 안자며 거부한다。이런현상이 자라나며 불안과 불만을 쌓아올린다。이같은 유아기를 가진 청소년이 자라나며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채 지나친 교육열로 해서 공부만 하라고 욱박지른다거나 과잉보호를 할때 커서 심신증으로 발전해 간다는것이 연세대의대 소아과 李琦寧교수의설명이다。

▲過活動症…잠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못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증세이다。지능은 높지만 주의력이 산만해서 성적이 떨어진다。국민학교 학년기에 주로 문제가되나 청소년기로 넘어간후에도 말썽을 빚을수있다。미국의 경우 어린이의 5%정도가 이같은 과활동증을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있다。

▲천식…기침을 몹시하는 청소년들도 심심찮게 눈에띈다。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않으나 공해와 과보호등이 문제가된다고 보고 있다。부모가 지나칠정도로 청소년을 보호하게되면 성격이 내성적으로 되기쉬운데 이때문에 호르몬분비에 균형을깨뜨려 천식을일으킬수있는 위험을 높여준다는것。

▲급성간염…간염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간염바이러스는 크게 A、B、C등 3가지로 나눌수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문제가되는것은 이중 주로 A형。노곤하고 밥맛을 잃으면서·으슬으슬춥거나 콧물이나는등 감기와 비슷한증세로 시작하는것이 특징이다。이와함께 손목이나 무릎같은 관절에 통증이오기도한다。절대안정을 취해야한다。

▲임파선비대…목옆 임파선이 비대해졌다 해서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임파선이 커지면 연주창(결핵성 임파선염)이나 암종류가 아닌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그러나 이들의대부분(90%)은 그대로 두어도아무런 이상이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멍울의 크기가 직경1cm이상 되면서 만져도아프지 않고 점점자라나는 것이면 속히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야한다。

▲다리의 통증…한창 자라는 시기에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종종있다。그러나 이도 왕성한 발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러나 몸에 열이 있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면 류머티즘성열인지 의심해야한다。이땐 서둘러 전문의의 검진을 받는다。류머티즘성열이 확인되면 철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이를 그대로 두면 5~10년후 심각한 심장판막증을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병〉청소년기는 몸은 물론 마음에도커다란변화가나타나는시기이다。키와 몸무게가급격한성장을나타내는데다가 사춘기란 격동기를 맞는다。여자는유방과둔부가 커지고 생리현상이 나타나는가하면 남자는 생식기가 커지고 털이 나면서 음성의 변화가 온다。남자는 몸의 변화와 함께 성적인 충동이 커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성격도 공격적으로 거칠어 진다。

이와함께 사고력에도 큰변화가 온다。구체적인것만 생각할수 있던것이 13~15세를 고비로 추상적인 사고를 할수있게된다。그래서 이상적이되고 구세대를 비판하며 장래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부모의 지나친간섭과 사회로부터의 여러가지제약이 가중된다。이때문에 청소년기는 어느때보다 많은심적갈등과 스트레스속에 파묻혀 시달림을받는다。가출、이유없는 반항、비행등이 청소년기에 문제가되는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은 증상으로서의 비행과 반사회적 성격으로서의 비행으로 나누어 생각할수있는데 증상으로서의 비행은 비교적 치료가 잘되나 반사회적 성격으로서의 비행은 치료가 잘 안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것이서울대의대 소아정신과 洪剛義교수의 설명이다。

海外医学

덜 자라는 아이 키를 키운다

DNA 成長호르몬 注入성공

週3회 6개월이면 2.5cm자라

過用하면 당뇨·심장병 우려

◇브라이언군(사진㊧)은 10살박이、제임즈군은 9살이다。『덜 자란 아이』브라이언은 그러나『이제는 자랄수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있다。

유전자 공학이 또 하나의 기적을 낳고있다。DNA의 분리·합성에 의해 合成DNA 생산에 진일보하고있는 샌프란시스코 지네텍(Genentech)사와 샌프란시스코 加州대학(UCSF)연구팀은 올들어 成長호르몬을 대량생산하는데 성공、미국 11개대학에 이의 유용성 여부실험을 의뢰했다。

여지껏 성장 호르몬은 해부용 시체 1구에서 극소량을 추출해『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피하주입 해 왔다。

이미 지네텍사는 1천5백여명의 非正常成長 아동중 20명에대해 DNA成長호르몬을 실험 주입하고있다。

많은 의학자들이『실험은 성공적이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大 샌드라·브레든 박사는『꼭 성장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및 성인의 여러병에 특효를가져올것 같다』고 밝히고있다。

『덜 자라는 아이』는 미국식 표현으로는 정상아동보다 30cm 정도 키가 더작고 자라봤자 1백32cm정도에 그치는 어린이들이다。

『왜 자라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는 많다。영양부족、부모의 열성부족、특이염색체 때문 등등…。그러나 뇌하수체의 원활하게 생산되는 1백91종의 아미노酸으로 분석되는 성장호르몬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미 DNA 성장호르몬을 지난해 1월에 주입한 어린이는 9개월에 3·3cm가 자랐고 5~10세된덜 자라는 아이에게 1주 3회 6개월주입한 결과 2·5cm정도씩 자랐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성장호르몬의 과용이 당뇨나 코·귀·입술등의 비정상적성장으로 기형인간을 낳지않을까 우려하고있다。

지금 발명된 DNA성장호르몬은 매주 3회、5~10년간 장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지속성도 문제되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뛸듯이 미래에대해 부풀어있는 아이들은「덜자란 아이들」자신이다。10살이면서 6살로 보이는 한 아이는『이제는 누구도 나를「작은새우」(난장이의속어)라고 부르지 않을것이다。나는 주사를 맞은후 3cm나 자랐다。나도 자라고 있다』고 기뻐했다。【外誌에서】

韓日축구

強攻과 守備「宿敵대결」

서울運 한국、通算 6승1무2패

제10회 韓日 축구대표팀간의 정기전이 21일하오3시 서울운동장서 열린다。

이번 韓日전은 11월 印度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의 전력을 예비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72년 이대회 창설이래 현재까지 통산 6승1무2패를 기록、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정기전의 경우 결코 안심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대표팀으로서 가장 불안한 점은 선수들이 피로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지난해 11월 하순 개편된 한국팀은 올해 접어들어 印度 네루컵 쟁탈국제축구대회와 이라크 친선대회에 잇달아 출전、약 1개월동안 해외에서 고생했는데 상당수의 선수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국제경기 경험부족도 우리대표팀의 취약점이다。

그러나 金正男·金鎬坤코칭스태프를 비롯하여 국내관계자들은 한국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팀웍을 완전히 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갖게되어 어려운점이 없지않으나 日本에는 이길수 있을것이다。

현재 우리팀은 공격력에 세는 큰 문제가 없으나 수비가 약하다。수비선수들이 정상적인 페이스를 지켜준다면 무난히 승리할것이다』(金正男코치).

한국은 朴成華 趙廣來의 폭넓은 리드로 팀웍을 정비하고、장신 崔淳鎬 李信雨의 더블·포스트 플레이、丁海遠 李康助 邊一雨 申相根등의 활기찬 공격으로 日本골문을 위협하게 될것이다。새로 주전GK자리에 발탁된 鄭聖教가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모리(森)감독이 이끌고 있는 日本대표팀은 유럽전지훈련과 日本내에서 열린 각종국제경기를 통해 최근 크게 전력이 강화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특히 수비가 강하다。

노련한 GK 다구찌가 日本의 수비진을 컨트롤하고 있으며、공격에서는 마쓰다(1m90)오자끼(1m74)기무라(1m90)등이 한국을 위협하게 될것이다。

한국은 대학선발팀간의 역대전적서도 4승4무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KBS제1TV와 MBC·TV는 이날하오1시부터 중계방송을한다。

◇韓日정기전 역대전적

회수	연도	대표팀	대학선발
1	72	韓 2—2 日	韓 1—1 日
2	73	2—0	1—0
3	74	1—4	4—1
4	75	3—0	2—2
5	76	2—1	1—0
6	77	2—1	0—1
7	79·3	1—2	1—1
8	79·6	4—1	2—0
9	81	1—0	0—0

金榮煥 男單우승 種別테니스

【光州】82년도 전국종별테니스선수권대회 최종일 경기가 20일 光州코트에서 벌어져 남자일반부단식서 金榮煥이 같은 大宇의 周昌男을 6—3、6—4로 제압、첫우승을 차지했다。金은 지난해실업그랑프리를 석권한이래 남자실업테니스 최강의 위치를 고수하고있다。

여자일반 단식서는 金壽玉(동헌)、남고 단식서는 安瑩鎬(마포)、여고단식서는 崔股姬(주문진)、남중단식서는 金太星(부산동)、여대단식서는 朴良子(단국)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팀 緒戰서大敗 世界氷球 C풀대회

【하카(스페인)AP=聯合】한국은 20일 이곳서 열린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C풀대회 첫경기에서 홈팀 스페인에 15—3으로 대패했다。

◇전적

스페인 15—3 한국

일본 7—5 유고

프랑스 4—2 불가리아

프로야구

27일 開幕경기서 MBC·三星대결

한국 프로야구의 첫幕을 펼치는 27일의 개막경기는 MBC·靑龍과 三星·라이온즈의 대결로 벌어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개막전 출전팀으로 서울을본거지로하는 MBC·靑龍과 大邱의 三星·라이온즈를 결정、발표했다。

KBO는 프로 6개구단이 모두 개막전 출전을 희망해와 출전팀 결정을 미루어 왔는데 이날 발표한 MBC—三星의 대진에도 타당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특정팀에 대한 특혜의 인상을 주고있다。

개막전 대진 결정으로 6월26일 서울운동장서 열릴예정이던 MBC—三星전은 취소되었고 大田서 열릴 OB—해태전도 서울로 옮겨 열리게된다。

豪華뱃길 나그네

엘리자베드號 世界일주 崔光鉉씨

美港의 絶景·船上의생활 하머니

호화여객선을 타고「호화여행 세계일주」를 해본 崔光鉉씨(사진·코리아 뉴스誌 편집인)는 여행담을 털어 놓으려 하지않았다。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데 편한소리를 하는게 쑥스럽고 죄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긴눈으로 볼때「해외여행」에 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좋다。

「해외여행」은 단순한 관광만을 의미 하는것이 아니며 좀더 나은사회를 만들기 위해 견문을넓히고 시야를 트게 하는 최고의 학습방법이기도 한것이기 때문。그렇기에 대학생의 해외연수도 생기고 해외여행도 점차 자율화돼가는 것일테다。

뒤늦게 말문을 연 崔씨는 엘리자베드호、사가호를 타고 가본 세계의 美港을 이렇게 꼽았다。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港、地中海의 나폴리、濠洲의 시드니 항구。崔씨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절경은 노르웨이의 협곡 피요르드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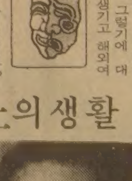
깊고 좁은 협곡을 따라 굽이굽이 3백여㎞씩 들어가면 산봉우리엔 永河가、기슭엔 단풍이、또 해안가엔 녹음이 우거져 그야말로 한눈에 四季를 보게 된다。게다가 5백m가 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빙하폭포를 볼때는 沒我의 경지에 빠진다。

여름한철엔 북극권한해가 일품。

그러나 崔씨가 강조하고있는 점은 경치가 아니다。그는 선상생활에서 西歐상류사회의 절도있는 생활태도를 많이 배웠다。

그들은 철저한 개인주의 생활을 하는것 같았지만 남비하지 않았고 인색하지도 않았으며 사심없이 남을 도울줄도 알았다。또 복선을 깔지않고 솔직한 대화、흉허물없는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다루어 가고 있었다。서로를「피곤」하지 않게하는 생활태도는 어떤 경우 감동적이기도 했다。

崔씨의 눈에 비친 여행을 즐기는「東西의 차이」도 음미해 볼만하다。동양인은 산과 호수등 정물화같은 경치에 자신이 담긴 사진을찍으며 탄복한다。반대로 서양인은 지는해、사막의 모래바람등 움직이는 경치에 카메라를 댄다。靜과動의 차일지 모르나 힘이라는 문제에서 적극성이라는 시각에서 西洋人의 기질을 우리도 참작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것。



그는「호화여행」이란 표현에 거부반응을 나타냈다。그 여객선엔 난다긴다하는 백만장자와 거물급 인사들도 끼여 있었지만 그여행을 위해서 일생동안 적금을 부는사람、자기분수대로 저렴한 가격이 드는 區間여행만 즐기는 시민도 많았다는 지적。

『여행의 의미를 돈이 많이드느냐、적게드느냐라는 척도로 잴수는 없읍니다。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崔씨의 결론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여행」을 가볍게 얘기할만큼「여유」를 갖게 되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金首宗기자】

말하는 現金자동지급기 등장

○…『어서 오십시오』—。인사부터 한다음에『카드를 넣어 주십시오』『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찾으실 금액을 눌러주십시오』…차례로 동작 하나하나를 일러주면서 이용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현금자동인출기가(사진)등장했다。국민은행이 서울중구 소공지하상가에 설치한「말하는 현금자동 지급기」는 돈찾는데 걸리는시간이 35초밖에 안되고 1회20만원씩 연속5회를 계속 꺼낼수있으며 이용절차를 말로 안내해주는 것이 특징—。4월중에 백화점 쇼핑센터등 중심지번화가와 주요지점등에 32대를 더 설치하고 올해안에 1백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명종 한약방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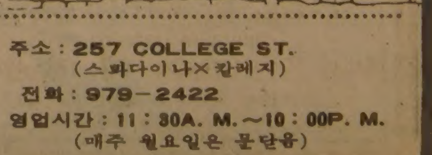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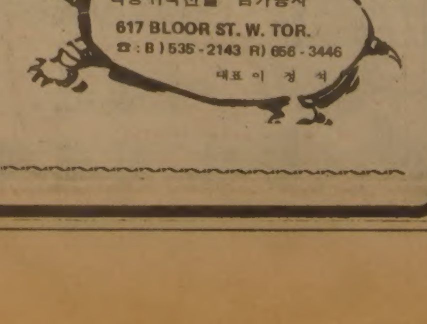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病들어가는 나를 살려주오"

마구잡이 개발로 雪嶽山이 멍든다

계곡뒤덮은 쓰레기…냇물도 몸살
수백년 巨木도 무참히 싹둑싹둑
스피커선 念佛·유행가…雪嶽精氣 죽어가

우리나라최고의 절경이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있는 국립공원 雪嶽山의 자연이 마구 훼손되고있다. 관광지 개발 붐에 따라 여기저기 휴게소라는 이름으로 대형건물이 들어앉는 것도 문제지만 건설공사를 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산중턱을 깎아내는가 하면 공사장에서 내다버린 흙, 바위덩이등이 계곡을 뒤덮고 있다. 게다가 민박촌, 상점등에서 나온 쓰레기가 계곡의 맑은물을 더럽히고있고 밀채꾼들은 에델바이스등 희귀식물에서 부터 나무의 진액에까지 마구 훔쳐가는 장삿속에 바빠 가꾸어야할 자연자원이 날로 황폐해가고있는실정. 더우기 관광시즌인 봄철을 맞아 이 「명산」으로 몰려들 수많은 관광객, 등산객, 신혼부부, 잡상인등의 발길과 폐기물로부터 어떻게 설악의 정기를 지켜낼 수 있을것인지 걱정이다. 본사 기자는 더럽혀지고 허물어져가는 설악의 현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雪嶽山=金弘祚기자】

◇벌거숭이 山등성이 自然을 헐어내고 人工을 건설하는 설악산내의 휴게소 건설공사현장. 등성이가 마구 헤쳐진사이로 내버린 잡석, 토사, 흙등이 쌓여있어 계곡아래 자연경관을 해치고있다. 【金亨烈기자찍음】

寒溪嶺 寒溪嶺은 雪嶽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관문인 寒溪嶺의 고갯마루는 봄철 사납게 파헤쳐져 설악이 병들어가고있음을 한마디로 대변해준다. 휴게소를 짓는다고 돌계단이 있는 산허리를 싹둑 깎아 버렸다. 그곳에서 파내진 흙은 계곡 여기 저기에 버려 아름다운 절경의 모습에 먹칠을 해놨다.

이곳은 설악으로 들어가는 두가지 코스중의 하나로 주변의 風光이 수려하여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곳. 설악루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도 중간 쯤에서 뚝 잘려 오르내릴 수가 없게되었고, 그주변은 온통 흙더미이다.

당초 이자리에는 당귀차등간단한 음료수를 팔던 오두막집이 한채 있었는데 헐어버리고 현대식 휴게소를 짓는 중이다. 공사 안내판에 따르면 휴게소 6백12평방m, 주차장 1천5백14평방m, 화장실 62평방m이다. 안내판 조감도에 따르면 신축 휴게소는 계곡의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기위해 계곡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위에 건물이 올라앉게 되어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은 조감도와는달리 산허리를파낸 흙을 그아래계곡으로 마구 밀어붙여 수림을 훼손하고있다. 또 지난해10월 완공된 한계령일대 국도포장공사때 파낸 토사와 바위덩어리가 아직도 계곡아래 방치되어있다.

五色약수터 5㎞쯤 내려오면 五色약수터다. 관리사무소에서 약수터에 이르는 개천양쪽으로 토산품 가게와 민박촌등이어지럽게 널려있다. 오른쪽 언덕은 민박촌에서내다버린 연탄재, 비닐봉지등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 부녀자들이 개천위 언덕에서 빨래한물을 맑은 개천에 내다버리는것을 목격할수 있었다.

雪嶽洞 에서 설악 파크호텔, 뉴설악호텔에 이르는 중간지점의 하천가에 수령2백년은 됨직한 소나무가 허리께부터 잘려있다. 잘려진 단면은 눈에 띄지않토록 페인트 칠을 했고 잘라낸 나무는 토막을 쳐 도로아래 바위밑에 숨겨놓았다. 공원관리사무소가 바로 코앞인데 수백년된 거목이 이처럼 무참히 잘려나가야하는 이유를알길이없다.

◇受難 巨木 건설공사장에서의거목들의 수난. 나무에 의지해서 공사용 층계를 버티어 놓은 몰골이 보기 흉하다.

外雪嶽 에서 대규모 건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비선대 아래쪽 2백평 규모의 2층휴게소가 골조공사를 마쳐가고 있는데 테라스를 받치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 인근 바위에 쇠못을 박았다.

이처럼 큰 휴게소를 지을경우 화장실의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왼쪽으로 30여m 내려가면 작은 암자가 있는데 염불이 녹음된 카세트를 대형스피커를통해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다. 매점들은이에질세라유행가테이프를틀어 응수하고 있다. 염불과 유행가가 뒤섞여 산의 정적은 찾을길이 없다.

계조암을지나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양쪽은 1백년이넘은 노송이 수림대를 이루고 있다. 이 노송들은 대부분밑동의 껍질이 벗겨져있다. 밀채꾼들이 송진을뽑아간상처. 직업적인 밀채꾼들 뿐 아니라 에델바이스등 희귀식물은 등산객들의 마구잡이 채취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우네스코본부는 설악산의 희귀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오는 6월 이지역을 국제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외국인들도 이처럼 애지중지하는 설악산은 내국인들의 파렴치행위와 무책임한 보호행정으로 훼손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詳報=28일자 주간한국】

劇場손님 23명 關聯혐의

美文化院방화 "현장엔 女共犯 1명 더 있었다"

"犯人 같은4人組 大新洞쪽 도주"목격

【釜山=盧基烈기자】부산美문화원 집단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0일방화현장에 또다른 여자공범1명이 더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목격자들의증언을 토대로 몽타지를 작성,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또 불온 유인물이 살포된 현장(문화원 중심으로 2~3백m반경)을 중심으로 공범및 관련자 수사를벌이고 있으며 불온비라가 뿌려졌던 극도극장안의 관람객63명중 신분증이없는 남녀17명에대해 집중조사중인데 이들중 2~3명은 관련자일것으로보고있다.

경찰은 이번 방화사건을주동했을것으로 믿고있는 丁淳品(26)이 20일현재 검거되지않아 수사에 뚜렷한 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데 수배 전단 7천여장을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해안등 도주로를 차단했다.

경찰에의하면 丁은 지난80년12월9일 발생한 光州미공보원 방화주범으로 1백만원의 현상금이 붙은 수배자로 지난1월15일에는 전남 高興郡道陽邑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려다 실패, 도주했다는것. 光州미공보원 방화사건때는 文모(28·서울S대학중퇴), 朴모등 4명과함께 범행했는데 文등4명은 검거됐었다.

경찰은 이번 집단방화사건을 사전에치밀하게 조직, 방화조(3~4명추정)와 불온문서살포조등으로나누어 범행했으며 수배중인 丁이 조종한것으로보고있다.

한편 경찰은 19일상오11시50분부터 낮12시55분까지 부산지검 崔炳玉검사지휘로 치안본부 화재감식반을 동원, 현장을 검증했는데 범인들이 기름을 운반하는데 사용한청색및 담홍색 플래스틱용기2개를 발견했다. 이용기는 도서실앞 시멘트바닥과 카피트에 거의타버린채 엉겨붙어있었는데 용량은 10ℓ와 20ℓ들이 각1개씩이었다.

경찰은 또 현관바닥에 깔려있는 신발털이 밑에서 불을붙일때 뿌려진 불과함께 휘발유가 괴어있는것을 확인, 방화는 휘발유로 했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에따라 먼곳에서 운반할수없었을것으로보고 인근주유소등을 상대로 플래스틱용기에 휘유를 사간사람이 있는지를 찾고있다.

또 국도극장앞에 전단이뿌려진 18일하오2시15분께 극장앞 대우서점에있던 부산중부경찰서 富平파출소소속 崔鍾海경찬(38)이 즉시현장으로 달려가 극장출입구 셔터를내림으로써관객들의신병을 모두 확보할수 있었다는것.

경찰은 당시3층에서 전단이 뿌려졌기때문에 범인들이 극장을 미처 빠져나가지못했을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범인들이 아직 釜山·경남지역에 은신해있을것으로보고 고속버스터미널·항구·철도역등을 봉쇄, 검색을 강화하고있다.

한편 수배중인 丁은 전남 麗川郡雙鳳面鳳溪里568이 본적으로 麗水Y고교를 졸업, 光州C大에 진학했다가 2학년때 중퇴했는데 서울과 麗水에 누이가 각각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丁은 평소 노란금테안경을 썼다 벗었다하며 키1m80㎝의 뚱뚱한 체격으로 얼굴은 둥근편인데 金海先이란 가명을 사용하고 마르코란 세례명을 갖고있다.

美문화원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수배중인 범인들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자3명과 남자 1명등 20대 4명이 지난 18일 하오 당황한 모습으로 택시를 타고 西區大新洞쪽으로 가는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신고에 따라 이들을 태워준 택시운전사의 신고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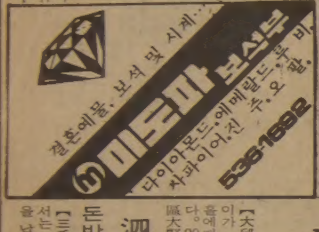
學園불온서클 조사 犯人들 몽타지配布

한편경찰은 20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자2명을 포함한 범인1명의 몽타지20만장을 작성, 배포하는 한편 이사건이 불순분자들의 조직범행이라는 점을 중시, 79년 부산 소요사태 관련자와 학원사태 관련으로 제적된자및 불온서클의리스트를입수, 사건당일의 알리바이를 수사하고있다. 또 오는22일 임시반상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용의자색출및 신고를당부키로 했다. 부산지방에서는 3월들어 6차례의 불온문서가 발견된것으로 알려졌다.

숨진張군 장례식

美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숨진 東亞대 상경대3년 張德逃군(22·西區槐亭1洞78-2)의 장례식이 20일 상오10시30분 메리놀병원 영안실에서 엄수됐다.

한편 주한 워커 미대사는 숨진 張군유족에게 조의전문을 보내고 위로했다.



실종 6살男兒 맨홀 溺死體로

【大邱】실종됐던 6세어린이가 실종하루만에 집부근맨홀에빠져숨진익사체로발견됐다. 20일상오11시께大邱市北區大賢洞 군인아파트 놀이터옆 하수처리장맨홀에서 이아파트 다동203호 유장현씨(41)의2남형철군(6)이빠져숨져있는것을 소격과출소 경찰관이 발견했다. 【聯】

泗川 농협조합장 구속令狀

돈받고 納品權인계

【三千浦】경남 삼천포 경찰서는 20일 군부대에 부식를 납품하면서 돈을받고다른 사람에게 납품권리를 넘겨준 泗川郡사천단위농협 조합장 최도경씨(48)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최씨는 지난 81년12월23일 인근 모군부대의 금년도분 부식물1억1천6백95만원어치를 조합에서 공동생산, 납품키로 계약한후 납품업자이재희씨(71·釜山市 北區德川洞379의6)에게 납품액의 5%를 권리금으로 받기로하고납품권을 인계해 이씨가 지난2월28일까지 1천6백만원 상당의 부식물을 晋州등지에서 구입 납품하게했다는것. 【聯】

용의자「안경낀 40代」추적

高級카메라등 귀중품은 손안대
낯털이·面識犯·怨恨등 다각수사

「파이롯트」專務夫人피살

속보=서울城北區貞陵4洞 파이롯트만년필메이커 新和社전무 李炳銘씨(49)의 부인 張淑英씨(44)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명이상의 면식범들이 응접실에들어와 코피대접을 받던중 張씨를 살해한것으로보고 원한관계등 張씨부부의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보는것은▲응접실탁자에 있던 코피잔3개중 2개에는 코피가 따라져 있었고▲평소 차대접을 하지않는 張씨가 귀한손님이 올때만 쓰던 일제 자기코피세트를 사용한점▲범인을 張씨가 직접맞아들였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점▲현금 롤렉스 시계와 캐논카메라등 귀중품은 손대지 않고 커프스보튼등 싯가 3만여원에 지나지않는 값싼물건만 털어가 의식적으로 강도사건을 위장한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들이 張씨집방을 모두 뒤졌으나 화장대서랍, 작은장롱등 손쉬운곳만 뒤진 흔적이 있는 점으로봐 초범낯털이가 정원사 이름을팔고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후 귀중품을 챙기지 못하고 달아났을 가능성도있는 것으로보고 인근우범자와 동일숫법전과자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80년10월말 李씨가 신도리코에서 파이롯트의 전무로 자리를 옮긴뒤 8개월만에 파이롯트前전무 林昡圭씨(50)등 전직간부7명이 탈세쪽로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구속돼 李씨가 직책상 원한을살 가능성이있고 이들의 구속이후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다수의 종업원이 해고 당했으며 李씨가 新和社방계회사의 경영에도 깊이관여한것으로 알려져 경리·인사부문에 대해 중점수사를 벌이고있다.

경찰은 또 張씨집에서 30m 떨어진 언덕쪽에사는 琴完淑씨(26·여·貞陵洞226의395)가 사건당일 하오2시께 張씨집의 스피츠개가 심하게짖어 쳐다보니 40대남자가 張씨집대문앞에 서있었는데 잠시후 이남자가 대문안에 들어가있는것을 봤다는 진술에따라 키1m70㎝에 하이칼러머리, 회색양복차림의 안경낀 40대남자를 찾고있다.

315명 각종훈장·표창

어제 제9회 商工의날

제9회 商工의날행사와 工場새마을운동전진대회가 20일 상오 서울중앙국립극장에서 金埈成부총리와 경제4단체장등 국내외상공인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열렸다.

劉彰順국무총리는 金부총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아직도 국제경제는 • 선진각국의 보호주의 장벽강화와 달러貨강세 金利의 유통등 잠시도 방심할수 없는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급기술을 개발하고 철저한품질관리를 기하여 우리산업의 취약요인인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개선에 온힘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李東燦코오롱그룹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등 모두3백15명의 국내외상공인들이 각종훈장과 표창을받았다.

표창자명단은 다음과같다.

◇금탑산업훈장 ▲李東燦(코오롱그룹회장) ◇은탑〃 ▲孫尙模(국제상사사장) ◇동탑〃 ▲申東寬(太平洋化學사장) ▲鄭海龍(第一毛織공장장) ◇철탑〃 ▲韓泳大(白羊회장) ▲朴秀雄(大一化學사장) ▲張達洙(大印尼상공인) ◇석탑〃 ▲李昇桂(國際染織사장) ▲朴恩台(美洲産業회장) ▲玄鎭國(勝一製鐵사장) ▲許永燮(綠十字사장) ▲金起杓(起興기계사장) ▲金允植(韓國유리군산공장상무) ▲都永穆(鮮京공장장) ▲方煒(在쿠웨이트상공인) ▲玄慶燮(在홍콩상공인)

한국일보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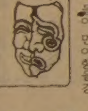
元老화가 聖地순례

외길26년…朴生光옹 印度나들이

원로화가 내고(乃古) 朴生光옹이 최근 인도 聖地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이번 순례를 朴옹은 78년간의 삶이 20일사이에 집약되고 승화된것 같다고 말한다.

朴옹이 비행기에 오른것은 지난 2월10일. 스케치북과 옷 몇가지를 넣은 조그만 가방하나가 짐의 전부였다.

고령인 나이와 인도의 기후때문에 막는 사람이 많았지만 못내 씨름해온 「외길62년」이 권하는듯 했고 入寂한지 오래인 친구 靑潭스님이 부르는 느낌이 들어 먼여행을 감행했다.



靑潭스님과朴옹은晋州市水晶洞 마을에서 자랐고 국민학교와 진주농업학교의 동기생. 「求道의 길」과 「예술의 길」로 서로 방향을 달리했으나 궁극엔 서로 만난거라는 묘한 연대감속에서 평생을 사귀었다.

비행기속에서 머리속은 1천2백60여년전 걸망 하나를 메고 苦行의 순례를 계속했던 慧超스님과 10여년전에 이 길을 갔던 靑潭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딘가에 남아있을 慧超스님의 숨결을 더듬는것이 한국인의 영혼을 잇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맞아준 델리는 바로 부처님의 세계였다.

苦行 慧超스님의 佛心 아직도…

사람의 눈동자는 바로 부처님의 눈이었다. 부처님의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듯한 착각까지 들었다.

이러한 느낌은 아그라-산치-아잔타-엘로라-말라동굴-카투만두-룸비니-다즐링-부다가야를 거치는 동안 더 강렬해 졌다.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고통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않는 인도사람들의 얼굴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혜초스님이 묵었다는 말라동굴에서는 한국인의 얼을 느꼈고 부다의 전생이 그려진 아잔타동굴과 8백년걸려 완성한 엘로라동굴에서는 「인간승리」의 무서운 집념을 보았다. 살인적인 무더위등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외길」을 걸어간 선각자의 집념에서 자신의 「외길62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환희도 마음껏 호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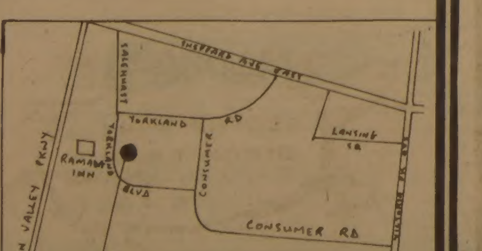
『선생님은 염주알에서 부처님을 느끼고 절에 가면 부처님의 본모습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聖地에 갔을때는 부처님의 품안에 있었어요. 내말뜻을 아실는지 모르겠네…』 【李炳日기자】

한국고유 가구점

— 고급품질의 고대 장농및 가구.
— 탁월한 End-tables, night-tables stereo/video stand coffee-tables 선반등.
— 많은 종류를 구비.
— 특별가격으로 봉사.

쇼우·룸
230 YORKLAND BLVD., WILLOWDALE
(at Sheppard E. and Don Valley Pkwy, Opposite Ramada Inn)
BU-IL COMPANY (CANADA) TEL: 498-6953
오전10시~오후7시30분(월~금)
오전10시~오후6시 (토)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구독 신청서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분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킹스톤×미드랜드)
전화:266-6355

입주해서 할머니 보살필 한국여성 구함
전화:231-7991 Mrs. Kim

정원사 구함. 신체건장한 남자로써 영어나 일본어를 필요로 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298-3316 Mrs.가라사와

지렁이 사업은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 있음.(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 있음. 전화: 655-6543 (Mr. Lee)

여자캐쉬어 유경험자 구함
(동부지역) 전화: 465-3132 Mrs. 유

"급 구"
애기 보아주실 할머니 구함.(서부지역)
전화: 241-4755

도너스 가게에서 밤일(Full Time)하실분
남자분 구함(밤12시~아침8시)
☎ : 531-2689

경험있는 가게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베이뷰×펀치)
☎ : 223-3865, 493-5895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구함.
출퇴근도 가능
☎ : 742-0434

경험있는 풀 타임 헬퍼(남자분) 구함
1666 Queen St. W. ☎ : 532-6143, 532-9638

피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중고차를사서 피해를 입은분은 급히 연락바람.
☎ : 928-0556(Mr. Kim)

구 혼

배우자 구함. 본인은 현재 캐나다 방문중인 현 39세의 건강한 독신남자임.
연락처:537-0238 Mr.Kim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가정 사정으로 급매"
적은 자본으로 베커 운영하실분
혼자운영 가능 2층에 2베드룸 포함.
주매상 : $3.500이상
렌트 : $472(월)이층살림집 포함
☎ : 535-3550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과일점이나 기프트 샾을 하기에 좋은
더프린 근처 1784 Eglinton Ave. W. 에
위치한 건물팝니다.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직접 만드는 델리카티슨(빵집) 매매
새장비 구입,워크-인 쿨러,바른지역임.(오릴리아)
아스킹:$59,000+스탁
전화:862-0788 교환 53 Mr.Don Whitfield,
A.E.Lepage(Ont.) Ltd.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결된 2층 건물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7개의 방, 4개의 침실 그리고 차도가 딸려있음.
좋은 상업지역, (PAPE × DANFORTH)
수퍼마켓 (WOODBINE × DANFORTH)
한가족이 하기에 꼭 적합한 사업입니다.
아스킹: $35,000 주매상: $7,500
OPEN HOUR: 6 DAYS/WEEK 9a.m. - 6p.m.
CALL JOHN GEORGAKOPOULOS 전화: 493-6250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장래성이 확실하며 급성장이 기대되는 새로 지은 Mall안에 Convience Store매매. 모든 장비 갖춰 있음.
☎ : 267-8747 Mr. Sherman

40여개의 가구달린 방을 가진 최고급 ADULT 빌딩
총년수입: $215,000 다운페이: $200,000
전화: 635-6847

타 사업관계로 선물쎈타 급매
전화: 535-2143 Mrs. Lee

가정의 벗 한국일보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환영
Pape Subway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독신자에 한함. 월 $190
가구 갖춰 있음(St. Clair W. 근방)
☎ : 763-3289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 코리아타운 번영회 : 532-272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크로스웨이 꽃집 (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전화: (B) 535-1355 (R) 757-0905 님파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홍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8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 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일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84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기 타

인생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Lady "M"을 찾아 오세요.
1344 ST. CLAIR. W. 전화: 652-1495

＊한국일보 안내광고＊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전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향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전화: 766－5639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부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청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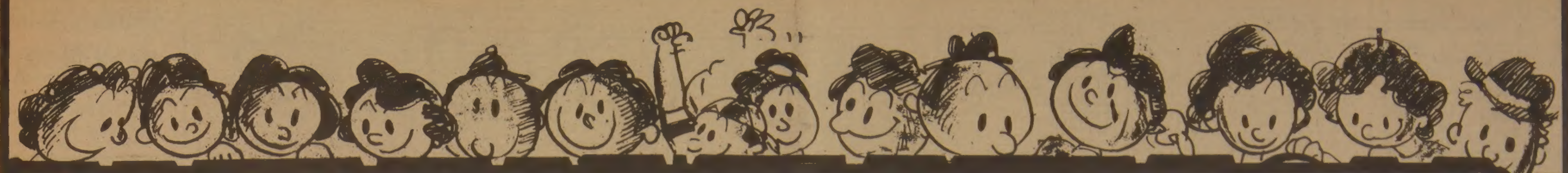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 크레딧·카드로 광고비를
지불하셔도 됩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인식품 구매주식회사 사은대매출

세일기간 : 2주간(3월26일～4월3일까지)

친애하는 고객여러분! 그동안 이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심 양면으로 애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4개식품점(삼복, 서울, 제일, 한발)이 단결하여, 한인식품 구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만교민을 위해 보다 좋은 써비스를 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파격적인 가격 -----

가주미(일명 장미쌀)50LB $15.95

DY참기름		7.95
가도야참기름		8.95
삿뽀로라면	24개	7.95
DY우동국수	5LB	3.99
DY막국수	5LB	3.99
DY소면	4LB	2.99
DY당면	1LB	1.99
DY엿기름	1봉지	1.99
다누끼우동	1BOX	19.50
기스메우동	1BOX	19.50

DY메주가루	1LB	1.99
DY고추가루 (김장용, 고추장용)	1LB	2.99
중공산 새우젓특등품	1LB	1.59
회조개	2LB. BAG	7.99
DY낙지	2LB. BAG	6.99
멍게	1LB. BAG	3.99
해삼	1LB. BAG	3.99
조기	33LB(1BOX)	42.95
삿뽀로잇지반비프		7.95

====== 토론토 전역에 무료배달 ======

한발식품 : 274—5401
서울식품 : 291—8317
삼복식품 : 743—8270
제일식품 : 532—1054